



6

주 체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6 호

(루계 제 608 호)



◇◇◇◇◇◇◇◇◇◇◇◇

차례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을 더욱 활발히 벌리자	4
사회주의기함의 사령탑우에서	6
문학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과 그 독창성	7
위대한 시범강행군의 하루	10
쇠물이 흐른다	11
영웅의 안해를 혁명가로 키우시고저	12
영원할 그 믿음	13
통일대장수	14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17
침묵속의 담화	18
호수가의 정적	19
빛나는 별 김정일	28
너와 나	29
오직 한마디	35
그대들을 생각한다	36
여기에 와보시라	39
찔레꽃마을의 향기	40
장군님의 인민행렬차	43

질어가는 단풍	44
타오르라, 성강의 봉화여	55
추억하는 땅	59
무명 고지	61
물소리	62
고향이란	69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감동깊게 노래한 심오한 시적형상	70
나의 잔등에	72
움직이는 땅	73
탄부, 만아들답게 살리	75
향만의 별	76
그는 오늘도 나팔을 불고있다	77
창조와 우리 생활	78
공화국창건 50 돌기념 문학축전작품창작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80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을 더욱 활발히 벌리자

지금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과 함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받아안고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펼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4월 18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서 민족대단결의 본질과 기초,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독창성과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위한 5대방침을 천명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주시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단결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촉, 대화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 제시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역사적문헌이며 현시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작은 그 정당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을 더욱 즐기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의 가슴가슴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헌장인 새로운 민족대단결의 총서를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통일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어떻게 하나 아버지수령님의 가장 숭고한 뜻이 있고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통일주체의 문학작품창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주제적문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적시기를 맞이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분열이 지속되면 외세에는 어부지리를 주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참화를 가져다주게 된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고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모두가 펼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겨레에게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현실성과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단일한 민족성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서로 뗄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성과 뉴대는 그 무엇으로써도 끊을수 없으며 영원히 갈라놓을수도 없다.

지금 우리 겨레의 통일기운은 비상히 높아가고있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의지는 날이 갈

수룩 강렬해지고있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조국통일이다.

우리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과 독창적인 방침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이 바라는 민족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앞당겨오는 데 문학으로 이바지하는 참된 길이 있다.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현시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예리하게 반영하는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민족의 리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외세에 의존하여 실현하려는것은 예측의 불가미를 스스로 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남조선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일삼아온 《문민》 매국역적들에 의하여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두터운 장벽이 가로 놓인 오늘의 현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킬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이러한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온 겨레가 남조선의 매국역적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모든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고무하여주어야 한다.

현시기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이루어져야 한다.

애국애족은 민족대단결의 사상정신적기초이고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위업이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애국애족의 리념과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기치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것없이 누구나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기여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생활을 반영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하는것은 민족의 일

원으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이고 사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관계없이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 나갈것이며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야인사들 그리고 대자본가와 군장성들과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을 합쳐나갈것이라는것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창작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이 나서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대립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요에 맞게 잘 설정하고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대단결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방해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만 실현할수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주되는 방해자는 외세이며 그에 추종하는 민족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투쟁대상은 외세와 그 앞잡이이며 바로 이런 대상들이 침예한 적대적갈등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문학을 통하여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열시켜 지배하려는 강도적인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동족간의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는 기본원흉이며 그에 추종하는 민족반역자들이야말로 추악한 무리라는것을 날날이 폭로단죄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작품에 구현함에 있어서는 반영해야 할 생활분야도 넓고 그 주제도 다양하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기간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 열기와 기운을 더욱 북돋아주고 조국통일위업에 힘있게 기여한것처럼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도 탐구와 사색, 열정을 기울임으로써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기함의 사령탑우에서

문동식

밤

깊어가는 이밤도
여기 평양의 별많은 상공에
등대마냥 빛을 뿌리는
우리 당중앙의 휘황한 불빛

우러러 바라보면
기함의 사령탑 불빛이 아닌가
이밤도
거품물고 달려드는 제국주의광풍을
화살같이 꿰질러 번개같이 달려가는...

그러면 눈앞에 보여와라
맹수같이 포악한 머리를 치여들고
압살과 질식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 원썩들의 발악의 소용돌이
그러면 내 귀전에 들려오는 소리
기함의 배전에 부서져 흩어지는
홍악한 원썩들의 파멸의 비명소리

그 소리를
깊은 명상속에 새겨들으시며
사회주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
사령탑의 넓은 집무탁우에
과학적사회주의작전도를 펼치시고
이밤도 진군의 조향간을 돌리신다

수령님 열어주신 자주의 항로에
무적의 기함을 곧바로 세웠거니
그이의 모습은 평온하시다
허나 심중에선 불이 끓는다
제국주의난파속에 표류하는
조난당한 사람들의 피타는 웨침에

그이는 침침하게 드리운 검은 구름을
예지로운 시선으로 헤가르신다
명활한 손길로 침로를 밝히신다
섬섬한 칼날같이 치솟는 창과
사악한 제국주의괴수들의 도전을
날카로운 배머리로 쭈-욱- 가르신다

그이는 이밤
순간도 불빛을 끄실줄 모르신다

그이 계시어

사회주의운명과 인류의 미래를
밝게 미소하시며 락관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이
두어깨우에 실리어있어

그이는 쪽잠마저 잊으시고
깊은 사색속에 세계를 거니신다
로동계급의 선대 탁월한 수령들이
개척하고 이룩한 사회주의위업을
말아먹은 배신자들 타매하시며
진리의 주옥같은 글발 새겨가신다

그이는
저 불밝은 사령탑우에서
붉은별 빛나던 크레믈리 지붕우에
다시 천제짜리의 기발이 드리운
비참한 참상을 굽어보시며
평양선언을 인류의 머리우에
사회주의표대로 높이 추쳐드신다

이밤도
꺼질줄 모르는 저 불빛은
동란의 세계를 한품에 안으시고
빙하를 녹여가시는
그이의 거대한 사상의 빛발
태양처럼 뿜고있는 사랑의 열화

오, 레사로운 이밤도
결출한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
평양의 별많은 상공에
필승의 성화를 밝혀놓으시고
우리의 사회주의 무적의 기함을
망망한 대양 자주의 항로따라
만속으로 곧바로 몰아가시거니

오,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함
우리 당중앙 사령탑의 저 불빛을
운명의 등대
승리의 광원
새 세계의 빛발로 우러러 바라보며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전함들은
창파를 헤치며 따라서고있어라

문학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과 그 독창성

방형찬

오늘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발표 한돛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하여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아갈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시는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을 창조하고 건설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 주체적인 민족문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주체적인 민족문학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새 시대,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이며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고 자기 인민의 민족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민족적인 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그 자주적본성과 력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 주체적인 민족문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지키고 구현하여야 한다. 민족문학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문학 창작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해결해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문학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문학 창작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학의 전통이 구현되어있다. 문학의 생명으로 되는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야 하며 민족성을 살리는 문제는 주체성을 고수하는데로 지향될 때 옳바로 해결될 수 있다. 주체성은 민족문학의 얼굴이며 정신이

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성에 의하여 민족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된다. 문학에서 민족성은 자기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언어와 풍습을 비롯하여 생활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것으로써 나타난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자체의 인간학적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적인간은 계급과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며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진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또한 문학을 시대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그 인식교양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민족의 고유한 생활은 민족문학의 토양이며 원천이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에 토대하여 발전하는것만큼 자기의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은 그에 고유한 독자성과 민족성을 가지고 세계문학발전에 이바지한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이 자체의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문학의 보물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옳바른 길은 오직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나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인 경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민족문화발전에 끼친 해독적인 후과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민족문학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살려나갈수 있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창작가들이 애국애족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창작가들은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소재를 선택하고 종자를 탐구하여야 하며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이 옳바른 민족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계급을 어떻게 대하며 계급의 한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이 주체사실주의문학창작에서 형상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인간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위

업이 노동계급의 위업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위업은 노동계급의 위업일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완성되는 자주적인 혁명위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간이 계급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보다 못지 않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주체사실주의문학창작에서 형상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인간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민족이 분열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인간문제를 탐구하고 형상화하는데서 애국애족의 립장을 견지하고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는 개인의 운명문제를 주제로 제기하여야 한다.

문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든지 주제로 제기하고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문학이 제기하는 그 모든 인간문제는 애국애족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있어야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애국애족의 립장에 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민족문학 창작과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우리 식의 민족문학은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기초로 하고있으며 애국애족의 넓이 깃들여있는 문학이다. 우리 식의 민족문학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항구적인 형상원천으로 삼고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요구를 옹기 구현해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민족문학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거부하는 세계주의, 창작에서의 《자유화》를 떠벌이면서 문학자체를 《서양화》하려는 사상경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식의 문학리론, 창작방법, 문학운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이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의 실천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발현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데서 가장 유해로운 사상경향은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이다.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자기의 민

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내세울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지난날 일부 사람들속에서 우리 나라 문학예술유산을 보잘것 없는것으로 보고 파소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던것은 그들이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있었던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창작가들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문화유산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옹바로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앞장서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새롭게 창조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있게 인식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고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부르고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도덕적품모는 일찌기 불수 없었던 새로운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의 신념과 의지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현실에서 아름다운 생활로 꽃피어나고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사람들,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고 희생된 영웅들, 영예군인과 한생의 길동무가 되려고 결혼하는 녀성들,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말아 키우는 처녀들과 같은 아름다운 인간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는것은 우리 시대의 자랑으로,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벽찬 현실에서 새롭게 꽃피어나고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소행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과 인민들 속에 형성된 새로운 미학관, 주체의 미학관이 그대로 체현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미학관, 주체의 미학관은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핵으로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인간미의 원천으로, 기준으로 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인간미를 옹기 파악하고 인간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창작가들앞에 나서고있는 숭고한 임무이다.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은 종자의 탐구와 예리한 사회적문제의 제기 그리고 생활탐구와 세부묘사, 언어형상을 포괄하는 창작의 전과정을 통하여 구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창작적사색과 예술적환상의 전과정을 **김일성**민족의 독자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과정으로 일관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인류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제시한 강령적지침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문예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독창적인 사상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민족문학건설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였다. 선행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는 문학의 사회적숙성을 주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만 해설하였다.

그것은 선행문예리론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로 된 철학적세계관의 시대력사적제한성과 관련된다. 선행로동계급의 리론에서는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인류의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면서 민족형성을 자본주의의 발생발전과 결부시키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민족자체도 없어질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기본문제로 나서고있던 당대의 조건에서 선행리론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제기할수 없었다. 또한 사회주의운동, 로동운동안에서 기회주의자들이 부르조아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심화는 주체성과 민족성 문제를 더구나 제기할수 없게 하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자주시대의 도래와 민족국가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실적조건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마치도 국제주의에 배치되는것처럼 여기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선행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도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주체문화론》**에서 주체성은 문학의 생명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으며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살리는것을 새로운 민족문학건설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의 독창성은 력사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가 발표된 이후 우리의 주체적인 민족문학 창조와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통하여 뚜렷이 과시되였다.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한해동안 우리 문학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새형의 민족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영생》**(백보흙, 송상원),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정기중)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실재한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창작된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작품들이

다. 이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이 위대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엄높은 민족으로 될수 있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모든 등장인물들을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참다운 충신효자로 형상하였다. 이 장편소설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확고히 고수된 우리 주체소설문학의 성과작들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이 발표되자 짧은 시일안에 창작한 서사시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며》**(김만영)는 그 사상주체적내용과 형상적특성 전반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지키고 구현한 우리 식의 서사시이다. 이밖에도 가사 **《조국과 나》**(류동호), **《구월산명승가》**(김정훈), 창시 **《경례를 받으시라》**(신병강), 서정서사시 **《전선길의 3일이야기》**(황성하, 박경심)를 비롯하여 시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문학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실증하여준다.

송년시 **《눈이 내린다》**(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내용있게 잘된 작품이며 시형식도 새롭게 탐구개척한 성과작이다.

송년시 **《눈이 내린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혁명의 최고사령관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내 나라 내 조국은
주체성의 강국
민족성의 강국으로
그 존엄 만방에 떨치리라

송년시의 매 시구절마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효심으로 가득찬 전인민적 감정이 흘러넘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뜻깊은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주체86년의 가지가지의 사실이야기들을 시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살려나가는것은 오늘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전 력사적행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밝혀주신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고수된 주체적인 민족문학으로 창조발전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어떤 주제, 어떤 형식, 어떤 양식의 작품을 창작하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창작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열정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시범강행군의 하루

지난 1월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우리는 위대한 시범강행군이라고 부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에 도착하신 1월 16일, 그 하루의 혁명활동로정만 놓고보아도 우리 장군님의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를 왜 시범강행군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누구나 심장으로 느낄 수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갑니다.》

북방의 흑한을 헤치시며 이른아침 강계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일군들과 얼마동안 이야기를 나누시고나서 인차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자강도 현지지도의 첫날에 이렇게 아침부터 날이 어두울 때까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찾으시여 지도하신 대상은 무려 10개 단위나 된다.

현지지도의 일정이 너무도 긴장한데 대해 수행 일군들이 안타까와할 때면 인민들이 강행군을 하는데 자신께서도 함께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은 오늘의 강행군길에 나신 우리 일군들 모두가 가슴에 깊이 새겨안아야 할 귀중한 좌우명이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장강군의 발전소로 향하시고 강계시 인민들은 거름을 실은 손달구지를 끌며 포전으로 나가던 지난 1월 16일, 아침에 이어 그날에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가 우리의 가슴을 그토록 뜨겁게 하는것은 그 하루의 현지지도일정에 휴식시간이란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천에 있는 띄우개식발전소에 대한 지도를 마치시고 즉시에 장강군에 있는 장강1호발전소로...

이렇게 련속적으로 이어가신 그날의 현지지도로정에는 장자산발전소도 있었다.

자신의 로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경제발전에 전심전력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그날의 현지지도는 진정 무한한 헌신성으로 이어진 강행군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그날 오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직장에 들리시여 이곳 로동계급이 자체로 만든 기계를 보시고 잘했소, 대단히 잘했소라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자립경제의 토대가 튼튼한 조건에서 우리 힘으로 못만들것이 없고 또 그 어디에나 잠재력이 많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다른 직장을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불씨가 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계가까이에 서시여 제품이 떨어질 때까지 오래동안 작업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시였다.

또 다른 직장에 들리시여서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며 소재중량은 얼마인가, 무엇으로 드는가, 깎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시였다.

이렇게 공장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는 또다시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 장군님.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관개건설사업소에서는 대용연료로 자동차기판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것을 보아주시고 장강고등농업전문학교를 찾으시여서는 돌과 흙, 나무로언제를 쌓아 발전소를 건설한것을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록 요란하고 사치하게 만든것이 아니라도 우리 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된다는 주체적인 신념을 심어주시였다.

그날 하루동안에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며 보아주신 기계나 설비들이 다 미끈하고 번쩍거리는것은 아니였다.

모양은 비록 터실터실해도 거기에서 전기가 나오고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대견하게 여기시고 평범한것도 대단한것으로 보시는것이였다.

그 무엇보다 우리것이 좋고 남의 식이 아니라 우리 식이 좋으며 주체의 녀트로 나래치는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시며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위대한 진격의 해의 첫달의 16일.

하루일을 마친 인민들이 더운 방에서 단란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의 하루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어두운 저녁 불빛밝은 55동 마을을 둘러보시며 이 집들에 텔레비죤수상기를 보내주자고 말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그 다음날로 텔레비죤수상기가 도착할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그 준비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정녕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는 장군님의 하

루, 그 시작은 언제이고 끝은 어디인지...

장군님께서 하루동안에 몸소 찾아주시고 지도하신 10개 단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들리시는 모든곳에서 오늘의 강행군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위대한 정신을 심어

주시고 무진장한 예비를 찾아내시고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하루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겪으신 로고를 두고 우리 인민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게 된다.

쇠물이 흐른다

정성환

쇠물이 흐른다
쇠물이 흐른다

한남비 보내고
또 한남비 부어답는
용해공의 몸짓은 춤가락인가
기증기를 부르는 호각소리도
노래처럼 흥에 겨워구나

그리운 장군님 모시였던 자랑으로
기쁨이 설설 뚫는 일터
심장에 뚫는 당중앙의 구호
출강구로 쏟아지는 폭 익은 쇠물은
정말 눈이 시게 하얀데
그 쇠물 바라보는 용해공의 얼굴은
그 빛에 그리도 밝은거냐

새 조국 건설의 첫 시작부터
나라의 부강위해 공을 세운 성강이어
설사 끼니는 건널수 있을지라도
한차지도 쇠물은 번질수 없어

쇠장대를 놓지 않는
장알든 손들이
이렇게 강철로 당을 받드는구나
어려울 때마다 제힘을 다해

장하다 성강!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봉화를 추켜들고
온 나라를 대고조로 부르는 그대
그대의 남정들과 녀인들은
옷장에 걸린 화려한 옷보다
쇠물내 풍기는 작업복을 입어야
마음이 더 놓이더란다

최후승리를 위해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어서
자신의 안락은 가슴깊이 묻어두고
쇠물에 바쳐가는 성강의 그 마음

공장은 공장마다
그 마음을 안고살고
전야는 전야마다 그 정신을 빛내가니
성강의 쇠물은 온 나라에 뚫는구나

흐르라 쇠물이어
조국이 나아가는 강행군길에서
돌과구를 쿵쿵 터쳐버리라
국방과 경제의 강철기둥이 되어
사회주의 성세를 억척같이 받들라

아, 쇠물이 흐른다 쇠물이 흐른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장군님 손길따라 나아가는
이 나라 모든 사람 심장과 심장에
쇠물이 흐른다
환희의 쇠물이 흐른다

부러질지언정 굽어들지 않는
강철의 대오는
순간도 쉬임없이
강행군길에 굽이치고있어라

원썬들의 야망을 불태워버리며
행복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향해
줄기차게 도도히
굽이쳐흐르고있어라

영웅의 안해를 혁명가로 키우시고저

오늘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식솔로 공지높이 노래부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혈연적인 뉴대는 날과 더불어 이 땅 위에 더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전사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속에 그들은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나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지키며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새겨가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어느 한 공군연합부대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녀성군관인 길영조영웅의 안해 리은경동무를 만나주시며 무척 반가워하시였다.

군센 의지가 어려있는 녀전사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뜨겁게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만나니 몹시 반갑다고, 길영조영웅을 만난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전사로 알려져있는 하늘의 불사조 길영조영웅을 만나신듯 못내 기뻐하시였다.

영웅적으로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리은경동무를 미더운 눈길로 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식을 가진 녀성의 몸으로 조국보위초소에 서서 모든것을 혁명에 쟁그리 바쳐가고있는 녀전사의 수고와 진정이 깊이 헤아려지시여 뜨거워오르는 심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 그 사랑에 복받쳐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리은경동무에게 가정부인인데 군사복무하기가 힘들지 않는가. 혁명학원에 간 아들은 잘 자라는가고 물으시면서 군무생활정형을 세심히 알아보시였을뿐아니라 살림살이형편에 이르기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자세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다심한 그 사랑에 더더욱 걱정이 복받쳐올라 가까스로 눈물을 머금으면서 아이들도 잘 자라고 집안생활도 걱정이 없다고 어버이장군님께 대답올리는 리은경동무는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에 휩싸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 남편인 길영조동무가 꽃다운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후에 온 나라에 자폭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사의 영웅적인 최후와 불멸의 위훈을 잊지 못해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높이 치하하시군하시였다. 그러시고 그가 복무하던 부대를 친히 찾으시였을 때에는 전사가 남긴

학습장들까지 한장한장 번져보시면서 평시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기때문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 생명도 기꺼이 바칠수 있었다고, 이런 훌륭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인 길영조동무와 같은 영웅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굳건하다고, 모든 군인들이 길영조와 같은 충신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어느해 가을 차광수비행군관학교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길영조영웅이 푸른 꿈을 키워가던 침실과 교양실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그를 추억하시며 숭고한 희생정신은 바로 이런 충성의 나날에 움트고 자라나는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길영조영웅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는 끝이 없으시여 영웅의 모교에 그의 동상을 세워주시고 영웅의 자식을 혁명학원에 보내여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속에 흘러온 자기 가정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리은경동무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열화같은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리은경동무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걱정을 깊이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길영조동무야말로 당에 무한히 충실한 진짜배기영웅입니다. 그러한 남편의 뒤를 이어 조국보위초소에 선 동무를 보니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리은경동무가 남편의 뜻을 이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시며 다시금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크나큰 그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 목이 메인 리은경동무에게 건강한 몸으로 말은 일을 잘 하라고 고무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이들은 당에서 키워줄터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군사복무에 충실하라고 거듭 힘을 주시고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날저녁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길영조영웅의 안해를 만나보니 생각이 많아진다고, 조선녀성들은 가정보다 나라와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혁명정신, 애국심이 강하고 절개가 높은 녀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길영조동무의 안해를 잘 도와주어 훌륭한 녀성혁명가로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우리결을 떠난 영웅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의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의리와 무한대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절절한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에 세찬 격량을

일으키었다.

바로 이처럼 위대하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있기에 우리의 모
든 혁명전사들은 오직 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물과 불속에라
도 서슴없이 뛰어들것이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
엄한 시각에 죽어서도 장군님의 품에 안기고싶어
자폭의 길, 영광의 길을 뚝뚝이 웃으며 가는것
이다. 그렇듯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속에서
오늘 리은경동무는 비록 녀성의 몸이지만 오직

어버이장군님께 운명도 가정도 다 맡기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지킨 남편의 뒤를 이어 보람
찬 혁명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녀성혁명가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그만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아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우리 민
족, **김일성**민족 그모두가 장군님의 한식술로 대
를 이어가며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혁명가로
자라나는것이다.

영원할 그 믿음

정영호

흐를수록 변하는것이

세월의 모습이건만

변함을 몰라라

우리 가슴에 지니고 사는

그날의 그 믿음의 만톤

어찌 잊으랴 잊을수 있으랴

강재 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어버이수령님

우리 어깨를 친근히 두드려주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자고 하시던 그 말씀

수십년 세월이 흘렀어도

한그람도 줄어들수 없었다

세월이 열백번을 고쳐 흐른대도

한그람도 줄어들수 없어라

눈내리던 12월 그날의 그 말씀에 실리었던

그 믿음의 만톤 신념의 만톤이어

진정 순간도 잊은적 있었던가

그 믿음의 만톤 신념의 만톤을 안고

이른아침 출근길에 발걸음도 쉼없이 나서고

그 만톤의 무게로 쇠물을 휘젓고

억척스레 강피를 밀고 또 밀어내었거니

그렇더라 순간도 가슴에 지니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벌써 강선의 용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벌써 강선의 압연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쇠물처럼 뜨겁고 쇠물처럼 억센

강선사람이기를 그만두는것이였다

여기선 고고성을 터치는 아기도

그 믿음의 만톤 신념의 만톤을 안고 태어나고

푸르른 새벽에 밟짓는 녀인들도

그 믿음의 만톤 신념의 만톤을 안고 미소를 짓고

한밤에도 한낮에도 저 하늘가에

그 믿음의 만톤, 신념의 만톤이 노을로 불붙는다

쇠물처럼 끓고 또 끓는

우리의 가슴에는

어제도 만톤 오늘도 만톤

몇만톤의 쇠물을 부어내고

그날의 만톤우에 우리 불려라

먼먼 래일에 가도

순간도 식을줄 모르는 그 믿음의 만톤

그 만톤을 안고 시련속을 헤쳐온 어제가 있어

궁지높은 오늘이 있고

또다시 붉은기를 높이 들고 래일 위해 살자고

우리 장군님 불려주신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길 강행군길에 있어

더욱 찬란한 래일이 있나니

아 세월우에 영원할

어버이수령님의 그 믿음의 만톤 신념의 만톤우에

우리의 충성을 효성을

만톤 또 만톤 없으며

장군님 받들어 래일을 위한 한길에

네가 산다 내가 산다 우리 강선사람들이 산다

낮에도 밤에도...

통일대장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김정일**장군님의 인격만으로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 말이 짝 퍼지더니 피뢰군내에서는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란 말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가 떠돌고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령수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는것으로써 피뢰군우두머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이렇게 되니 피뢰군사병들속에서는 물론 중하층장교들속에서까지 군부의 우두머리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벌벌 떠는것들이 어떻게 감히 맞서보겠다는거야.》

《백두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왜놈들이 벌벌 떨더니 오늘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의 성함은 매국노들을 기절초풍하게 하누만.》

이런 이야기가 더 한층 활기를 띠고 떠돌게 된것은 몇해전 어느날 아침 갑자기 피뢰군부의 《왕별내알장성》이 까무라친 때부터였다.

그놈이 까무라친것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다.

군의 전력(전투력)상태를 분석한 어느 한 야전군의 주간상보를 들여다보던 늑다리 《장성》 황두보는 불에 덴것처럼 쏘파에서 후닥달 일어났다.

《야전군 장교총수 1664명, 그중 환자 1200명 70%이상》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장성》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이 부관에게 있거나 한듯이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 군이 무슨 병원인줄 아는가고 고향을 지르다가 당장 알아보라고 올려냈다.

발라맞추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는 젊은 부관은 이번에도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

두시간도 못되어 다시 돌아온 부관은 딱소리가 나게 군화뒤축을 붙이며 보고하였다.

《각하, 상보에 지적된 환자수는 정확하며 그 병명은 공포증입니다.》

《뭐라구? 공포증?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부관은 기다렸다는듯이 또 내리엮었다.

《각하, 공포증이란 말그대로 무섭증에 떠는 신경병 일종인데 의무부에서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요즘 이 병이 군내 상층장교, 일선장교들 속에

서 대대적으로 류포되고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얼이 빠져 하루종일 멍청해있는것이 특징인데 심하면 까무라치기까지 합니다.》

《장성》은 또다시 짹 소리를 질렀다.

《무엇이 어째, 얼이 빠진대구?》

제풀에 성이 나서 푸르럭거리던 늑은 《장성》은 부관을 쏘아보며 물었다.

《그래 그 병이 왜 갑자기 퍼지게 되었는가?》

이번에도 부관의 대답은 물흐르듯 류창하고 칼로 자르듯 명료하였다.

쭉쭉소리가 나게 손자크가방을 연 부관은 모가 나게 접은 종이를 꺼내놓으며 말하였다.

《각하, 지금 군내 식당과 막사마다에는 이런 글이 가득 나붙곤하는데 이것을 본자들은 영낙없이 그 병에 걸린다는것입니다.》 부관의 대답을 믿지 못하겠는지 《장성》은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장을 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처럼 위풍당당하던 《장성》의 눈알이 갑자기 뒤집혀지더니 입에서는 게거품이 피어오르며 비명을 지르는것이였다.

《토-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 아이쿠 부-분명 그 룡마장수다.》

이렇게 중얼거리던 늑은 《장성》은 끝내 썩은 나무 넘어지듯 다리를 꺾으며 까무라쳤다.

늑다리 《장성》 황두보가 기절초풍한데는 그럴만한 연고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해방되기 직전 백두산근방에서 있는 이야기이다.

십여년이 넘도록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유격대에게 출창 얻어만 맞아 얼흔이 다 빠진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의 명함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래서 소위 전투경험이 있다고 하는 왜놈들은 누구나 **김일성**장군유격대를 피해 군사를 움직여야 한다는것을 서로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엄격히 지키는 하나의 행동준칙으로 삼고있었다.

더우기 **김일성**장군유격대의 국내진출이 강화된 그즈음에 와서는 어느 왜놈도 백두산근처에 아예 얼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백두산근방의 어느 한 《국경수비대》에서는 갑자기 출동명령이 내려다.

이 《수비대》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나라와 민족의 극악한 원수가 되어 술한 애국자들을 살해

함으로써 《천황폐하》의 특별신임을 받고 제국록 군사관학교를 나온 왜놈 아닌 왜놈장교 황두보놈이 거느리는 《수비대》였다.

사실 이놈은 조선사람의 가족을 쓰고서 왜놈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더 큰 죄때문에 누구보다도 조선사람을 두려워하고 **김일성** 장군유격대를 무서워하는놈이었다.

왜놈들도 그놈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조선놈》이라고 하면서 왜놈상관들은 장교값에 치지도 않았으며 제포래 《동료》들도 그를 거지 발싸개처럼 여기었다.

밖에 나가면 조선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웠고 제방에 들어와 혼자 있으면 유격대가 당장 덮치려 오는것 같았으며 《수비대》놈들과 같이 있으면 왜놈들의 멸시가 진절머리났다.

그런대로 제일 마음이 놓이는것이 제집안이어서 이놈은 찍하면 《수비대》에도 나오지 않고 하루종일 집안에만 박혀있곤하였다. 결국 이놈에게는 어느사이 《집안수비대장》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개천의 미꾸라지 룡이 필 꿈을 꾸다고 그래도 이놈은 《무공》을 세워보려는 꿈을 언제나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일성** 장군부대가 멀리 북쪽으로 출전하여 백두산근거지가 텅 비었다는 밀정의 보고가 들어왔다.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무공》을 세울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집안수비대장》은 이 기회에 텅 비여있을 유격근거지를 치고 《위훈》을 세워볼 심산이었다.

놈은 곧 《국경수비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두더지처럼 집안에만 었던 《집안수비대장》이 갑자기 초가을메뚜기처럼 날치는바람에 어리둥절해진 《수비대》놈들은 리명수등판을 지나 간백산쪽으로 엉금엉금 기여들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늑은 황소처럼 꾸물거리는 병졸들을 몰아대며 황두보놈이 소백수기슭에 이르렀을 때였다.

혹시 **김일성** 장군이 출전하지 않았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황두보는 멀리 백두산쪽만 바라보며 《수비대》놈들의 뒤꽂무니를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우에서 《이놈들아, **김일성** 장군유격대가 여기에 있다》 하는 우뢰같은 호령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더니 돌사태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다.

《아이쿠.》

김일성 장군유격대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진 《집안수비대장》은 남먼저 커다란 나무등걸뒤에 대가리를 틀어박았다.

이젠 영낙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고슴도치처럼 몸뚱아리를 잔뜩 웅크리고있는데 어떤 일인지 사위는 조용해졌다.

한참만에야 도망칠 생각으로 조심스레 머리를 빼들고보니 《수비대》놈들은 어느새 꽂무니를 뺐는지 한놈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식들, 도망치는데 번개한가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집안수비대장》이 엉금엉금 뒤걸음질을 할 때였다.

이번에는 《휘익》 하는 바람소리가 놈의 뒤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것이였다.

황두보는 또다시 그자리에 납작 엎드리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머리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빛이 흐르는 저 멀리 산봉우리로 밤빛말꼬리가 날아넘어가는것이 아닌가.

(후유- 룡마를 탄 **김일성** 장군이로구나.)

발견되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 《집안수비대장》은 뺑소니를 치려고 찻찻해진 몸을 일으켜세웠다.

그 순간 룡마가 날아넘어갔던 산봉우리쪽에서 또다시 《오호흥-》 하는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빠맞은 황두보는 나무등걸뒤에 또 몸을 쑥셔박았다.

잠시후 황두보의 눈앞에는 흰점박힌 밤빛룡마가 소리도 없이 살짝 내려앉았는데 룡마가 뿌리는 빛인지 아니면 그우에 올라앉은 룡마장수한테서 빛발이 뿜어나오는지 사위는 대낮처럼 환해졌다.

오금이 저려난 황두보는 숨도 크게 못쉬고 룡마장수를 올려다보았다.

해빛을 안은듯 환한 얼굴에 별빛처럼 정기넘치는 안광, 번쩍번쩍 빛나는 누린 갑옷, 목에는 쌍안경을 걸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손에는 긴 칼을 잡고 위엄있게 앉아있는 룡마장수가 산만큼 크게 똑똑히 보였다.

(**김일성** 장군이구나!)

황두보는 기가 질려 죽을 시각만 기다리고있었다.

룡마장수는 네놈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듯 천천히 쌍안경을 들어 눈에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또다시 우뢰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 예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여들었느냐?》

(아이쿠, 이젠 정말 마지막이구나.)

목이 달아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집안수비대장》은 얼흔이 빠졌다.

이윽고 룡마장수는 큰칼을 높이 들면서 령을

내렸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돌격앞으로!》

룡마장수의 돌격명령과 함께 백두산마루에서 《광- 파르릉!》 하는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난데없이 돌개바람이 터졌다.

순간 소백수풀안에 짙 들어찼던 크고작은 나무들이 일시에 군사로 변하여 《와-와-》 환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집안수비대장》은 기겁하여 눈도 뜨지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뺑소니를 치기 시작하였다.

정신없이 뛰어가던 그놈은 무엇인가 딱하고 이마박을 때리는것을 느꼈다.

순간 눈앞에서 번개불이 번쩍 하고 일었다.

(이것이 룡마장수가 주는 천벌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뒤로 훌렁 자빠진 그놈은 아예 까무라치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한참만에야 푸들쩍거리며 깨어난 《집안수비대장》은 자기 대가리부터 만져보았다.

분명히 대가리는 붙어있는데 이마에는 주먹만한 혹이 생겨났다. 정신없이 뺑소니를 치다가 나무에 부딪쳐 생긴것이였다. 가까스레 정신을 가다듬은 두보는 제놈앞에 서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그놈은 눈알이 화등잔만해졌다.

길다랗게 꺾질이 벗겨진 나무에는 주먹만한 글발들이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아, 조선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달빛에 비치보이는 글줄을 떠들떠들 읽어내려가던 황두보놈은 아래도리맥이 탁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 백두산에 **김일성**장군 계승인으로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랐더니! ... 아까 그 룡마장수가 혹시...)

의혹을 풀지 못한채 간신히 네발걸음으로 돌아온 《집안수비대장》은 곧 밀정놈을 불려댔다.

《야, 이놈아, 다시 말해봐. 뭐 **김일성**장군부대가 멀리 출전했다고?》

주먹만한 혹이 시퍼래지도록 붉으락푸르락하는 《수비대장》앞에서 사시나무떨듯하던 밀정놈은 기여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 수비대장님, 저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출전한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밤에는 **김일성**장군이 저기 주가튼을 쳤습니다.》

《뭣이?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주가튼을 쳤다고? 그러면 어제밤에 나타난 그 룡마장수는 도대체 누구란말이냐?》

순간에 서리맞은 배추잎처럼 맥이 빠져 중얼거

리는 《수비대장》을 바라보면서 밀정은 겁에 질린 소리로 대답하였다.

《글쎄올시다. 지금 항간에서는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술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백두광명성이란 새 장수가 나타났다는 말이 짹 퍼졌는데 혹시 그 장수가 아닌지...》

밀정놈의 입에서 백두광명성이란 소리가 튀어나오자 황두보는 또다시 눈알을 뒤집으며 의자에 꼬꾸라졌다. 어제밤에 나타났던 룡마장수와 함께 나무에 썩여졌던 백두광명성이란 글발이 생각났던것이다.

《아이구, 어제 그 룡마장수는 분명 백두광명성이라는 그 새 장수다.》

그때부터 황두보의 머리속에는 룡마장수의 위엄있는 모습과 백두광명성이란 글발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아 노상 혼이 빠진놈처럼 헛소리를 치군하였다.

이렇게 되어 두보는 《집안수비대장》노릇도 못하고 《디다미수비대장》노릇만 하다가 8.15와 함께 서울로 뺑소니를 쳤던것이다.

최악으로 가득찬 인생행로를 걸어온 그 《장성》놈이 또다시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란 글발을 대하게 되었으니 어찌 정신을 차릴수 있겠는가.

침대우에 누운 왕별 네알 늙은 《장성》은 연방 헛소리를 쳤다.

《백두광명성, 룡마장수...》

《통일대장수다... 아이구, 날 잡으러 오는구나.》

늙은 《장성》이 까무라쳤다는 말과 함께 군부내의 장교들과 사병들 속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떠돌았다.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 한번 령을 내리면 온 이북민중이 끝끝한 장수로 되어 전쟁에 나선대.》

《작년에 일본주둔 미군사기지에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 구름타고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미국놈의 신형비행기들이 모두 돌덩어리가 되었다누만.》

《얼마전에 제주도 백록담에 나타난 통일대장수는 멀지 않아 악한짓을 하는자들을 심판하러 오겠다고 하였대.》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란 말은 오늘 짓눌려사는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앞날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신심을 주고 해빛을 피해 민족을 등지고사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에게는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면서 남녘의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한다.

김우경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혁명의 강행군 길에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자욱자욱 수놓아져있다.

대한계절에 북방의 엄혹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강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침내 귀로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갑자기 들려보지 못한 자강도의 한 기업소로 가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 기업소까지는 수백리가 넘는 길이였다. 게다가 그 길은 평탄한 아스팔트길이 아닌 눈덮인 협산준령을 수없이 넘어야 하는 길이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시다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저하는 일군들에게 다시금 재촉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곳 로동계급을 만나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다시 차를 돌리었다.

이렇게 되어 지난 1월 21일에 그 기업소 로동계급은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백리 험한 길을 되돌아오신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이 기업소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 전통있는 기업소라고 치하해주시고 공장안을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러놓았다고 이곳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기술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해서와 일군들이 로동계급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잘 보살펴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기업소의 혁신자들을 만나주시고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은 당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업이라도 무조건 해내는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보람찬 강행군에서 또다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펼쳐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날 기업소에 펼쳐진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화폭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은 혁명의 준엄한 길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진 난관과 시련을 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온 혁명의 령도계급에 대한 절대적이고 숭고한 믿음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실성의 기저에는 로동계급을 가장 아끼시고 믿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다.

전후의 시련의 나날에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냄으로써 내외원썹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 당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이 땅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강선의 로동계급.

그들의 심장속에는 자기들을 찾아오시여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그토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적이고 영웅적인 로동계급으로 언제나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설 때마다 먼저 로동계급에게 맡겨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도록 뜨겁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의 정수를 이루는 1만톤프레스제작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룡성의 로동계급에게 대담하게 맡겨주시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만들어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대형산소분리기생산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그 과제를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맡겨주시고 힘과 용기와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여 그것을 끝내 훌륭히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검덕의 광부들을 수도가까이에 두시려고 평양-금골행 열차까지 새로 내오게 하시고 광부들의

건강이 넘쳐드시어 록용을 비롯한 귀한 보약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는 끝이 없다.

수령이 베푸는 이런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났으며 걸음걸음 영웅적위훈을 떨쳐왔다.

오늘의 강행군길에서 창조된 강계정신도 그러하다.

당의 결정에 끝없이 충실한 강계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기화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왔으며 어려운 행군을 하는 환경에서도 이미 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을 보수정비하고 새 발전소들을 수많은 일떠세웠다.

그리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확고

한 신념을 간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당에서 준 과업을 철저히 수행해왔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을 때도 강계의 로동계급은 제기할것이 없는가고 하시는 장군님의 물으심에 일감을 더 많이 맡겨달라고 말씀드리었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의 대답이다.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오직 한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신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이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안경철

침묵속의 담화

오영환

아는가 용해공들이여
그대가 쇠장대 틀어쥐고
쇠물구멍을 뚫는 기상을
장군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중에 오고간 말이 무엇인가를
나는 들었다

먼길을 오신 장군님의 걸음을
어려운 때 찾아오신 그 뜻을
그대가 가슴 들먹이며
전기로의 화광을 터쳐
빛으로 깨달을제

장군님께서 그대가 걸머진 짐을
흐르는 땀으로 헤아리시였다
억만 불꽃을 날리며
대공을 휘젓는 억센 팔뚝에 뻗치는
진할줄 모르는 힘을 안으시고

장군님께서
전후 강선의 용해공들을 생각하시며
그대 일거일동에 실린
벼리고벼려온 만만한 투지를
다지고다져온 신념을 보실제

그대는 생각하였다

언제면 흐뭇한 강철툰수앞에서
장군님 환히 웃으시는것을
눈물속에 우리를것인가를

그날은 온다 성강의 용해공이여
그대는 이 땅에 쏟아놓으리라
장군님 바라시는 강철사태를
온 나라를 강철로 무장시켜
모든 원수들을 꿰어앉힐 그날은

말해서만 알라
화광에 비친 그대 눈빛과 손짓
그대 표정과 고개짓
그것으로 통하는 언어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
장군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그대의 장알박힌 큰 손에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들려줄
엄숙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아, 분발하라, 용해공이여
쇠물속에 박은 쇠장대는
그대가 틀어진 봉화!
천리마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며
언제나 앞장에서 날으라

호수가의 정적

김창수

1

사람중기로 소문난 도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석현이가 자기 승용차 운전수한테 천박하게도 신경질을 부렸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오늘아침 석현은 그의 운전능력을 두고 타발에 가까운 불만을 터뜨렸다.

《헛참, 난 최동무의 운전기술이 이렇게 한심한 줄 몰랐구만, 원 이렇게도 속도를 내지 못해서야?...》

그런데 놀라운것은 운전수가 이 멀리에 가까운 편잔에 대해 조금도 화내지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차를 더 빨리 몰지 못해 몸달아하는것이였다.

사실 오늘 그들에게는 차를 바빠 몰아야 할 매우 급한 일이 생겼던것이다.

석현이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도의한끝인 칠홍리 호수가로 그를 급히 부르신다는 전화편락을 받은것은 오늘새벽이였다.

귀속마저 멎해지는 크나큰 걱정이 가슴을 세차게 때리며 굵이쳐간후 석현은 문득 불안과 같은것이 자기 마음속 한구석으로 슬며시 스며드는것을 감촉했다.

도당책임비서와 도행정경제위원장이 평양에 회의가고 없는 때여서만 그런것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별로 이름도 없는 그 심산유곡에 왜 가셨으며 볼품없는 그 벽촌마을이 벌써 그이께 심려라도 끼쳐드린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가슴밀굽으로 깊숙이 파고들기때문이였다.

석현은 자기가 어떻게 밖으로 달려나와 승용차에 올랐는지 알지 못했다...

승용차는 잠판목들이 덩불지어선 숲속 사이길로 누비듯 질주했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풀냄새를 실은 서늘로운 바람이 물결처럼 흘러들어와 그의 얼굴을 가볍게 갈기였다.

아직은 이른아침... 저기 툇날처럼 편편히 솟아있는 산봉우리들도 잠이 설겐듯 연보라빛 운무에 싸여있다.

석현은 비릿한 물냄새가 폐장 깊이로 스며들어오자 그이께서 계시는 칠홍골 호수가가 멀지않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홀 뜨는듯함을 느끼었다.

이를데없이 환희로운 한순간이 지나가자 석현은 다시금 아까부터 자기 가슴속을 은근히 휘저

어놓던 그 의혹과 위구심이 더 강렬하게 되살아나는것을 의식했다.

정녕 그이께서는 무슨 일로 그 칠홍골에 오셨을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간밤 자정때까지도 이 옷도의 어느 한 탄전에 계시였다. 그보다 앞서 낮시간에는 최전선의 어느 한 인민군초소에 계시고...

90년대초엽에 들어선 력사의 첫아침부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인민군대를 이 세상 그 어느 제국주의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일떠세우시려는 크나큰 뜻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현지시찰의 거룩한 자욱을 찍어가시던 그 한밤중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방의 한 부직간부에 불과한 석현이를 친히 전화로 찾으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셨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석현에게 요즘 도당책임비서동무랑 없는데 수고가 크겠다시며 최근 도안의 경제사업정형과 인민생활형편을 료해하신후 다른 애로들은 없는가고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석현은 위낙 법과 규정을 다루는 일군답게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지만 그때만은 리성을 잃은 아이들마냥 헤덤비면서 이웃도에까지 오셨다가 그냥가시면 자기 도내 인민들이 섭섭해할것이니 꼭 들려주셨으면 한다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리내어 웃으시더니 그러지 않아도 래일 평양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때문에 그냥 떠날 생각을 하니 서운해할 석현동무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다시며 어서 더 제기할 문제나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자신께선 직접 만나는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화기를 통해 동지들의 말소리를 귀바투 듣는것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기쁘다고 하시였다.

어떻게나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그이의 음성이던지 석현은 그만 온갖 어려움을 다 잊고 얼마전 자기가 직접 팔홍리라는곳에 나가 소형발전소들을 네개나 세우고 돌아온 자랑과 돌아오자마자 도검찰소에서 받은 청년수력발전소건설련합기업소 지배인에 대한 부정자료때문에 은근히 골머리를 앓고있는 문제까지 그대로 다 말씀드렸었다.

그런데 그 지배인에 대한 문제가 뜻밖에도 장군님의 관심을 끌게 될줄이야...

그이께서는 주무실 시간이 지났다는것마저 잊

으시고 그 지배인의 파오에 대해 다시금 일일이 물으시었다.

석현이가 이제 그 발전소 지배인을 구원하기에는 그가 범한 파오가 너무 크며 많은 일꾼들이 그의 변질을 시인하는 수표까지 해놔서 시간이 너무 늦은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후야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신듯 긴 침묵으로 못다하신 말씀을 대신하시며 전화를 끊으시었다.

석현은 괜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이의 바쁘신 시간을 앗아냈다는 자책감도 없지 않았으나 그보다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이 어린 전화를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가 받았다는 기쁨이 더 크고 또 끌머리를 앓고있던 발전소 지배인에 대한 문제가 장군님께까지 보고되어 일단 락착을 지은것으로 생각되는것이여서 저으기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도 들수 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자기네 도에 들릴 시간이 없다시던 간밤의 말씀과는 달리 첫새벽에 몸소 오신것이였다.

간밤에 말씀드렸던 그 지배인때문이실가?

그렇다면 발전소건설장으로 가지지 왜 300여리나 반대쪽으로 떨어진 칠홍골로 오셨을가?

간밤에 부질없이 자랑했던 그 팔홍리소형발전소들을 보시려 가신건 아닐가?

그렇다면 팔홍리에 가게시지 왜 린접리인 칠홍리에 가게실가?

아니 칠홍골 호수가에 운치있는 유원지나 휴양소라도 하나 세우실 구상이 계시여 기신것이 아닐가?

두서없고 항방도 없는 생각들만 쉽없이 뇌리속으로 오가는것이여서 석현은 여간 안타깝지 않았다.

2

아침안개가 차분히 덮인 호수가는 고즈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물에 금시 들어서려는 커다란 거북기같은 바위우에 앉으시여 무릎을 책상삼아 무슨 글인가를 쓰고계시었다.

저쪽 밀어진 숲속에서는 수행원들이 아침준비를 하는지 파아란 연기를 피워올리고있었다.

바위곁에서 주위를 살피고있던 수행일꾼이 달려오는 석현이를 띄어보고 그이께 뭐라 조용히 말씀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쓰시던 마지크연필을 멈추시고 시선을 드시더니 석현이를 향해 반갑게 웃으시었다.

순간 석현은 그이의 밝은 미소로 하여 자기 가슴속은 물론 주변마저 대번에 환해지는것을 느끼였다.

《장군님!》

비록 간밤에 전화로 인사를 드린 그이지만 온몸이 감격에 떨리고 눈물부터 앞서는 석현이다.

《아 왔소?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어서.》

문득 석현은 장군님의 음성에 무겁게 실려있는 피로가 쟁하니 가슴에 마쳐오는바람에 입을 벌린채 굳어졌다.

그가 할바마저 잊은 사람처럼 서있자 그이께선 마음속까지 덥혀주는것 같은 따뜻한 미소를 그리시며 계속하시였다.

《우린 좀 일찍 떠났댔소. 부위원장장동무랑 이곳에서 뭐 좀 같이 알아보자구. 참 우린 팔홍리 소형발전소들도 돌아보고 오는 길이요... 조반도 못했겠는데 참 안됐소.》

석현은 장군님께 자기는 일없다고 말씀드리려고했으나 불덩어리같은것이 목구멍을 꽉 채우는 바람에 입을 열수가 없었다.

숲속으로 뭔가 쫓이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퍼지는것을 보면 그이께서도 아직 조반전이신것 같은데 자기격정부터 하시는것이다.

석현은 잠시후 장군님께 농장관리위원장네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어서 그리로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였다.

《고맙소. 그렇지만 시간도 없는데다가 아까 어디로들 좀 보낸 동무들이 인젠 돌아올 때두 된것 같아서.》 하고 장군님께선 어깨에 흘러내린 봄의 투를 추슬러올리시며 다시 글을 쓰실 차비를 하시였다.

《장군님, 여긴 고산지대라 아침기온이 아직 참니다. 어서 가십시다. 네?》

그의 어조에 그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실렸던지 장군님께서는 고루취시였던 마지크연필을 다시 놓히시며 그를 쳐다보시였다.

《어서 그래주십시오. 네?》

《좋은 아침인데 여기서 기다리지. 정말이지 얼마나 훌륭한 호수가의 아침이요. 그야말로 신비경이 아니요.》

그이께서는 이러시며 영채어린 시선을 들어 호수가를 쪽 둘러보시였다.

그러자 석현에게는 이상하게도 어설픈 호수가가 별안간 봄기운으로 설레이는것 같이 보였으며 수면위로 떠오르는 물안개도 봄아씨의 나래웃 같이 화려해보였다.

물안개에 놀란듯 가볍게 깃을 치며 날아가는 물오리의 몸뚱이에서 떨어져내리는 물방울들도 그이의 류달리 밝고 시원한 안광으로 해서 지금 막 오색구슬로 변해 허공에 장식줄처럼 매달리는 듯하였다.

숲속 어디선가에서는 이 아침을 위해 태고적부터 마련해온듯한 기막히게 신선한 향기가 흘러왔으며 그 어떤 신기한 악기로써도 낼수 없을것 같은 아름다운 새울음소리들이 신묘한 가락을 타고 울려왔다.

정녕 석현에게는 천만수목들을 하나같이 푸른 비단옷으로 일시에 단장시켜놓는 일이며, 지금

막 동산너머로 해살을 곤두박질시켜 온 수면우에 보석가루로 차넘치게 하는것 등 다 자연이 홀로 하는일 같지 않았다.

그이의 남달리 영채로운 안광이 불러일으킨 기적인것만 같았다.

《어떻게나 좋은 아침인지 간밤에 이리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지 않았다면 이처럼 피로를 깨끗이 잊고 창조적인 즐거움마저 느껴가며 오늘 회의에 내용을 연설문을 끝내지 못했을것입니다.》 하시며 장군님께서는 몇장만 더 쓰면 아주 다 끝나는데 잠깐 수행일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하얀 종이우에 다시 눈길을 떨구시자 석현은 신기하게도 호수가의 모든것이 급기야 깊은 정적의 나락속으로 떨어져내리는것을 의식했다.

건너편 기슭에서 간단없이 울어대던 뜰부기도 마지막으로 한음부만 더 짙고마는것이 분명하였으며 바위결 풀숲에서 이 아침 새날맞이 공론이나하듯 부지런히 씨름거리던 쪽포기들도 마감으로 한번 더 정적을 썰다 그만두는것이 확인했다.

주위가 어찌나 고요한지 간밤에 꽃잎에 내린 이슬이 굴러내리는 소리마저 들릴듯한데 장군님께서 하얀 종이우에 마지크를 활달하게 움직여가시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호수가의 정적을 가볍게 흔들뿐이었다.

문득 석현은 우주의 모든 아름답고 숭고한것이 그이의 모습우에 비친듯하여 뭐라 이름할수 없는 심정에 휩싸였다.

정녕 그는 이 아침 산골호수가 바위우에서 곱쌓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같은 열정과 건인불발의 의지로 또 하루 창조의 새날을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이 위대한 모습을 그려보인다는 것은 언어라는것이 너무 무력하고 빈약하다고 생각했다.

잠시후 석현은 수행일군에게 아까부터 은근히 알고싶던것들을 나직이 묻기 시작했다.

귀기울여 듣던 수행일군은 웃으며 대답했다.

《장군님께서 이리로 오신건 그 발전소건설사업소 지배인때문입니다. 그 지배인이 한해전에 이곳 리인민병원에 입원했던적이 있다시면서…》

순간 석현은 뒤끝이 가볍게 울리는듯하여 목을 꺾듯이 세웠다.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놀랐던지 아직은 그 리유를 잘 알수 없었다. 그저 자기가 무슨 말인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만이 들뿐이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녀의사와 간호원은 그새 시집들을 다 가서 이곳 리병원에선 발전소건설사업소 지배인이 입원했던적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요.》

석현은 드디어 돌떨어진 호수마냥 가슴이 세차게 뒤흔들리는것을 느끼었다.

(장군님께서 그 지배인때문에 여기에?)

하자 간밤 그이께 보고드렸던 그 지배인에 대한 모든 일들이 튕겨오르는 물방울들처럼 망각의 연막을 뚫고 한꺼번에 떠오르는것이였다.

… 《장군님, 청년수력건설 지배인 김준도동무는 로동행정법을 어기구 운전수를 두명씩이나 거느리고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직장장을 들썩이나 자격정지시켰답니다. 기관본위주의도 심해서 지방일군들로부터도 자주 의견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더우기 최근에는 명동강발전소건설때 세멘트를 10만톤이나 강물에 류실한것이 밝혀지면서 곧 법앞에 서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놀라우신듯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자료의 사실여부를 다 확인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석현은 태영수력발전소자료는 이곳 도와 군의 감독일군들까지 동원해서 료해했고 명동수력발전소자료는 명동지구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힘을 빌어 료해했는데 도검찰소에서 낸 자료와 대체로 비슷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

수화기에서는 다시금 한동안 진공관이 타는듯한 웅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석현은 그 침묵속에 실려오는 장군님의 무거우신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눈곱이 뜨겁게 젖어오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장군님!》

석현은 자기 소견을 조심히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준도지배인은 일욕심도 있구 내밀성도 있는 사람이지만 주관주의가 심하구 덜통하다나니 실수를 하면 크게 합니다. 이번에도 세멘트 10만톤 류실이라는 엄청난 수자까지 돌리지구 세상앞에 나서니 막아줄 길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아픡니다.》

《…그런데 운전수 두명은 지배인자신이 요구했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쪽 누군가에게도 나직이 뭐라 이르시며 석현에게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단이 심해두 직장장들에게 제마음대로 벌을 줄수야 없지 않습니까?》

《당위원회에선 그럴것까지야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배인동문 그들을 해임시키지 않는것만해두 다행으로 알라구 했답니다. 기관본위주의소리를 듣는건 군문화회관을 새로 짓게 세멘트를 좀 달라는데도 한줌 안했기때문이랍니다.》

《벌써 법앞에 서게 됐다는것도 사실입니까?》

《네, 중앙검찰소에서 이미 명동지구검찰소에다 준도지배인을 호출할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음, 벌써 일이 그렇게까지 기울었단말이지. 그

렇지만 부위원장동무, 래일 동무가 현지들에 직접 내려가 다시 좀 료해해볼수는 없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음성에 그럴 지배인이 아니라고 하는 속말씀이 어찌나 강하게 울리고있던지 석현은 뒤말씀을 이어드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기관에선 래일아침에 그를 데리러 온다니 늦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네, 본인마저 다 옳다구 수표를 해놔서 법기관에선 더 끌려고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안되겠구만. 알겠소. 어서 쉬시오.》

《장군님, 어서 쉬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석현의 머리속에서 고속화면처럼 흘러가던 간밤의 일들에 대한 회상은 수행일군이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해서 똑 끊어졌다.

《장군님께선 좀전에... 그냥 돌아온 정무원 국장에게 의료일군들은 갈렸더라도 무슨 흔적같은 것은 남아있을것이라면서 처방전까지 다 찾아보구 그것도 없으면 장거리전화를 걸어 발전소병원에 병력서가 가있지 않는지 속히 알아보라고 하셨소.》

석현은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모든것은 여전히 안개속에서 목표를 내다보듯 명백치 않았으나 장군님께서 발전소 준도지배인을 구원하시교저 평양으로 속히 돌아가셔야 할 길도 달리하시고 휴식도 아침식사도 다 뒤로 미루시면서 이리로 오셨다는것, 그래서 자기는 실책을 범해도 아주 큰 실책을 범했다는 생각만은 뚜렷했다. 석현은 칠홍리인민병원에 준도지배인이 입원했었다는것이 무엇에 필요한지 어서 알아보고싶은 생각으로 가슴이 저으기 타드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입원? 한해전?)

사색의 등불을 켜들고 흘러간 생활의 먼 기슭쪽을 눈주어 내다보니 곱결같이 희미하나 분명한줄기 뭔가 가물거리는것이 있다.

석현은 자기가 지금 막 뭔가 생각해낼것 같아 사뭇 긴장해 서있었다.

그러나 얄밟게도 사색은 뇌리속에서 그냥 추억의 점선만을 긋는것이였다.

만약 이때 수행일군이 좀전에 장군님께선 그 일은 한해전 름호광산 대발과때 있던 일이니만큼 틀림없을것이라면서 정무원국장을 서둘러 떠나 보내셨노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더라면 석현은 아마 더 오래 애타했을지도 몰랐을것이였다.

수행일군의 말은 석현의 상념을 한해전 그날에로 이끌어가면서 그 추억의 점선들을 대번에 하나의 줄기로 이어놓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25만산 대발과의 장쾌한 정경을 보게 된 름호광산 사람들은 명절날처럼 흥성거리고있었다.

대발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통제일군들을 데리고 현지에 내려왔다가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석현의 얼굴에서도 형언할수 없는 기쁨이 아침해살처럼 떠오르고있었다.

높이 세운 게양대우에 빨간 기발이 오르자 문득 긴장하며 잠잠해졌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파지시를 떨구지 않고 쌍안경을 드시더니 바람꽃에 싸인 웅건한 25만산이며 그우에 새로운 줄기처럼 겹겹이 쌓인 구름장들과 그 구름이 흘러가는데 따라 허공으로 둥둥 떠올라가는것만 같은 송전탑을 자세히 여겨보시는것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쌍안경을 내리시며 석현에게 지금 저 산옆으로 지나간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석현은 지금은 흐르고있지만 발파직전부터 한 40분동안 정전시키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였다.

《40분?》

장군님께서서는 되물으시였다.

《네, 발파폭풍에 송전선이 잘못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엄격한 점검을 한후에 스위치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또 물으시였다.

《전기를 끈다는걸 모든데서 다 알고있소?》

《네, 공장 기업소... 특히 쇠물 뽑는 기업소들에는 빠짐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기관들에는?》

《기관들에도 했습니다.》

《병원들엔 어떻게 됐소?》

《네? 병원말입니까?》

석현은 얼마간 얼퍼름해하며 군병원같이 큰병원들에는 연락이 됐을것이라고 대답을 올렸다.

《뭔가 좀 자신이 없는 모양이구만. 쇠물이 굳어질수 있다고만 생각해서야 안되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빠짐없이 다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소.》

장군님의 분부를 받은 석현은 즉시 도감독일군들과 광산책임일군들을 불러 긴급지령을 떨구었다.

일군들이 떠나자 장군님께서서는 광부들한테로 가시여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하시교 저기 채운을 허리에 감은채 창공을 떠이고 솟은 25만산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시기도 하시였다.

석현에게는 25만산이 마치 지금 신비로운 장식미를 두르고 그속에서 그 어떤 역센 삶을 마련하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한참후에 광산지배인이 없어질듯이 달려올라왔

다.

《장군님!》

목이 메여 얼른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물처럼 흘러내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듯 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탄기관들에는 별일이 없는데 칠홍리 인민병원에서 급한 환자가 생겨 지금 수술중에 있답니다.》

《수술? 어떤 환자인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물으시였다.

석현은 온몸이 귀가 되어 장군님께 올리는 팔산지배인의 말을 들었다.

《어느 발전소건설사업소 지배인인데 운전수가 칠홍골 험한 산길에서 그만 졸다가 차를 굴렀답니다.》

《운전수는?》

《운전수는 일없는데 지배인이 나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답니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아프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음, 하여간 전화를 걸어보기 잘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수술하는중에 전기불이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자신있습니까?》

《네, 수술은 잘되고있다고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알아보기 아주 잘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마디마디에 흘러넘치는 장군님의 말씀은 석현의 가슴을 불덩이같이 달아오르게 했다.

참말로 얼마나 불같은 사랑이신가!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였다.

《기다립시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

석현은 종시 눈굽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고야 말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턱없이 길어지고 장군님의 천금같이 소중한 시간이 여지없이 잘리워나가기 시작하자 수행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해하는 기색들이 숨길수 없게 떠올랐다.

그것도 그럴것이 장군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수백리 먼곳인 서해안지구 어느 대련합부대를 시찰하러 가셔야 했기때문이었다.

수행원들속에서 이제라도 환자를 큰병원으로 후송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까지 두세두세 들려오기 시작하자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왜들 그리 초조해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한발 나서며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예정시간대로 대련합부대에 도착하기 어려울것 같아 그렇니다. 부대엔 이미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이 도착했다니까 지금쯤 수만장병들이 장군님께서 오실 때를 이제나저제나하구

기다리고있을겁니다.》

《음, 수만장병들이...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된걸 어찌겠소. 동무들은 한사람을 위해 너무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구만.》

장군님의 음성은 더욱더 뜨겁고 절절하게 울리였다.

《한사람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천만사람앞에서도 진실할수 없다는것은 지난 우리 혁명이 남긴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나는 장구한 기간 우리 수령님께서 천만대군앞에서는 물론 한두사람앞에서도 해님이 되어 서계시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결국 그 진지성이 천만의 동지와 인민을 얻는 첫째가는 비결이더란말입니다.》

석현은 귀가 번쩍 띄여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한 인간앞에서도 수만인민을 돌볼 때의 그 열정과 진지성을?!)

석현은 값진 보석을 간수하듯 심장속깊이에 그이의 말씀을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로부터 한시간 실히 흘렀을 때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왔다.

장군님께서는 환자상태도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후에야 발파명령을 내리라고 하시였다.

이윽고 운무에 싸인 25만산이 진통을 겪는듯 움썹하더니 거기서 붉은 화염이 하늘로 삼단같이 나래쳐올랐다. 뒤따라 천하를 뒤흔드는 평음이 터져오르더니 대지를 짓누르며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우리 장군님 만세!》

그것은 어쩐지 이렇게 웨치면서 장엄한 불길을 토하고있는것 같았다.

4

대발파의 여운은 석현의 머리속에 아슴푸레한 추억의 먼 메아리를 남기며 사라져갔다.

그러나 장군님의 가슴속에서는 그것이 한 인간에게만 기울어진 정성이 아니여서 오늘도 추억속에 생생히 살아있는것이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한 전사의 운명문제가 제기되자 곧 그때 수술을 급히 해야 했던 그 지배인이 바로 다름아닌 준도지배인이라는 생각부터 하신 것이였다.

100리 주변에 일터를 널려놓은 수력발전소건설장... 그 넓은 지역을 밤낮없이 돌봐야 하는 지배인의 임무...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수 있다...

이러니 더 명백해지는것은 잠을 설친 운전수의 실수로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이 아까와 운전수를 더 요구했을 준도지배인의 《일욕심》을 지지해주시기 위해 평양으로 돌아가시던 바쁜 길마저 뒤로 미루시고 밤새워 여기부터 오셨다는 것이였다.

석현은 가슴이 세차게 울리는듯함을 느끼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이 더 날카롭게 가슴

속으로 우비고드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지난밤 준도지배인의 문제는 아주 말끔히 끝난 것으로 단정해버리고 잠자리에 든것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찌서 자기는 장군님처럼 한 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동지의 운명을 구원하는 일과 련결시켜 생각할 작정부터 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더우기 자기는 사회생활의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도록 감독통제할 특명을 지니고 있는 인민정권기관의 책임일군이 아닌가.

그러니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였고 태도문제였다.

사실 이러저러한 리유뒤에는 발전소건설이 끝나면 준도는 또 어디론가 떠나버릴 사람인데 뭐 그리 뛰여다니며 도우랴하는 미적지근한 관심도 없지 않았었다.

부지중 석현은 인민에 대한 높은 복무정신으로 가슴을 꿰이며 살아온다고 자부해오던 자신이 돌이켜지면서 가볍게 몸을 떨었다.

장군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에 이처럼 오셨을 것이다.

정녕 장군님께서 자기 사업의 공백도 메꿔주시기 위해 오신것이였다.

줄기를 뺏고 아지를 치며 번져가던 석현의 사색은 장군님의 활기에 넘치는 음성에 다시금 중단되였다.

《자, 일을 다 끝냈으니 어서 이리 올라오오.》

장군님께서 저으기 밝은 안색으로 종이장들을 간중그려 커다란 봉투속에 넣고계시였다.

석현은 기다린듯 그이곁으로 달려갔다.

포근한 기운이 에도는 바위우에서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퍼돌았다.

장군님께서 그에게 편히 앉으라시더니 집에선 이렇게 갑자기 떠나와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으시였다.

석현이가 집식구들은 무슨 일로든 장군님을 뵈옵게만 된다면 최상의 행복으로 안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오늘 자신계신 발전소건설사업소 준도지배인문제를 석현동무와 같이 더 알아보고싶어 불렀노라면서 이제 그 지배인문제로 떠난 동무들이 돌아오면 함께 토론해보자고 하시였다.

석현은 자기 얼굴에 떠오르는 뜨스한 홍조를 감득했다.

물론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락착될것인지, 또 자기 실책이 얼마나 큰것인지 다는 알수 없었으나 이렇게 장군님앞에 빠졌이 마주앉아 그이와 한 인간의 운명문제 나누기에는 자기라는 인간이 너무도 먼거리에 있다는 의식만은 뚜렷했다.

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싶은 심정인데 길쪽에

서 누군가 혈금씨금 달려오는 소리가 한순간 그를 궁지에서 헤어나오게 해주는것이였다.

칠흥리인민병원으로 다시 떠났다면 정무원 국장이였다.

국장은 장군님께 기쁜 소식을 올리게 되는 행복때문인지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장군님, 발전소병원에... 한해전 이곳 리인민병원에서 보낸 준도지배인의 병력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소?!》

장군님께서서는 기쁘시여 일어서기까지 하시였다.

국장은 그곳 병원원장이 그 병력서가 누렇게 뜨고 비물에 젖기까지 해서 지배인의 이름을 겨우 찾아보는것 같더라고 말씀드리였다.

하자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신듯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구만. 준도지배인 동문 거드름이나 부리자고 해서가 아니라 일을 몇곱 더 하자고 운전수들을 요구했던말이요!》

등판을 휩쓸어내리는 봄바람에 숲이 허리라도 퍼는듯 시원해하는 소리를 질렀다.

석현은 한순간 눈앞의 모든것이 뿌옇게 멀어져 보이는것을 느꼈다.

후지나 다름없는 해묵은 종이장에 흐릿하게나마 그 전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있다는것이 그리도 반가우시여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석현은 눈물이 없이는 우러러 뵈올수가 없었던것이였다.

느닷없이 검찰소에서 올려보낸 자료의 결만 보고 가슴아프지만 처리할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부터 앞세운 자신의 무책임한 처사가 생각키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직껏 인민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슴을 안고살고있다고 무던히도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 가슴이 이처럼 텅 비고 궁글었을줄이야...

휩쓸어오르는 수치감때문에 자기가 언제 장군님을 따라 일어섰는지조차 모르고 섰는데 그이께서는 다시 그를 다정히 앉히시며 혹시 부위원장동무는 준도지배인을 잘 모르는게 아니냐고 물으시였다.

석현은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때나 가끔 보던 동무인데 한해전부터 자기네 도경내발전소를 건설하러 들어오는바람에 아주 면식을 익히게 됐노라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렇다면 그 동무에 대해 아는게 적지 않겠소. 나는 한번밖에 본적 없다나니 그 동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시원치 못하오.》

석현은 놀라움을 숨길수 없어 두눈을 크게 떴다. 사실 그는 여직껏 장군님께서 준도지배인과

친분관계가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한번밖에 본적없는 그에게 그런 극친한 정성을 다하시다니...

장군님께서는 준도지배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싶으신듯 잠시 말씀이 없이 석현을 바라보시었다.

석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말문마저 막혀 허둥거리게 되는 자신을 어찌는수 없었다.

할 이야기가 너무 없는, 아니 메마르고 텅빈 자신의 인정세계가 수치속에 인식되는 괴로운 순간이었다.

《아,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모양이구만.》

장군님께서는 난처해하는 그를 도우시려는듯 다소 서두르시며 계속하시었다.

《그럼 내가 그를 알게 된 얘기가 좀 들어보오.

몇해전 어느날 나는 중부지구 광산들을 돌아보러 떠나던 길에 어느 휴양소에 잠깐 들린적이 있었소. 그런데 그때 무엇때문인지 휴양생들이 썬터에 모여서서 법석 떠들고있는게 아니겠소. 리유인즉 지금 썬터에서 갑자기 뿌연게 흐린물이 솟구쳐오르고있는데 아무리봐도 큰 지각변동이 있을것 같다는것이였소. 그들의 말대로 썬구멍에선 이상한 물이 쏟아져나오고있었소. 모두 지진이 예견된다고 야단법석하는데 한 휴양생이 불안간 썬터에 넙적 옆드리어 그 물을 벌컥벌컥 삼키는게 아니겠소. 그러더니... 이젠 명동강 상류쪽에 세우는 우리 수력발전소건설장에서 흘러오는 세멘트물이요, 온통 석회암공동체이다나니 이런 사고가... 제 가서 공동속타입이 잘 안되고있다고 알리고 올테니 안심들 하시오. ...하고선 무작정 산위로 내닫는것이였소. 사람들이 전화로 알려도 뭇텐데 거기가 어디라고 달려갈 생각을 하느냐고 말리는데도 그는 직접 가서 알리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산길을 뚫는것이였소. 그때 그의 얼굴에는 그 누가 뭐라만류해도 이 일만은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한 기색만이 어려있었소. 그 사람이 바로 준도라는 사람이었소. 그후 나는 전력부문의 한 일군에게서 명동강발전소 건설정형을 료해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잘 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소. 그런데 그 사람은 발전소건설장 사람이 아니고 발전소건설총국 지도원이라고하였소. 몇달후 나는 어찌다 총국일군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다시 그 사람에 대해 물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건설현장으로 아주 내려가고 총국에 없다고 하였소. 이유를 물으니... 내가 발전소건설장사람으로 알고 물었다는 말을 듣자 자기의 영원한 일터는 지도자동지께서 알고계시는 거기노라면서 서둘러 떠났다는것이였소.》

장군님께서는 이쪽 기슭 너설바위우로도 지금 막 황금빛 비단자락같은 아침해빛이 퍼져오르는 것을 기쁘신 눈길로 잠시 바라보시더니 계속하시었다.

《그후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명동강발전소 건설장에 갔다가 이번에는 꼭 준도타입직장장을 만나리라 결심하고 그를 불렀댔소. 그러나 그때도 역시 그를 만날수 없었소. 입원했다는것이였소. 나는 혹시 그전날 세멘트물을 삼켰던것때문이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소. 그 사람은 석회암공동지대 때문에 세멘트타입이 허사로 되군하니까 아예 수직갱을 뚫구 돌덩이들이 무시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곳으로 들어가 직접탐사를 하고서 쓰러졌다고 하는것이였소. 그가 생명을 내대고 한 직접탐사는 그후 언제지반시공법을 혁신하는데서 매우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하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발견하시던 그날의 기쁨과 그후 그의 성장을 위해 남모르게 보살펴주시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불러다주는 그윽한 감정때문인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것 같은 따뜻한 미소를 한동안 띠우고계시었다.

석현은 그 어떤 한없이 크고 숭엄한것이 자기의 온 넋을 세차게 휘여잡고 뒤흔드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잠시후에야 그것이 비록 한번밖에 보지 못한 전사이지만 그가 지니고있는 그 소박한 성실성이 하도 소중히 생각되시여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이 머나먼 벽촌에까지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높으신 인덕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정녕 그이의 그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랑과 미덕을 통채로 다 갖다 겹놓는대도 비기지 못할 것이었다.

해가 퍼그나 솟아올랐는지 이제는 깊은 골짜기 마다에도 다양한 봄별이 누렇게 깔려있었다.

이날의 아침은 별로 유난스러워 황금빛 해살은 산음달쪽에서도 흘러넘치고있는것 같았다.

5

장군님께서 아침식사를 어서 하셔야겠다는 수행원들의 청을 두번씩이나 물리치셨을 때에야 또 한일군이 이마에 흥건히 내배인 땀을 흘리며 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였다.

그 일군은 닿는길로 얼마간 무거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곳 군엔 큰 발전소건설사업소에서 파견되어온 사람들이 없었던 모양이구만?》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물으시었다.

《아닙니다. 이곳 군 중소형발전소건설사업소에도 청년수력에서 파견되어온 기능공이 둘이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눈가에 밝은 빛을 띠우시며 있었을것이라고, 자신께서 얼마전에 큰 수력발전소건설장들에서 단련된 사람들을 5명씩 지방중소형발전소건설장들에 파견하겠다는 제의서에 비준해주

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느냐고 따듯이 물으시었다.

《제가 그만... 그 동무들한테 청년수력건설 지배인에 대한 부정자료들만 자꾸 물었던것 같습시다.》

《?》

《남자기능공은- 뭇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의 뒤를 캐는가. 전 모든 일군들이 그 지배인만큼 일했으면 좋겠수다- 하고 씨근거리며 항의했고 녀성기능공은- 동지의 손은 은어같이 새말장수다래. 준도지배인의 손은 세멘트물에 터지구 쇠붙이에 찢긴데다가 잠까지 이겨내느라구 빈침으로 찌르군해서 가물치같이 시퍼래요- 하고는 더 할말이 없다며 나갔습시다.》

《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게 아니라 아주 잘 알아봤소. 속을 대번에 다 뽑아가지구 왔으니말이요. 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굴 한구석에 실렸던 피로의 흔적마저 다 털어버리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이의 밝은 웃음소리는 잔잔한 호수수면을 타고 마치 은반우로 구르는 구슬마냥 건너편 기슭에까지 굴러갔다가 메아리로 되어 되돌아왔다.

석현은 그 소리에 귀기울이며 다시금 눈앞에 펴 감기는 뜨거운 이슬을 감촉했다.

생각해보면 자기도 도내산하 각 중소형발전소 건설사업소들에 큰 발전소건설장들에서 단련된 기능공들이 왔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직접 도당위원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배치문제까지 토의하였었다.

그러나 준도지배인에 대해 알아보려면 적어도 하루해를 잡아 수력발전소건설장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있었으니 자기야말로 무슨 인민들의 정치적운명을 지켜주는 인민정권기관의 책임일군이란말인가.

인민을 위해서라면 소갈데말갈데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다고 자처했던 자신이 오늘은 어쩌하여 이렇게 돌덩이같이 찬사람이 됐단말인가.

뭔가 머리속을 조절하던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것 같다.

만백성앞에서는 물론 한 인간앞에서도 해님이 되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도량과 지극한 애민정신을 따라배워 자신도 인민사랑의 화신으로 내려쳐오르려던 그날의 그 푸른 꿈도 이미 새까맣게 잊은게 분명하고 아주 다 버린것이 틀림없었다.

정녕 자신이라는 인간은 실천보다 말을 더 앞세우며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만 보이려고 애써온 진심이 덜하고 꾸밈이 많은 위선자였다.

석현이 더 무겁게 수그러드는 고개를 어찌지

못하는데 책임일군에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현결찬 음성이 다시금 그를 번민의 심연속에서 건져내주시는것이였다.

《그래 준도지배인을 연수호 출장소에 대기시켰습니까?》

순간 석현은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에서 멀지 않은 출장소에 준도지배인을 부르셨으며 이제 그를 거기서 친히 만나시려 한다는것을 알았다.

《네. 좀전에 저와 전화연락까지 있었는데 지배인동문 장군님께서 평양으로 바빠 돌아가시는 길에 자기를 부르셨다면 도로 근방 어디겠는데 어째서 끝깊은 산속인지 모르겠다고 이상해 했습시다.》

《히, 사람도 어서 쉬거나 할게지. 그래 뭐라 대답했습니까?》

《장군님 분부신데 이상하구 뭐구 할게 있는가, 장군님께서 가실 때까지 마음을 폭 녹잡히구 그곳에서 대접하는 음식이나 실컷 들면서 기다리라고 했습시다.》

《히, 한잠 폭 자라는 소리까지 할걸 그랬습시다.》

장군님께서는 해빛넘치는 창공에 맑은 웃음을 터쳐올리시더니 계속하시었다.

《어쨌든 동무가 그런 말까지 했다니 마음을 놓고 휴식할겁니다. 아마 그 동무한테 그런 휴식이 오래간만일지도 모릅니다.》

전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이 굽이치는 그이의 음성은 석현의 가슴을 다시금 용암처럼 끓여버리게 했다.

인간에 대한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

과연 그 사랑의 크기는 어디서 오는것일까?

문득 승용차소리가 그의 생각을 다시금 중단시켰다.

야전승용차는 먼곳에서 왔다는것을 말해주듯 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었다.

《마침들 다 돌아오누만.》하시며 차에서 내리는 인민무력부의 한 일군을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은근히 엇갈리고있었다.

석현의 가슴도 알수 없는 기대로 하여 바람안은 숲처럼 설레었다.

무력부의 일군은 군인다운 걸음새로 씩씩하게 다가오더니 장군님께 말씀드리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언제건설용 특수세멘트를 생산하는 아주 훌륭한 세멘트공장이 명동강발전소 마을 뒤편안에 있었습시다. 김준도동지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어 첫사업으로 지은것이랍니다. 10년이 돼오는데 년생산량은 만톤이랍니다.》

《만톤!》

장군님의 음성은 감동때문인지 거의 폭발적으로 울리었다.

《네. 그간 10만톤을 생산했답니다.》

《음, 대단하군, 대단해. 글쎄 그 사람이 그 좋은 세멘트원료인 석회암을 깔고앉아있으면서 세멘트공장을 짓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니!》

믿음을 지켜준 전사가 못내 대견하신틀 장군님의 음성은 산부리가 울리게 현현하였다.

석현의 가슴속에서도 우뢰소리의 장쾌한 메아리와 같은것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한 인간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녕 대군을 키우는 거창한 열정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전 그곳에서... 최근에 자격을 정지당하구 세멘트를 인수하러 온 혼합직장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지배인은 자기가 타입직장에서 대형휘틀에 의한 다량타입방법이 연구되었는데도 그에 맞게 새 골재혼합방법을 연구할 생각조차 안하고있을것때문에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후방과장은... 변전소를 세우고선 자리를 또 틀텐데 원료기지를 꾸려서 뭘하겠느냐고 빈둥거리다가 벌을 받구... 최고사령관동지, 제가 괜한 일에까지 참네한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동무들은 일들을 아주 잘했소.》

장군님의 기쁨 어린 음성에 호수의 물결도 넘실 춤을 추는듯하였다.

석현의 가슴속에서도 크나큰 격량이 일어번지고 있었다.

여기서 명동강발전소까지는 수백리길인데 훌륭한 전사가 걸어온 길에는 반드시 충성의 흔적이 기념비마냥 남아있을것이라고 굳게 믿으시며 야전승용차까지 띄우신 장군님! 그것이 부정할수 없는 현실로 확정되자 그리도 기쁘시여 해빛같은 웃음을 지으시는 장군님!

정녕 석현은 지금 자기 가슴속에서 파도치는 이 격정을 뭇라 표현할 길이 없는것이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장군님의 음성은 더 격동적으로 석현의 가슴을 울려주고있었다.

《석현 동무, 나는 물론 준도지배인동무한테도 결합이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의 본심이 달라졌는가 하는것입니다.

이건 오늘아침 잠간 료해해본 결과를 놓고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하며 일도 잘하고있다는것을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결국 현상만 보고 본질-인간을 보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합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고있는 사람들한테 복잡한 사람으로, 전횡이나 부리며 행세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말공부나 하는 식객 수십명보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주의를 한다는것도 그렇습니다. 언제건설용 특수세멘트는 그 누가 달라고 해도 안주게 돼있는건데 기관본위주의를 한다는건 무슨 소립니까? 무원칙하게 그저 가려운데를 긁어

줘야 쓸만한 일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한테 일군다운 사람이 얼마나 남게 되겠습니까? 누가 또 것처럼 일을 잘해보겠다고 가슴펴고 나서구? ...결국 대낮의 달과 같은 사람들만 남게 될게 아닙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신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먼하늘가쪽을 바라보시였다. 허공에 던져진 그이의 시선에도 아픔이 진하게 배여있는것 같아 석현의 가슴은 에이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더 말씀이 없이 서계셨으나 대하의 거센 흐름같은 그이의 걱정은 그 침묵속에서 더 크고 웅심깊은 흐름을 이루고있는듯하였다.

잠시후 장군님께서서는 다소 준절한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법기관에서 들고 나온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워낙 명동강발전소 언제지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국의 <수호전>처럼 복잡한것이었는데 어떻게 세멘트류실이 그렇게도 없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류실된것을 지배인이라해서 그가 다 절머져야 한다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배인이야 세멘트공장을 자체로 세워 그만큼 나라에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좋은점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들 심장들이 싸늘하단말입니까?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헐뜯고있는 이 엄혹한 현실이 동무의 심장을 끓게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민앞에 서있는 동무의 량심과 애국애족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것입니까?》

《장군님!》

석현의 목소리는 신음하듯 떨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땅의 온갖 불의를 단숨에 다 불살라버릴듯한 열정을 안으시고 말씀을 잇대여 나가시였다.

《그런 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두리엔 차거운 얼음장벽이 둘러쳐지구 결국 우리는 인민들로부터 격리되고맙니다. 그래서 나는 늘 당과 인민은 하나로 합쳐져야만 그 하나속에서 살아 존재할수 있는 둘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고생스럽더라도 한 인간에 대해서도 백만대군을 보살필 때의 그런 노력과 열정을 다하군합니다.》

《아 아, 장군님!》

석현은 드디어 자기가 한번 수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장군님의 가슴속에서 한 인간이 아니라 백만대군을 떼내려 했다는것을 알았다.

백만대군을 지키시는 위대한 령장의 격노한 음성은 계속 울리고있었다.

《그가 우리 동지이고 우리 인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를 위해 당이 가고 천만대

군이 가고 온 나라가 가야 한다는것 이 나의 동지관이구 신념입니다.》

《!》

석현은 여직껏 그리도 찾고싶고 알고싶던것이 그 어떤 령훈과도 같이 번쩍 뇌리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했다.

아, 바로 그것이다. 허구한날 어느 하루도 변함 없이 한 인간을 위해서도 그런 크나큰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그 진지성, 백만대군뿐만아니라 당과 온 나라도 몸소 이끌고가시는 지칠줄 모르는 로고가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사랑의 크기이며 높이이며 무게이다. 그런 위대한 사랑이 있어 천만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일심단결이 가능했고, 천만의 가슴에 오직 한마음-당의 의지만이 살아 융솟음치는 혼연일체의 기적이 가능했다.

결국 위대한 인민은 이렇게 탄생된것이였다.

새 세계로 치솟아오르던 석현의 사색은 수행일군이 그이께 올리는 말소리에 다시금 똑 끊어졌다.

《장군님, 직승기를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직승기를?》

장군님께서는 놀라시더니 직승기는 왜 부르냐고 물으시였다.

《시간이 늦은것 같아 그러니다. 회의시간전으로 평양에 당으셔야했는데 한곳에 더 들려가셔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출장소?》

《예. 여기서 거기는 300여리입니다. 그런데 해는 벌써...》

화염덩어리같은 해는 벌써 하늘중천에 걸려있었다.

석현이도 불시에 촉급한 생각이 들어 손목시계

를 들여다보았다.

시침은 10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이때부터 석현에게는 시간이 별로 장달음해 달아나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중요한 회의를 앞둔 장군님께서 이제 또 한곳에 들려가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석현은 평소예 제구실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다시금 밀물처럼 밀려드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10시... 시간이 펍 갔구만. 그럼 어서 요기나 하구 떠납시다. 평양으로. 직승기는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준도지배인은 내가 다문 한시간이라도 휴식시키고싶어 출장소에 불렀겠을뿐입니다. 밤낮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라도 돕고싶었습니다. 앞으로 의사 한사람을 더 붙여주도록 합시다...》

석현은 그 다음말씀은 잘 가려들을수가 없었다.

벽찬 감동이 가슴은 물론 온몸을 너무도 세차게 울려주기때문이었다.

(정녕 장군님께서 한 인간을 위해서도 해님이 되여주시는구나. 저 끝없는 사랑속에서 태어난 인민이길래 심장으로 성벽을 쌓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가고있구나!)

까닭없이 잠전에 그이께서 하시던 말씀이 뇌리속에 되새겨졌다.

《...그 하나속에서 살아존재할수 있는 돌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고생스럽더라도 백만대군을 돌볼때의 그런 노력과 열정을 다하군합니다.》

석현은 지금 단순히 외우고만있는것이 아니라 단물이 나오도록 씹으며 음미하고있는것이였다.

호수가의 숲도 명상에 잠긴듯 다시금 신비스러운 정적속에 휩싸여있었다.

빛나는 별 김정일

쌀바도르 미겔 폰두

동방의 하늘가에
빛나는 별 솟아
그 빛발 찬연히
새날 밝히네

사랑의 그 이름
하늘가의 새들도
소리높이 노래하며
누리에 새겨가네

위대한 계승자
태양의 위업
승리에로 이끄시며

힘차게 전진시키시네

하늘가의 빛나는 별
우리 앞길 밝히고
자애론 그 빛발
우리 심장 울리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세계의 암흑을 밀어내고
누리를 밝게 비치시네

(필자는 모잠비끄 마푸토시 돈보스꼬인민학교
교원임)

너와 나

김정

국경절 다음날 나는 휴가를 고향에서 보내려고 복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주야로 20시간이상이나 달려야 끝이 나는 기나긴 려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이라는것을 조금도 느낄수 없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를 선동하는 렬차원처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마치 내 귀에 철금이나 옥류금 소리처럼 정답게 와닿았고 그가 엮어대는 열정적인 말마디들은 그 어떤 서정시의 시행처럼 심금을 울리었다. 구름처럼 타래쳐오르는 일만가지 추억조차 모두 고향이라는 하나의 기슭을 향해 노를 저어갔다. 렬차가 우리 고향 관문인 아산역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갈 때는 정녕 시라도 올고싶은 심정이었다.

인파로 설레는 혼잡속을 헤치고 선참으로 개찰구를 나선 나는 황금의 분말같은 아침해살을 온몸에 받으며 피치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포장도로를 따라 읍쪽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었다. 역에서 10리쯤 되는곳에 우리 집이 있고 역과 우리 집 사이의 중간지점에는 내가 다니던 고등중학교가 있다. 오늘은 고향집으로 가기전에 그 고등중학교로 직행할 결심이었다.

졸업증을 받아들고 교문을 나서던 때가 어언 17년전의 일로 되어버리었다. 어느 시인이 세월을 흐르는 물결에 비꼰듯하다. 그 물결에 실려 많은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갔다. 더러는 간부로 승진하고 더러는 년로보장으로 넘어가고 더러는 병고로 세상을 하직하고.

나는 천만갈래로 밀려드는 따뜻한 추억을 안고 교문에 들어섰다.

각목에 널판자를 대고 략식으로 만든 투사훈련용롱구대가 운동장둘레를 따라가며 수풀처럼 솟아있다. 어림짐작으로도 스무개는 넘어보인다.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채로운 풍경이다.

운동장 한쪽구석에서는 곤청색운동복을 펼쳐입은 롱구선수들이 중장거리투사훈련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트렁크를 들고 교정에 들어서서 나를 무심히 바라보는 수십쌍의 눈길들, 그 개개의 눈동자들에 격려의 미소를 던지고싶은 이 선행의 심정을 저애들이 알거나 할까.

선수들이 던지는 롱구공이 연속 링속에 날아들어 아랫으로 떨어져버리었다. 링에 달린 그물이 꼬리를 흔들 때마다 가슴에 뭉클뭉클 치밀어오르는 신비스런 통쾌감, 모교의 롱구수준이 저렇게도 높이 도약했단말인가.

5번선수가 중앙선에서 던진 공이 링에 명중하지 못하고 내앞에 날아와 떨어졌다.

나는 손에서 트렁크를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공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곤청색런닝샤츠에 리인혁이라는 이름을 새긴 9번선수가 쏜살같이 달려와 내 손에서 슬그머니 공을 앗아들었다. 키폴도 거동도 생김새도 모두 고등중학교시절의 내 동창생 김영철을 방불케 하는 날씬한 몸매의 소년이었다.

선수복의 번호도 꼭같은 9번, 몸을 한바퀴 돌리면서 링에 공을 투사하는 멋스러운 동작까지도 영남없는 김영철식이였다.

어쩌면 모든게 한형타에 찍어낸것처럼 저렇게도 비슷할까.

나는 리인혁의 초상너머로 중학시절의 내 생활에서 퍼그나 큰 몫을 차지했던 동성동명의 짝패 김영철의 정다운 모습을 되그려보았다. 한손은 양복주머니에, 다른 한손은 바지주머니에 지르고 다니며 열대림속의 기린처럼 늘 수평보다 높은곳을 바라보는 상고머리소년, 만물을 눈아래로 굽어보는것 같은 그 철학가연한 자세로 하여 그는 어데가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영철은 중학 4학년말기에 우리교장으로 이사해와서 출석부 번호로서는 맨 마지막으로 되는 45번을 차지한 전입생이었다. 그가 《45번 김영철》로부터 《9번 김영철》로 된것은 5학년때부터였다.

《가, 나, 다, 라》순으로 된 출석부자리에 따라 학우들은 나에게도 《8번 김영철》이라는 거치장스러운 대호를 주었다. 시간이 얼마쯤 흐르자 그들은 공통인수를 분해해서 팔호밖으로 팽개치듯이 《김영철》이라는 이름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우리를 그저 《8번》이나 《9번》으로만 불렀다.

동성동명이라는 우연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같은 우정을 선사해주었다.

그런데다가 나와 《9번》은 둘다 학교를 대표하는 롱구선수들이였다. 우리는 손발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리상적인 짝패였다. 팀의 주장이고 중앙공격수인 《9번》은 매번 정확한 솜으로 우리의 2인결합을 맏시있게 마무리하곤하였다. 방어수인 내가 충실한 《탄약공급수》라면 그는 재능있는 사수였다. 우리의 소박한 우정을 심도있는 우정으로 만들어준 가열로가 다름아닌 롱구장이였다.

《9번 김영철》은 롱구수재라고도 부를수 있는 흔치 않는 선수였다. 그가 기린의 시야와도 같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경기장을 번개같이 누비며 연방 링에 공을 명중할 때면 만장이 그 뛰어난 솜씨앞에서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잠시후 나는 교사 왼쪽 출입문으로 해서 복도에 들어섰다. 교원의 선창에 따라 서정시 《어머니》를 랑송하는 학생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나를 맞아주었다. 어느 교실에서인가는 풍금소리도 들려왔다. 칠판에 백목이 부딪치는 딱딱소리, 음의 법칙은 설명하는 너교원의 열정적인 목소리...

나는 손에 트렁크를 든채 경비실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파마머리를 뒤로 시원스레 벗어넘긴 해말쑥한 처녀의 얼굴이 피창너머로 바라보이였다. 피창을 열고 유심히 나를 쳐다보는 너교원, 그 교원의 얼굴에 문득 까닭은 알수 없는 지긋은 표정이 떠올랐다.

《저... 실례이지만 영웅동지가 아니십니까?》

내가 증명서를 꺼내기도전에 너교원이 앞질러 묻는 말이였다.

나는 회초리에 파귀를 한대 얼어맞은것 같은 감을 느끼며 두팔을 뻗쳐 내저었다.

《영웅이라니요, 사람을 삭갈리게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학교가 낳은 로력영웅 김영철동지인데 왜 삭갈리겠나요.

속도전청년돌격대 대대장 김영철!》

처녀선생은 그 무슨 합창시의 절구라도 뻗듯이 김영철이라는 말에 력점을 찍고나서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원참, 이런 착오가 어디 있담. 《9번》이 받아야 할 인사를 내가 받다니...

내 얼굴은 삽시에 화독같이 달아오르고 온몸의 힘살은 경련이라도 만난듯이 푸들푸들 떨리였다. 그것은 경련이라기보다 자기자신의 존재마저 망각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전율이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 대대장 김영철에게 공화국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신문지상에 공개된것이 열흘전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모교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떠난지도 10년이상이나 되는 나를 그 정령의 주인공으로 알고있을가? 어떻게 되어 이 애젊은 교원은 내가 증명서를 꺼내보이기도전에 나를 영웅이라고 부를가?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생면부지의 처녀가 어떻게 되어 나를 보자마자 대뜸 김영철이라고 말하는가말이다.

《저... 선생, 이 증명서를 보십시오.》

나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신분증의 안면을 너교원의 눈앞에 펼쳐보였다.

《4. 26아동영화촬영소》라는 기관명을 두번세번 곱씹어 새겨보던 너교원은 입을 딱 벌리고 손뼉을 마주쳤다.

《어마나... 그런걸 우리 교장선생님은 화가동지가 영웅이 됐다고 하면서 신문까지 돌렸는데요.》

《무슨 신문인데?》

《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색하는 청년건설자>라는... 그 기사가 난 신문에 화가선생의 사진도

실렸던데요. 교장선생이 자기의 몇대째 제자라고 하면서 신문을 들고 분파실들을 돌아다니며 떠들썩했습니다.》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사달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있었구나. 스무해전에 대수를 가르치던 리학규선생, 그 선생이 교장으로 승진했다는 말은 여러해전에 들었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되어 이런 착오를 범한단말인가?

사달은 동성동명으로부터 시작된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한학급에서 공부하던 중학시절에도 교원들은 종종 《8번》과 《9번》을 삭갈리곤하지 않았던가. 나의 소행이 《9번》의 소행으로 되고 《9번》의 소행이 내 소행으로 되어 오해를 사거나 웃음을 자아낸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나라에 영철이나 영남이, 영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곤했었다.

그렇다고 하여 어떻게 착오의 원인을 동성동명에서만 찾겠는가. 보다 큰 요인은 다른데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사람들에게 대한 선입견, 이것이 착오를 낳은 첫째가는 동기가 아니였을가.

《9번 김영철》은 얼럭덜럭한 인상을 남기고 중학시절을 마친 친구이다. 그는 룡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반면에 이따금씩 교원들과 학우들의 말밥에도 올랐다. 학장을 떠난 다음에는 작업복을 걸치고 로력전선에 스며들어가 소문도 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였다. 왜 그런지 모교에는 한번도 얼씬하지 않았다.

한해두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옛 룡구수재에 대한 모교의 기억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9번》을 추억해줄만한 동창들과 후배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가고 그의 룡구숨씨를 격찬하던 스승들은 새로운 룡구수재들이 창조하는 기적에 현혹되어 옛수재의 존재마저 망각하게 되었다. 중학시절을 마치고 년년이 교정을 떠나간 수많은 졸업생들속에서 《9번 김영철》은 무수한 별들로 바글거리는 은하계의 한개 별과도 같은 미미한 존재가 되었다.

《9번》이 걸어온 로정과 달리 내 행로는 한점의 티도 없는 탄탄대로였다고 할수 있다. 특별한 고뇌도 없고 곡절도 없고 수치도 없는 포장도로와도 같은 행로. 나는 그 포장도로를 무사고로 주행해온 행운아였다. 《모범생표본》이란 중학시절의 내 인격에 얹혀진 월계관이였다. 《성적도 최고, 품행도 최상》이라는것이 나에 대한 교원들의 일치한 평가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시절에는 신문이 내 금새를 부쩍 높여주었다. 《로동신문》이 《사색하는 청년건설자》라는 제목으로 나를 소개한것은 내가 북부철길건설장에서 중대를 이끌고 차굴공사를

한창 벌리고있을 때였다. 그 기사에는 결굴을 쫓는 방법으로 경도속에 범람하는 석수를 다른데로 빼돌리고 공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나와 우리 중대의 사업실적이 생동하게 써여있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이 나오자 모교에서는 떠들었을것이다. 《사색하는 청년건설자》 김영철, 그가 바로 영웅이 되었다고,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으로 이름을 날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오늘은 영웅이 되어 모교의 영예를 빛내인다고.

《9번》도 화제에 올랐을가. 《9번 김영철은 영웅감이 못돼》 하고 그의 존재를 무시해버렸을수도 있다. 아니 《9번》에 대해서는 애당초 안중에 두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학창시절의 걸음새가 굽지 못했던 사람들은 왕왕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편견의 희생물이 되기도 한다.

《9번》이 남들의 말밥에 오르기 시작한것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룡구팀이 우리 군에 와서 원정경기를 한 그때부터였다. 그날 그는 경기를 구경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교실에서 슬쩍 뺑소니를 쳤다. 그후에는 수업도중에 대수교원의 허락을 받고 위생실로 가는척하다가 공설운동장에 가서 자동차운전편습을 하고 돌아온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고압탄광 운수부에 그가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닌 교수머리운전수가 있었다.

이 두가지 사건으로 하여 나는 학우들앞에서 자기 짝패의 잘못을 날날이 까밝히지 않을수 없는 난처한 립장에 놓이게 되었다.

《9번》의 자유주의는 1년에 한두번씩 꼭 필요한 때에만 하는 그런것이였다. 이를테면 잠복기간이 여섯달쯤 되는 자유주의였다고 할가. 어쩌다가 한두번씩 하는 자유주의여서 그런지 교원들도 별로 되게 다불러대지는 않았다.

《9번 김영철》은 5학년말기까지 종합학습장이라는것을 가지고 다니였다. 500페이지도 넘는 두툼한 책을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력사, 3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기하... 이런 식으로 분배하고서는 배운 내용을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몇자씩 적어 넣군하였다. 알맹이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죄다 무시해버리였다. 그 어마어마한 학습장을 보자기로 싸거나 가방에 넣지도 않고 옆구리에 끼고다니였다.

나는 《9번》이 필갑을 가지고 학교에 나타나는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가 가지고다니는 문방구란 원주필 하나뿐이 었다.

어느날 나는 종합학습장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9번>, 너한테선 어쩐지 건달군냄새가 나. 책가방도 없고 필통도 없고... 열과목이상이나 되는 과목을 한학습장에 필기한다는게 말이 돼? 그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9번 김영철》은 별소리를 다한다는듯이 눈살을

쫓긋해보이였다.

《건달군냄새구 뭐구 배운 내용은 소화하면 될게 아니야.》

《그래두 학생이야 학생맛이 나야지.》

놀라운것은 《9번》이 필기를 적게 하면서도 배운 지식을 제법 훌륭하게 소화해낸다는것이였다.

그가 줄타기를 하는 건달뱅이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나는 종합학습장에 대한 시비를 더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원들은 그런 류의 학습장을 보고 분개하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비빔밥>인가!》하고 대수선생은 학습장을 발견하자 벌떡 성까지 냈다.

대수선생이 종합학습장을 가지고가서 다른 학급들에 돌렸다는 소문이 나돈 때로부터 《9번 김영철》은 닳새동안이나 학교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선생의 처사가 매우 파격하고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틀동안 집에서 덩굴었다. 속탈을 만나 밥도 먹지 못한다는 녀석이 병문안을 가보면 신수가 멀쩡해서 소설책만 뒤적거려였다. 그의 머리맡에서 나딩구는 인삼지사정과 아편현초알약을 결석을 합법화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병문안만 부지런히 다니였다. 자주 가느라면 미안하고 쑥스러워서라도 마음을 돌리겠지 하는것이 우리들의 속구구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였다. 《9번》은 오히려 동무들의 방문을 시끄럽게 여기였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아침일찍 점심밥을 싸가지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가곤하였다.

이런 때에 체육선생이 나를 찾아와 《9번》을 빨리 찾아내라고 호소하였다.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대사를 망친다고 부산을 떨었다. 전국고등중학교부문 룡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도대표립선발경기가 눈앞에 박두한 때여서 선생이 야단법석을 할만도 하였다. 《9번》이 혼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경기전략도 세울수 없고 좋은 성적도 거둘수가 없다는것이였다.

체육선생이 나를 만나고 돌아간 그날밤 나는 잠자리에 든 《9번》을 밖으로 불려냈다. 그런 다음 다짜고짜 지청구부터 해댔다.

《그러니까 대수선생이 꼴보기 싫어 학교에 안나간다는거겠지. 사내대장부라는게 소가지가 왜 그렇게 고부장해. 9번답지 않단말이야.》

《9번 김영철》은 고개를 번쩍 쳐들고 격해서 부르짖었다. 《애들이 나만 보면 <종합학습장>이라고 쑥군거린대. 너자애들까지...그 선생님 처사가 너무하지 않아?》

분별을 잃은 맹목적인 자존심, 처녀애들한테서

나 볼수 있는 혐오스러운 웅졸성... 저런 독버섯들이 어떻게 《9번》의 성품속에서 합부로 자리를 틀수 있었을가.

《영철이, 너하구 난 살도 때주고 피도 뽑아줄수 있는 친구야. 너는 제2의 나고 나는 제2의 너야. 나는 나를 배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나 너를 돌봐야 하구 너는 날 돌봐야 해. 서로 상대를 책임져야 한단말이야. 이진 내 주장이 아니고 우리 수령님의 인생철학이야.》

나는 《9번》의 눈이 휘둥그래지는것을 감촉하면서 혼계를 계속하였다.

《네가 길을 잘못 들면 내가 채찍질을 해야 하고 내가 사람구실을 못하면 네가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쳐야 해. 일심일체라는게 바로 이런거야. 오늘은 내가 채찍을 들 차례야. 난 너하고 외교를 하고싶지 않아. <9번>, 넌 지금 길을 잘못 들고있어. 정신을 차리고 래일부터 당장 학교에 나오너라. 룡구소조 아이들도 울상이 됐어. 믿는다!》

《9번 김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빠트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나는 《9번》이 내 부락대로 꼭 새 출발을 하리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날도 교실에서 그의 모습을 볼수 없었다.

학우들은 또다시 《9번》을 찾느라고 사방으로 분주히 뛰어다니였다. 우리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곳에서 그를 찾아냈다. 며칠전에 온돌미장을 끝냈다는 탄광마을의 단층주택가. 온돌미장은 주택건설의 마지막공정이다. 그 공정이 끝나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 온돌바닥을 건조시킨다.

건조중에 있는 온돌바닥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뒤골목에서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몇몇 전달병이들의 은신처로 되어버렸다.

내가 출입문을 와락 잡아당기자 《9번》은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르팍에서 주폐장들이 락엽처럼 와르르 떨어져버리였다.

그 주폐장들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판자노리가 푹푹푹 뛰고 주먹이 떨리였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화염처럼 길길이 솟구쳐올랐다.

《9번》은 내 어깨뒤에 담을 쌓고 서있는 룡구소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흥!》하고 코바람을 불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깨고소해서 말했다.

《왜? 나없인 안되겠지?》

그 말 한마디에 내 리성은 마침내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였다. 나는 주먹으로 《9번》의 따귀를 무작정 후려갈기였다.

《개자식, 너같은것두 인간이야!》

이런 말을 가래침처럼 탁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와버리였다. 그리고나서는

바람벽에 기대서서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소리없이 울었다. 나는 지금도 그 눈물이 어떤 성질의 눈물이였는가를 모른다. 인간의 감정가운데는 론리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다.

그후부터 《9번 김영철》은 판사람으로 변모하였다. 그는 조직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직심스레하였다. 문제의 그 종합학습장도 폐기해버리였다.

그해 여름 우리는 도대표선발경기에서도 우승하였다.

1년후 나와 《9번》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였다. 나는 도시경영사업소 온돌공이 되었고 《9번》은 자동차사업소 운전조사로 입직하였다. 몇해후에는 한날한시에 북부철길건설장으로 탄원해갔다.

우리의 우정은 돌격대시절에도 변함없었다. 좀 달라진것이 있다면 《9번》의 생활에 대한 나의 《섭정》이 더 확대된것이었다고 할가.

처음에 나는 중대를 지휘하였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중대를 《9번》에게 인계하고 편대지휘부로 소환되어갔다.

《9번 김영철》은 중대를 무탈하게 지휘하였다.

그는 공사를 밀고나가는데서도 룡구장에서처럼 시야가 넓고 눈썰미가 빨랐다. 남들보다 10분 먼저 일을 시작하고 10분 늦게 작업장을 떠나는 것이 김영철중대의 일본새였다. 《9번》은 말을 적게 하는 대신 노상 앞채를 메고 굶은일에 선참으로 몸을 내대군하였다. 지휘부에서는 내가 후임을 잘 골랐다고 칭찬하였다.

그런데 《9번》에게는 대원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고 어루만지기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대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따끔하게 타일러줄 대신 상급에 보고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다.

우에서 진상을 캐물으면 마지 못해 보파리를 풀어놓곤했는데 그것도 건대기는 숨겨두고 국물만 내놓았다. 중대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대자체가 내적으로 소화한다는것이 그의 립장이였다.

내가 미술대학 입학통지서를 받고 평양으로 떠날무렵에 지휘부에서는 그를 소대장으로 강직시키였다. 그가 대대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돌격대원 두명을 후방물자공작에 제멋대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던것이다.

《9번》이 강직처분을 받은 날 나는 그에게 일장 혼시를 하였다.

《영철이, 앞으로 생활을 잘해서 과오를 꼭 씻으라구. 굴이나 물건 같은건 손질을 여러번 해서 잘 다듬을수 있지만 인생에는 교정이란게 있을수 없어. 한번 잘못 살면 다거든. 새출발은 할수있어도 잘못 산 과거를 교정할 도리가 없는게 인생이란 말일세.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가 나게 살아야지. 자넨 인심을 람발하면서 동글동글하게 사는데 탈이야. 매를 땔것은 매를 대고 계선을 가를것은 계선을 가르고 좀 명백하게 살

란말이야.》

그것은 내가 《9번》에게 준 조언가운데서도 가장 솔직하고 심각한 조언이었다.

조언은 신랄했지만 나의 짝패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속말로 《남들에게 아픈 말을 하는게 왜 그렇게도 힘들까...》하고 중얼거렸을뿐이었다. 학창시절에도 그랬지만 돌격대시절에도 《9번》은 언제나 내 비판을 가장 정당하고 사심없는것으로 받아들이었다.

건설장을 떠나는 날 《갱생》을 타고 철도역으로 달리면서도 나는 나를 바래주려고 100리길을 따라 나선 《9번》에게 줄곧 무슨 훈계도 하고 당부도 하였다. 내가 열변끝에 《어때? 내 말이...》하고 물을 때마다 《9번》은 매번 《옳아》, 《명심하겠어》, 《그거야 그렇지》하면서 허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이상하게, 아니 지어는 신기하게까지 생각한다. 어떻게 내 말이라고 다 진리였겠는가. 설익은 주장도 있었을거요 상대의 기본을 거슬리게 하는 지나친 요구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9번》은 내가 하는 말에 한번도 까박을 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을 말하지 않고 외교를 하면 역증을 냈다.

나와 《9번 김영철》사이의 우정을 하나의 옷에 비긴다면 나의 조언은 그 옷을 누벼온 바늘과 실과 같은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우리의 우정에는 늘 그 바늘과 실이 따라다니었다. 나는 일종의 생활고문, 정치위원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9번》의 머리우에 군림해왔었다.

간혹 내가 분수없이 성을 내거나 가시박힌 말을 해도 발끈하지 않고 그 한마디한마디를 진지하게 음미해보며 순한 양처럼 눈을 슴뻑거리기만 하던 《9번》, 그 《9번》이 지금은 자기 생활의 교사나 다름없었던 나를 까마득히 뒤에 떨구고 번쩍거리는 금별메달로 인생을 빛내며 급행열차와 같은 속도로 시대의 한복판을 달리고있다.

실로 인생은 마라손과 같은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숨가쁘게 달리는 사람들의 물결, 누가 결승테프를 먼저 끊겠는지 그것은 속단하기 어렵다. 출발이 실통치 못해도 신념과 의지가 강하면 승리자가 되고 출발을 멋지게 떼도 신념과 의지가 약하면 락오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것이 인생이다.

그러고보면 결국 나는 지난날 미래의 영웅을 상대로 끝없는 설교를 해온셈이다. 그런데 나 자신은 오늘 성공한 그의 인생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9번》은 영예의 단상에 있고 나는 객석에 있다.

나는 입가에 쓴웃음을 짓고 지나간 반생을 돌이켜보았다.

물론 나도 세월을 헛되게는 보내지 않았다. 나의 동료들은 다들 내 삶을 가리켜 《더 바랄것 없

는 인생》이라고들 한다. 더 바랄것도 없고 요구할것도 없는 기름진 인생,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나는 그 삶의 창조자, 향유자가 된데 대해 언제나 커다란 자부와 만족을 느껴왔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동영화촬영소의 미술가가 된 사람, 로동당원이 되고 수도시민이 된 사람, 고급가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 온수난방집에서 1급재단사의 자격을 가지고있는 안해와 함께 두 남매를 거느리고 오붓하게 살아가는 사람, 촬영소 지도부와 제작단의 간부들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신임한다. 그것은 내가 자기앞에 맡겨진 창작과제를 어느때나 모가 나게 꼭꼭 해내기때문이다.

하지만 직일교원의 눈에 《영웅동지》로 비쳐진 내 허상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그 반생을 음미해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나의 경력에서는 그래도 속도전청년돌격대시절이 장관이었다. 그때는 쏟아져내리는 산사태도 봉락도 모두 육탄으로 막아냈었다. 그 시절의 우리 삶을 지배한 왕자는 영웅성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그리고 속보로 우리 당이 가리키는 평봉들을 수없이 넘어왔다.

그러나 북방의 건설장을 떠난 다음부터는 속보로가 아니라 평보로 걸어왔다. 내 생활에서 영웅성은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나는 영웅성의 소유자, 창조자로부터 단순한 관조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내 삶은 인생마라손의 중간급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삶이었다.

모교여, 그대는 큰 실수를 했나이다. 한초가 새로우니 어서 그대가 배출한 영웅이 《8번》이 아니라 《9번》이라는것을 전교에 공개하시라. 그리고 《9번》이 철길공사장에서 세운 공로를 한시바삐 후배들에게 소개하시라.

《화가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사람을 헛갈렸다는거겠지요?》

너교원이 이마에 뽀질뽀질 내똥은 땀을 흘리며 송구스럽게 물었다. 영웅이 아닌 사람을 영웅이라고 개울렸으니 얼마나 난처하겠는가.

《그렇습니다. 나의 동창생들중에 나와 같은 성과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명 있었지요. 영웅은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나는 두손가락짚에 펜대를 끼우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뭇 웅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너교원에게 이런 말을 던지고나서 교장실쪽으로 꾸벅꾸벅 걸어갔다. 그러다가 문에 자물쇠가 걸린것을 보고는 소년단실쪽으로 얼른 발길을 돌리었다. 소년단지도원한테 말해서라도 사태를 바로잡고싶었다.

20년전까지만 해도 제집처럼 드나들던 낮익은 그 방앞에서 나는 타향의 생소한 토방돌앞에라도 마주선 사람처럼 어쭙은 자세로 조심스레 손기

척을 하였다.

그러자 두불이 과원의 사과알처럼 빨간 소녀가 문을 반쯤 열고 나를 뺨끄미 쳐다보았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 소녀가 소리를 죽여 묻는 말이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만 방을 헛갈렸구나.》

나는 입속으로 이런 말을 웅얼거리며 소년단실 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문밖으로 별빛처럼 쏟아져나오는 맑은 눈동자들, 그 무엇인가를 따지고드는 듯한 집요한 눈망울들 앞에서 온몸이 가드라드는 것 같은 위축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애들의 입에서 《아, 영웅아저씨》라는 탄성이 한마디만 터져나와도 그것은 《9번》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고 조국이 그에게 안겨준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복도 저쪽 끝으로 황급히 걸어갔다. 교사를 나서자 교재팀 맨구석쪽 돌의자에 쭈그리고앉아 교장선생에게 남길 쪽지편지를 내갈기었다.

《...저는 귀학교의 30회졸업생 김영철입니다. 학창시절에는 <8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금까지 영웅으로 될만한 공로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정령에 소개된 김영철은 제가 아니라 중학시절에 룡구와 <종합학습장>으로 유명했던 <9번 김영철>입니다.

선생님이 정령이 나오자마자 신문을 들고다니면서 내 사랑을 굉장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해놓고 땀땀이 모교를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X》자형으로 접은 편지쪽지를 직일교원에게 맡긴다음 누가 찾을세라 총총히 교정을 나섰다. ...

그이후 나는 휴가를 제대로 즐길수가 없었다.

그래서 귀향 나흘째되는 날에는 나머지 체류일정을 포기해버리고 평양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날은 전국고등중학교부문 룡구경기대회에 도대표팀으로 참가하는 모교의 선수단이 나와 자리를 같이하였다.

우리는 밤이 지새는줄도 모르고 룡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었다. 그밖의 여행은 나와 후배선수들사이에 존재하는 17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의 격차를 령으로 만들어버리었다. 열차가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리인혁은 나에게 전화로 경기대전표와 경기날자를 알려주겠다고까지 약속하였다. 물론 그는 약속을 성실하게 리행하였다.

첫 경기를 일요일에 한다고 하였다.

그날 나는 사이다와 과일을 사들고 청춘거리의 룡구관으로 찾아갔다. 초만원의 룡구장의

화끈화끈한 열기와 선수들의 세련된 경기습씨는 처음부터 나를 흥분의 도가니속에 밀어넣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 재현되고있는 우리의 과거, 아니 그 과거를 뒤에 남기고 멀리로 달려온 우리 조국의 오늘이었다.

나는 눈앞에서 불꽃을 튀기며 펼쳐지고있는 열전의 장면장면들을 손에 땀을 쥐고 부감하면서도 줄창 《9번》을 생각하고 우리의 우정을 무르익혀주던 모교의 룡구장을 생각하였다.

전반전경기가 끝나고 량팀이 휴식에 들어갔을 때 팔애가 불쑥 내앞에 나타나 《X》자형으로 접은 쪽지를 내밀었다.

《이건 누가 주더냐?》

나는 팔애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땀방울들을 보면서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사연을 예감했다.

《우리 집 사진첩에 있는 아저씨!》

팔애는 이 한마디를 무심히 던졌지만 나는 이상야릇한 긴장과 흥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그 아저씨를 어데서 만났지?》

《집에서 ...》

나는 더 길게 캐묻지 않고 성급하게 쪽지를 풀어헤쳤다. 순간 온몸을 후끈하게 하는 한줄기의 열파가 나를 휩쓸었다. 이 세상 모든 필적을 다 뒤섞어놓아도 능히 식별할수 있는 낯익은 청조체의 글자!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쪽지의 임자는 《9번 김영철》이었다.

나는 여러해동안 만나보지 못해 인상조차 희미해진 짝패의 적동색얼굴과 장알이 박힌 큼직한 손을 눈앞에 그리며 쪽지의 글줄들을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그 소박한 글줄들에서는 《9번》의 따스한 입김과 숨결과 심장의 고동소리마저 느껴지는듯싶었다.

《8번 김영철》에게

보내준 축하편지는 반갑게 받아보았네. 고맙네.

원산-금강산사이 철길공사장에서 방금 올라왔네. 기다리다가 국에서 회의가 있길래 총총히 돌아가네.

오래동안 편지 한장 보내지 못해 미안하네만 사실은 몹시 바빴네. 그러나 자네를 한시도 잊은 적은 없네.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던 날 내 심중에서 맨 처음으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나? 자네였네.

생각나겠지? 18년전 그 봄날이. 그때 자네가 내 뺨을 치지 않았더라면 난 일생을 땀땀하게 살아오지 못했을거야. 그날의 그 때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비판가운데서도 가장 맵싸고 사심없는 비판이었네. 그리고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지. 인생의 초엽에서 이 미련한 벼를 위해 채찍질을 많이 해준 자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네.

저녁 7시 황금벌역앞에서 만나자구.

기다리겠네.

(자네의 《9번》)

《9번》, 고맙네. 자네의 뺨을 치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있는데 그걸 오히려 고맙게 여긴다니 나로서는 감개무량할뿐일세.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칠념도 없이 자꾸만 편지를 곱씹어 읽어보았다. 내 머리에서는 하나의 진리가 시상처럼 번쩍거리었다. 사람이 구실을 하려면 채찍맛을 많이 봐야 한다는 진리였다.

하나 그것은 이 롱구관에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진리는 아니었다. 내자신이 중학시절에 《9번》

을 상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했고 또 실천에 옮긴 진리였다.

슬픈것은 남을 위해 것처럼 줄기차게 채찍질을 해온 내가 자기자신을 향해서는 한번도 회초리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 반생의 부진은 그때문이 아니였을가.

잠시후 나는 광복거리의 꽃방에 들러 《9번》에 줄 생화를 샀다.

저녁 7시까지의 한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시간이 나에게는 하루나 한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직 한마디

류동호

동이 트는 아침에도 기다리던 장군님
깊은 밤 꿈결에도 그림던 장군님
친어버이를 모신 강계사람들
드리고싶은 축원
하고싶은 이야기
그 얼마나 많고많았으랴

사나운 북방의 눈보라
대한의 강추위를 헤치시며 천리
백설의 명문령을 넘으시여 천리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첫자욱을
자강땅에 새기신 장군님께
아뢰이고싶은 진정
그 얼마나 뜨거웠으랴

삼가 우리러 감격에 목메이며
눈물에 젖어든 목소리
산악처럼 억센 강계사람들
심장에서 울린 그 목소리는
오직 한마디
-장군님, 일감만 더 주십시오

굽이굽이 깊은 산골짜기
발전소언제우에서 울리던 그 목소리
산기슭에 아담한 55동마을
따스한 전기온돌방에서
안겨주신 은정에 목메여
하나같이 울린 그 목소리

진거름을 등짐으로 지어나르며
봄을 앞당기는 들판에서도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드높은
《나의 공장》 구내길에서도
자강땅에 진정을 담아 울린 그 목소리
-장군님, 일감만 더 주십시오

당중앙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제힘을 믿고 제손으로 만들어내는
오늘의 《강선》 강계땅에서
시대의 선창처럼 터쳐오른 목소리는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며
장군님만 따르는 심장의 맹세였나니

어버이품에 자식들이 안긴 포옹속에
울리고싶은 진정, 나누고싶은 말
자강땅 이르는곳마다 울리는
수력타빈의 동음소리가 다 말해줄을
장군님께서 어이 모르시랴만

로동계급의 의지
로동계급의 신념
그 목소리가 반가우시여
그 목소리가 대견하시여
장군님 조용히 외우시는 그 말씀
조국이 듣고 력사가 새겼더라

-군대에 가도 명령을 달라 하고
여기에 와도 일감만 더 달라고 하누만

강계사람들이 전투적이라고
당이 결심하면 한다는 정신이
꼭 들어찬 정말 좋은 인민들이라고
강계사람들의 자력갱생의 정신을
온 나라에 지펴주신 우리 장군님

아,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충효성의 일념으로 불타는 목소리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세월의 언덕을 넘고넘어
온 나라에 강계정신이 내려치게 할
신념의 맹세는 오직 한마디
-장군님, 일감만 더 주십시오

그대들을 생각한다

리성애

오늘도 거리에 나섰노라
푸른 꿈이 가득찬
두터운 책을 한가방 들고...
어디선가 맑은 바람 타고 날아온다
어린애의 쟁쟁한 목소리

저도 모르게 돌아보니
빨간 가방을 멘 어린애
한 젊은 병사에게
깊이 머리숙여 인사하누나

어쩐지 가슴은 찢어질 듯
줄줄이 쏟아지는 금빛 해살도
애기손 흔드는 가로수 파아란 잎새도
이 거리의 모든것이
병사에게 허리굽혀 절을 하는듯

병사! 그대없이 어찌 있으랴
예나제나 다름없이
찬란한 태양이
축복의 금빛을 뿌려주는
우리의 이 출근길

어찌 있으랴
아침에는 종종 달음쳐갔다가
저녁이면
길거리를 메우며 떠들썩 돌아오는
나의 대학시절 이 벽찬 생활이...

오, 총잡은 병사
총대만이 아닌
그 무엇이
나의 이 모든 생활을 지켜주고
그대들의 그 무엇이
그리도 미덥게 지켜주고있는것인가
생활의 기쁨이 꽃처럼 피어나는
나의 이 거리, 우리의 사회주의를!

1

이 나라에밖에 더는 없다
자폭정신, 육탄정신이란 말
그 위대한 정신을 낳은 혁명군대여
그 정신의 불멸함은 어디에서 왔더나

내 어릴적 아버지에게서
늘 듣던 이야기 생각나라
전화의 그날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은 전사
그를 무너진 화점에서 안아내릴 때
틀어진 나무뿌리가
너무도 짙 잡혀있어서
모두가 가슴을 쳤노라고...

내 다 자라 처녀로 되었을 때
꽃피는 어느 봄날
한 영웅비행사의 비장한 최후를
눈물겹게 들었노라
갓 서른의 젊은 비행사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한몸 나아가 산산이 부서졌다고...

인생이 구만리같은 청춘들
그 하나하나
한없이 작은 존재였어도
그 작은것이 지켜낸
그것은 한없이 큰것이기에

우리 수령님
송개산의 술바람소리 생각깊이 들으시며
떠나간 전사의 고향마을을
영웅의 고향으로
길이 빛내주시였고

우리 장군님
떠나간 전사의 병실을 찾으시여
사랑하는 전사의 뜨거운 숨결을
가슴가득 안아보시지 않았던가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그 길을 가서 돌아오지 못한
이름없는 병사들
그들을 두고 그토록 심려의 밤을
지새우시는 장군님

전사에게 주실수 있는
무상의 영광과 사랑 다 안겨주신
그 위대한 품속에서
오늘도 영웅비행사의 아들은

혁명학원의 넓은 마당을
가슴펴고 걸어가고

그 위대한 품속에서
적후에서 돌아온
이름없는 상등병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화국영웅이 되었다

오, 사랑과 믿음에는
목숨으로 보답해야 함을
우리에게 배워준
혁명군대의 자폭정신, 육탄정신이어!

하기에 내
당과 수령의 믿음에 사랑에
보답의 의무지닌 전사자세
엄숙히 마음 다잡을 때
그대들을 생각한다

내 삶의 순간마다에
결사용위의 모범으로
력력히 새겨진
총잡은 병사, 그대들을!

2

노래는 곧
부르는 사람의 정신이라 한다
노래는 곧
부르는 사람의 힘이라 한다

즐겁고 기쁜 사람만이
노래를 부른다
희망이 있고
배심이 든든한 사람만이
노래를 부른다

희망없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던가?
막막한 인생길 헤매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던가?

설사 부른다 해도
그런 노래는 영탄의 노래이리
설사 부른다 해도
그런 노래는 비탄의 노래이리

우리 군대의 노래를 들어보라
한줄기 그늘도 없고
한점의 티도 없는

우리 군대의 노래

언제나 노래로 사는 우리 군대
언제나 웃어 떠들며
기쁨과 락관에 넘쳐 사는
우리 군대

소박한 중대병실에서
김이 오르는 가마마차우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
얼마나 우리 가슴 부풀게 하는가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망도 있는
그들의 노래

오, 그들의 노래는
끝없는 힘을 날고
승리를 날게 하는
량만의 노래, 투쟁의 메아리

그래서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을 찾으시면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그들의 노래 들어주시는것이리

그들이 부르는 노래 한곡
그들이 짓는 웃음 한떨기
여기서 우리의 장군님은
우리 군대의 힘의 크기를 가늠해보신다
우리 군대의 정신의 크기를 가늠해보신다

우리 군대들이 부르는 노래
다만 노래가 아니여라
우리 군대들의 얼굴에서 피는 웃음
다만 웃음이 아니여라

그것은 그 어떤 총칼도 미치지 못하는
무적의 정신력이다
그것은 수천개의 총폭탄으로도
당하지 못하는
무한대한 국력이다

그 힘, 그 정신이 온 나라에
강행군길에 쌓인 난관
웃음으로 노래로 이기게 하는
불패의 힘, 불패의 정신을 주었다

하기에

자연의 재해가
이 땅에서 난알을 걷어가도
우리의 웃음과 노래는 걷어가지 못했고

하기에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봉쇄의 나날에 쇠약해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념의 강자
힘의 부자가 되었나니

오, 참다운 삶의 노래
지칠줄 모르는 투쟁의 노래를 배워주며
승고한 모범으로 내앞에 서있는
그대들을 생각한다
총잡은 병사, 그대들을!

3

사랑이란 말의 력사
인류의 력사와 더불어 오래다
허나 동지애
그것은 혁명이란 말과 함께
태어난 말

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력사
뜨거운 동지애의 력사로
워어져왔어라

동지애란 혁명이 낳은 사랑
동지애는 혁명이 낳은 재부
동지애는 혁명을 떠메는
가장 위대한 동력

때로는 그 무게가
총폭탄의 무게보다도
더 큰 힘을 낳았음을
자욱자욱 동지애로 수놓아온
우리의 혁명력사가 깨우치고있어라

갓 서른의 짧은 소대장
한몸 비호같이 날려
터지는 수류탄을 덮으며
전사들께 웨쳤더라

-피하라!
그가 동지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오직 이 한마디
그가 이 땅에 남긴 말도
오직 이 한마디

한몸 쪼개어
수천의 가슴에 넣어준
그런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
오, 그것은 혈맥을 같이한
혁명군대의 피의 사랑

장한 전사들의 장거를 보고받으신 날이면
너무도 가슴아프시며
은하수 기울도록 잠못드시며
떠나간 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는분이 계셔라

전사 한명한명을
금싸래기처럼 아끼시며
이름없는 한 전사를 위해서도
바람세찬 령길에 오래도록 서시어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분

아, 눈물이 많으시고
동지애로 뜨거운 심장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 그이의
그 뜨거운 육친의 사랑
그 위대한 동지애가
하나의 혈맥을 타고 맥맥히 흐르는
혁명군대의 피의 사랑의 원천이 아닌가

나 죽어 너를 살리고
나를 바쳐 미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내대여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세상에 없는 사랑철학을 배워준
그대들을 생각한다
총잡은 병사, 그대들을

×

내 오늘 이 저녁에도
인민대학습당 높은 총계를 내려
불밝은 대동교를 건너온다
광풍은 그리 세차도
생활은 예대로 흐르고
이 강반의 불빛은 예대로 밝다

강건너 나의 집에 들어서니
은은한 손풍금소리 나를 반기고
정갈한 책상우엔
방금 꽃아놓은 꽃송이가 방긋 웃는다

나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이
향기풍기며 나를 감싸주는
이 집, 이 불빛을 그리안고
이밤도 전호가에 서 있는

병사여! 나는 그대들을 생각한다

가장 간고한 날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가장 참다운 삶의 진리를
이 가슴에 가득히 채워준 그대들
강행군대오 맨 앞장에
경애하는 장군님과 나란히 서있는
총잡은 병사

오, 청춘의 심장 내대고
조국앞에 내 설 때 생각하리
그대들을 생각하리

내 생활의 순간마다에
숭고한 모범으로 력력히 새겨진
그 이름 인민군대!

내 사랑한다면
그대들처럼 사랑하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대들처럼 노래를 부르고
목숨을 바친다면
그대들처럼 영생의 별로 남게
오, 그렇게 값높이 내 살리라!
병사처럼, 병사처럼

여기에 와보시라

주광일

여기에 와보시라
래일에 살려는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든
오늘날 이 땅을 밟아보시라

강계에서 반나절길
장자강 복천강을 따라 걷느라
가슴 열리는 시원한 호수들을 보게 되리라
이 산천에 태어나 온 나라에 울려가는
신비론 물노래를 종일토록 들을수 있으리

들을수록 새힘 솟고
들을수록 마음 즐거운
청신하고 억센 그 음향
제손으로 제 땅에
전변을 가져온 이고장 물노래

공장에도 농장에도
발전기 돌리며 신나는 물노래
산기슭 이름없는 학교에 들려도
작은 개울을 막아 전기를 일쿠며
제 살림 꾸려가는 흥겨운 물노래

여기선 제 땅의 물이
천금같이 귀하게 쓰이더라
여기선
기운차게 돌고도는 발전기소리도
제손으로 만든것이어서
그리도 자랑 높더라

아 한줄기의 물도
놀며 가지 않는 땅
산천은 교요해도
불같은 이 사람들의 열정을 싣고
전류가 되어 대하가 되어
소리치며 흘러드는
오늘의 강이여

내 변화한 평양에서 온 도시사람이건만
처음 보는 별세상에 머물러있는듯
전기온돌 훈훈한 이 산골의 려관방에서
두고온 집생각도 잊었노라
더 좋은 래일을 이 땅에 펼치려고
산을 뚫고 언제를 막아 발전소 늘여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고싶구나

오 어려운 강행군을 하는
어머니조국 위해
제일먼저 심장을 불태운 사람들 여기 있어
펼쳐진 언제의 호수들이 그리도 수려하고
이 산천의 물노래를
온 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것 아니더냐

여기에 와보시라
래일에 살려는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든
락원의 행군길 걷는
이 땅에 한번 찾아와
애국의 푸른 가슴 흠뻑 적시고 가시라

필레꽃마을의 향기

김원선

기자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흡족한 내 마음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이번에 나는 성과있는 취재길을 걸었다. 소문없이 일잘한다는 복방의 한 중소형발전소건설자들을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울 결심을 품고 달려붙어 많은 일을 해놓았다. 가치는 있는 글감을 찾아쥐었다고 할 수 있다.

출퇴근할 때 늘 들고다니는 보통 들가방은 갈때와 마찬가지로 무겁기와 부피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취재내용은 알찬 것이었다. 그 알찬 내용을 무엇이든 이름할 수는 없었지만 시대의 줄기찬 흐름을 담은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도 내 귀전에는 위훈의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던 청년돌격대 대장의 말이 그대로 여운으로 남아있다.

《비결이 따로 있나요. 저기 우리를 부르는 당의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당에서 결심하고 우린 하면 됩니다!》

돌격대장은 소박한 웃음을 담고 맞은편 담벽을 가리켰는데 거기 써붙인 구호들에서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글발들이 살아움직이는 듯 나의 눈에 날아들었다.

흥겨운 내 기분에 떠밀리우듯 렬차는 질풍같이 달린다. 두만강-평양행 급행렬차의 속도도 좋지만 차창으로 비끼는 바깥풍경이 더욱 황홀하다. 차창에는 한동안 아름다운 동해의 경치가 펼쳐지더니 이어 단층문화주택들이 들어앉은 어촌마을을 지나 크고작은 구조물로 형성된 공장구내를 펼친다. 차체를 흔들며 작은 역구내를 지나칠 때조차 렬차는 기세를 늦출 줄 모른다.

내가 탄 차칸안의 손님들도 좋은 기분으로 여행하는 모양이다. 생활에 대한 낙관을 담은 듯 얼굴표정들이 다 밝고 말투도 정답다. 무슨 화제이든지 관심하고 싶어하고 서로 긍정해주고 웃어준다.

같은 차칸에서도 무릎을 마주한 여섯손님이 마치 하나의 식솔같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여섯이 한단위가 된다. 내앞에는 도병원의사로 일한다는 중년사나이 그리고 맞은편 의자엔 자기 초소가 한평방방에 안되는 면적을

가지지만 신성한 높이로 불리우는 교단이라고 자랑담아 말하는 고등중학교교원과 립산사업소로 동자... 시발점에서 차에 올랐는지 창가의 두자리에는 예순살을 켜 넘겼을 머리 흰 어머니와 딸로 보여지는 해말쭉한 처녀가 창턱에 팔을 올려놓고 마주앉아있었다.

우리 여섯사람중 이야기에 끼여들지 않는 사람은 창가에 앉은 처녀뿐인데 그도 분명 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으나 내내 창밖을 내다보고있어 그의 얼굴새조차 알 수 없었다. 앞에 앉은 어머니가 《붕심아, 이제 점심을 좀 먹으려무나.》 하고 권했을 때 《아직 먹고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 하며 고개 돌렸을 때야 나는 처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음, 괜찮은 처녀로군!)

처녀에 대한 첫인상을 나는 좋게 받았다. 아마 그것은 머느리를 맞아야 할 내 나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심정인 것 같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희맑은 살결, 오목오목 복스러운 곡선미를 이룬 얼굴부위들... 생김새처럼 목소리도 아름답고 행실 또한 바르게 보여지니 나이찬 아들자식을 둔 부모로서 탐이 날만도 하였다.

우리 여섯사람중에서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 기자의 본능이라 할가 나는 주로 듣는데 읊하고 도병원의사와 고등중학교 선생은 사업과 생활 문제를 놓고 이따금 교훈적인 말을 할뿐 이야기를 벌려놓지 않았다. 이자리의 좌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창가에 앉은 어머니는 자기 마을엔 필레꽃이 유명하여 여름한철이면 흰색, 연분홍색 필레꽃덤불로 둘러싸이고 그 향기도 짙 차 신비한 지경이라는 고향자랑외에 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다사한축인 립산사업소로동자라는 청년만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의 말은 조리가 없어 소설적표현을 빈다면 형상력이 부족하여 들을 재미가 없었다.

그렇지만 여섯중에서 화제의 선수는 자기라는 듯 립산청년이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였다.

렬차방송원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중동무이시키었다.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맨 앞칸 영예군인자리

에는 의족을 교체하려 병원으로 가는 영예군인 손님이 타고있습니다. 의사의 방조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 부문을 전문하는 의사손님이 있으면 앞차칸으로 와주십시오.》

손님들은 정숙해서 방송원이 거기에 있기라도 한듯 일제히 고성기를 울려다보았다. 방송원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모두가 근심하는 기색들이다.

(혹시 이 손님이?!) 하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치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며 의사를 부르는 방송원의 말이 반복되고 우리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은 도병원의사에게 집중되었다.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군!》

도병원의사는 의사의 본연에서인지 혹은 사람들의 눈길에 떠밀리워서인지 움쭉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손가방을 찾아들고 사람들을 비집으며 앞차칸쪽으로 걸어갔다.

(됐구나! 의사가 갔으니 영예군인의 불편도 가셔지겠지.)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되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손님들의 얼굴에서도 긴장감이 풀린다.

그런데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뜻밖에도 이번에는 창가에 앉았던 봉심이라는 처녀가 선뜻 일어서더니 선반우에서 큼직한 들가방을 내려우는것이 아닌가!

《저도 좀 가보겠어요. 어머니.》

봉심이는 속삭이듯 말하고 역시 앞차칸으로 바삐 걸어갔다.

두사람을 앞차칸으로 보내고나서 우리 넷은 덤덤히 앉아있었다. 여섯중에 둘이 의료일군이라는 데서 오는 자각과 안도감 그리고 영예군인의 불편을 덜어줄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얼굴은 차츰 밝아지었다. 참으로 한 영예군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걱정해주고 위해 주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은 온 차칸안을 짝 채우는듯싶었다.

또다시 작은 역을 통과하는지 차체가 흔들리고 크지 않은 역건물이며 구내전주대, 신호등들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어느사이에 차창밖으로는 푸르러가는 벌판이 펼쳐졌다. 멀리 야산에는 가지각색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 앞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펼쳐쳐나와 농사일로 들끓고있었다.

딸을 대신하듯 이번에는 어머니가 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나 농사를 잘 지

어 먹는 문제를 완전히 풀려고 벌이 미여지게 펼쳐쳐나 농사일을 다그치는 사람들의 숨결을 듣는듯, 아니면 찔레꽃 활짝 핀 향촌의 풍경을 그려보는듯 어머니는 반쯤 열어놓은 창문으로 흘러드는 세찬 벌바람도 다 마시며 움쭉앉고 앉아있었다.

《어머니 사시는 마을에서도 농사일로 들끓겠지요?》

나는 어머니의 세계에 뛰어들고싶은 생각이 들어 넋지시 말을 던졌다.

《올해농사를 잘 짓자고 달라붙었지요. … 우리 찔레꽃마을은 산골이라우. 논은 있지만 얼마안되고 그대신 밭은 걸어 곡식이 잘되는데 조상대대로 오곡을 빼놓지 않고 심어오지요.》

어머니는 《우리 찔레꽃마을》이라는 말에 억양을 넣으면서 벼, 기장, 조, 보리, 콩 등 오곡이 무르익을 때면 사람들의 정신은 벌에가있다고 하면서 기자선생도 가을에 와보라고까지 하였다.

《어머닌 정말 훌륭한 고장에서 훌륭한 딸을 두고 사십니다.》

향토애가 물씬물씬 풍기는 어머니의 말에 감심되어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말에 어머니는 대뜸 의혹을 품었다.

《딸이라니 혹시 봉심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자 금방 앞차칸으로 간…》

《오, 그렇게 여겼구만요!》 어머니는 그제야 의혹을 풀며 내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앤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사는 영예군인의 색시라우. 제 남편을 위해서 나들이를 떠나기에 나도 따라나섰지요.》

《그래요?!》

놀라움에 찬 목소리는 나한테서가 아니라 말선수를 떼운적 없는 립산청년의 입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들먹이였다. 조국의 초소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하고 나선 처녀들… 당에서 것처럼 기특하게 여기고 내세워주는 인간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직접 기사도 쓴 나였지만 렬차칸에서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 참된 인간전형으로 살아있는 모습들, 그들은 봉심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들인것이다.

우리의 심중을 리해한듯 어머니는 조용조용한 어조로 말하였다.

《봉심인 우리 고장의 본토배기두 아니구 의사

두 아니라우. 그저 찔레꽃마을에 굴러온 보배지… 그애가 시집와서 찔레꽃마을은 더 화목해지구 소문도 났지요. 세간살이 잘못해서 손가락질받던 옆집은 버쩍 정신을 차리구요.》

《봉심동무가 사람을 닦아세우는 솜씨도 보통이 아닌 모양이군요.》

역시 흥분잘하는 림산청년의 말이다.

《무슨 말을… 봉심인 남한테 싫은소리 한마디, 혼시 한번 할줄 모른다오. 그저 행실로 이끌뿐이지… 옆집이 어쨌는지 아우? 남편은 말새 많고 덜통하다고 색시타발, 처전은 세간살이 등한하다고 남편타발… 다 제 리속부터 생각하는 덜된 심보들이지요. 내외싸움은 밖으로 새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농장일에도 지장을 주고… 그런데 바로 봉심이가 옆집에 사는 두다리 잃은 영예군인한테 시집을 오지 않았겠소. 원래 그앤 군대주둔지역마을에 살았는데 인민군병사가 큰일하다가 부상당해 제대되었다는 말을 듣고 병사의 고향인 우리 찔레꽃마을까지 찾아왔단말이요. 하지만 봉심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저게 실지 일생을 같이할 결심을 품구 찾아왔을가 하고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로 옆집 불화쟁이네가 말이요.》

어머니는 문득 말을 끊었다. 저마끔 말장단을 퍼놓아 법석하던 차안이 조용해진데서 이상한 기미를 느낀모양 어리둥절해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실감있는 얘긴데 모두가 들으면 좋은 일이지요.》

나는 진심으로 우리나라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재촉하였다.

《그럼 마저 얘기하지요. 내가 어디까지 말했더라… 오라. 더러 봉심의 소행을 못미더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말이요. 그러나 웬걸… 키는 작달막해두 일에 들어서서는 남정들 찔끔먹게 걸싸구 집살림 꾸려나가는건 어떻게나 알심있었던지 옆집과 판판 대조가 됐다우. 팔다리가 성성한 집에선 만날 티각태각하는데 영예군인네 집에선 깨가 쏟아지지… 게다가 남편이 군대나갈 때 다니던 전문학교공부를 마저 시킨다구 봉심인 공부할 책들을 구해주는건 물론 선생님까지 모셔온다우. 그리고 남편이 우리 찔레꽃마을 풍토에 맞는 무슨 곡식종자를 연구한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도 다 봉심이가 구해주었다우. 이제 그게 성공하면 농사에서 큰 은을 낸다고 하오. 그러다가 요즘은 영예군인 그사람의 의족을 교체할 때가

되어 남편대신 봉심이가 의료기구공장에 갔다오는길이라우. 영예군인을 돕는 일이지에 나도 따라나서구요. … 하긴 그애도 이제는 홀몸이 아닌데…》

안할 말을 한듯 찔레꽃마을 어머니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아, 봉심이가 그런 녀자였구나!)

어머니의 말에 나는 새로운 감흥을 받아안았다. 림산청년도 말참견은 없었지만 얼굴에 감동의 빛을 담았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심정들이다.

《봉심인 복을 안고사는 녀자라우. 복이 뭐겠소. 예로부터 제일루 값있게 일러왔고 오늘날엔 우리 장군님께서 조선민족모두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고 참된 정치를 펴시는데 봉심이는 바로 장군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라에 활짝 꽃피우려고 애쓰는게 아니겠소… 봉심인 복을 누릴줄도 알구 남들이 누리게 할줄도 아는 말그대로 복덩이지요!》

심중의 말을 하는 어머니의 낮빛은 경건하였다. 찬란한 미사려구도 없고 목소리도 아름답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 어떤 웅변대회장의 청높은 목소리도 대신할수 없는 깊은 뜻과 높이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울려주는것이였다.

그러는사이 도병원의사와 봉심이가 돌아왔다. 손님들의 시선은 일시에 두사람한테로 쏠리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예군인손님은 무사한가요?》

이구동성으로 묻는 말들이다.

《일없습니다. 영예군인의 불편은 가셔졌습니다. 본인의 불찰로 의족한것이 탈구되었는데 다 제대로 되었으니 걱정을 놓아도 됩니다.》

도병원의사가 자리에 앉으면서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봉심이는 들가방을 당반우에 올려놓고나서 가기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기자리에 앉아 역시 창밖만 내다보았다. 하지만 영예군인한테로 달려갈 때의 팽팽했던 긴장성대신 얼굴엔 부드러운 표정을 담았다.

우리 네사람뿐이 아니라 옆의자에 앉은 사람, 자리를 못잡고 서있는 사람조차도 저마끔 도병원의사에게 감사의 눈인사를 보내며 치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에 씩스러움을 느낀듯 도병원의사는 화해 손을 내저었다.

《여러분, 이리저 마십시오. 이거 뭐 주객이 전도되누만요. 사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나야 명색이 의사이지 외과전문이 아니다보니 심지어 영예군인동무를 방조하는데는 저 봉심동무의 몫이 더 컸습니다. 저 동무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압니까? 보조심피가 있었습니다.》

보조심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그것이 의족을 한 영예군인한테 절실한것임을 알수 있었다.

봉심의 가방의 비밀을 알고있는 단 한사람인 짚레꽃마을 어머니가 그 말에 주를 달았다.

《네가 남편의 다리에 꼭 맞겠다고 그걸 얻어가 지구 그렇게도 기뻐하더니 그 사람한테 내주었구나. ... 용타, 제 남편만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우리 영예군인들을 다 돌봐주려는 네 마음은 역시 갈데 없구나!》

《어머니두... 무슨 그런 필요없는 말씀을...》

봉심의 얼굴은 금시 빨강게 물들었다. 제가 없는사이 어떤 큰 비밀이 로출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봉심이였지만 지금 한 말에서도 부끄러움을 느껴 어쩔줄 몰라하였다.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 더 하려는데 봉심이가 막았다.

《됐어요. 어머니, 전 돌아가서도 그걸 만들수 있어서 그랬어요.》

《오냐, 네손으로 만들수 있구말구. 애두...》

감탄이 슴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초리도 축축히 젖어들었다.

이제는 우리 차칸손님들이 고향자랑도, 말장단도 하지 않는다. 립산청년도 화제의 주도권을 쥐려고 맘쓰지 않는다. 서로 말이 없고 웃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감정세계는 새로운 경지로 승화되었다. 그 감정세계의 중심에는 자기 자랑 한마디 없지만 의연히 봉심이가 서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봉심이 한 녀성에 한한 일이

라. 이 렬차에 봉심이와 같은 인간들이 한돌이 뒀으랴. 전국도처에 훌륭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품은 마을이 어찌 봉심이네 짚레꽃마을뿐이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키워주시고 내 세워주시는 우리 시대 청년들, 그들이 창조하는 인간미풍의 극치들, 그것이 오늘 내가 타고가는 급행렬차칸에도 그대로 옮겨졌으니 우리 나라에는 무수한 봉심이들이 살고있고 그들이 창조하는 시대의 미풍은 짚레꽃마을의 향기마냥 온 사회를 진한 향기로 꼭 채운다.

불현듯 짚레꽃마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복을 안고산다는 봉심이, 복을 누릴줄도 알고 창조할줄도 안다고 긍지를 담아 말하던 촌놈은이의 말이 새로운 의미를 담고 되새겨지는것이였다.

정녕 봉심이는 이 세상 만복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듬뿍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그대로 활짝 꽃피울줄 아는 인간이다. 복을 안고사는 인간의 품모는 영예군인들에게는 정성의 샘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미풍의 습결이 되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곧 일심단결의 기초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받드는 지반이 아니겠는가!

불현듯 봉심의 얼굴이 내가 갔던 북방건설장의 청년돌격대장의 얼굴로 바뀐다. 그렇다. 남을 위하는 깨끗한 마음, 희생성, 헌신성... 이것이 청년돌격대원들이 발휘한 힘의 원천이고 위훈의 비결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의 취재성과는 더욱 풍만해진다. 그 성과를 담보해주는 알찬 내용들도 석연해진다.

기자들이 골라잡아야 할 글감은 어디에도 있다.

복을 안은 인간들이 많고많아 부강해질 내 조국의 방방곡곡은 그대로 우리 시대 전형들의 보금자리이고 글감의 산지이다!

가사

장군님의 인민행렬차

김봉은

조국땅 누벼가는 장군님의 인민행렬차
해빛안고 달린다 별빛안고 달린다
전사들을 찾아서 인민들을 찾아서
사랑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백승을 떨쳐가는 장군님의 인민행렬차
진펄길도 헤친다 먹구름도 헤친다

지상락원 가꾸며 조국통일 당기며
쉽없이 달린다 변함없이 달린다

붉은기 휘날리는 장군님의 인민행렬차
령을 넘어 몇천리 들을 지나 몇만리
달려가는 그 길에 헤쳐가는 그 길에
행복이 넘친다 내 조국 빛난다

질어가는 단풍

전송희

1

도림업총국 산림처 지도원인 림선경은 밤이 껴 깊어서야 집에 들어섰다. 어머니 윤숙임이 벌써 레 반색하며 맞아주었다.

《선경이로구나. 왜 인제야 오느냐?》

《뽕흥리 나무모밭을 돌아보느라고 늦었어요.》

진흙이 묻은 운동화를 닦아 신발장에 올려놓으며 선경이가 지친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녀라는게 이게 뭐냐? 옷방으로 올라가서 옷부터 갈아입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어머니가 부산을 피웠다.

선경은 집안의 분위기가 어쩔지 여느날과 좀 다르다는것을 느꼈다. 고소한 음식냄새며 안방에서 두런두런 나는 말소리, 가느다란 담배연기...

《어머니, 누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등을 떠밀리우며 선경이가 물었다.

《오, 손님이 왔다. 널 만나려구.》

선경은 의아해하며 자기 키를 훨씬 넘는 커다란 삼면경대앞에 와 섰다. 어느새 어머니가 옷장문을 열고 외삼촌이 사다준 봄가을 달린옷을 꺼내들었다.

《그 작업복을 벗고 이걸 입어라. 어서!》

잠간사이에 선경은 끈색작업복을 벗어버리고 까만 바탕에 흰점이 다문다문 박힌 보들보들한 달린옷을 갈아입고 거울앞에 섰다. 옷입는것을 거들어주던 어머니가 거울에 비쳐진 선경이를 아래위로 쪽 훑어보더니 흐뭇해서 말했다.

《우리 선경이가 곱진 곱구나. 목이 쭉 빠진게. 사실은 총각이 네 선을 보려구 왔다. 얼마나 미끈하게 잘 생겼는지. 지방건설총국인가 하는곳에 있는데 글썽 너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찾아왔다는구나. 원 저런 복덩이가 제발로 굴러들다니...》

선경은 저도 모르게 당황해지는데를 어쩔수 없었다.

그런 딸을 정겹게 지켜보며 어머니가 재촉했다.

《어서 화장도 하고 머리로 좀 빗어라. 내 얼른 부엌에 나갔다오마.》

어머니가 나가자 왜서인지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이윽고 선경은 거울에 비쳐진 지기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해맑은 살결에 단아하고 섬세한 미모를 지닌 선경의 얼굴은 아직 화장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 오히려 화장품을 대면 처녀의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손상될것 같았다.

선경은 지금 입고있는 앞가슴에 은빛브로치까지 달린 달린옷이 자기에게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린다는것을 알아차렸다.

3년전 대학을 졸업하고 도림업총국으로 갓 배치되어왔을 때 선경은 아직도 단발머리 녀학생터가 배여있는 애리애리한 처녀였었다. 그런데 그 애리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인제는 세련감이 풍기는 한 처녀가 어느덧 눈귀에 가느다란 실주름이 잡힌 그윽한 눈으로 자기를 감상하고있었다.

(내가 선을 본다구?)

선경은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다음순간 그의 얼굴에는 타는듯한 혈조가 스쳐 지나갔다. 선경의 눈길은 삼면경대 끝모서리에 끼워놓은 빨간 단풍잎에 가뻐었다. 처녀의 마음속깊은곳에서 울리는 애타는 부르짖음이 신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진규동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래 나같은건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요?)

거울속의 선경의 눈에서는 어느새 진한 눈물방울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왜 우는걸까? 배반당한 아픔때문에? 정말 내가 배반당했을까? 누군가 말하기를 녀자가 흘리는 한방울한방울의 눈물은 사나이에 대한 신랄한 절규라고 했지. 하다면 이 눈물은 진규동무에 대한 원망과 증오란말인가? 아니다. 나의 눈물은 증오가 아니다. 나는 지금 그가 그리워서 울고있다. 여전히 나는 그를 사랑하고있는것이다.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증오하려고 애쓸수록 나는 왜서인지 그가 그림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끌려가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한 그리움으로 불타고있는것이다.)

아름답고도 아픈 첫사랑의 추억이 처녀의 심장을 못견디게 허비고들었다.

×

그 시절 선경은 그가 왜 그렇게 싫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 거만한 소년이 새로 온 다음부터는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가 미워서 견딜수 없었다.

가무스레한 살결에 짧게 깎은 상고머리, 찌르

는듯한 눈빛, 날카로운 코마루, 고집스럽게 꼭 다물린 입, 눈에 뜨이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흔히 날과람있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소년이었다.

뭐가 그리도 싫었을까? 늘 남들의 뒤전에 서서 침묵속에 지켜보기만 하는 그 찌르는듯한 눈빛이 싫었을까? 아니면 너무 꼭 다물고있어 마치도 양다문것 같이 느껴지던 그 입이 싫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선경이가 그토록 싫어한것은 그애의 남달리 파묵하고 어른스러운 행동거지였다.

고등중학교 6학년에 갓 진급한 열여섯살난 처녀애였던 선경은 그때 제노라고 하는 학교사로청 위원장이었다.

시건설사업소 지배인을 하는 아버지 림옥은 늦 자식인데다가 외동딸인 선경이를 몹시도 애지중지하였다. 그는 딸애가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싶어했다. 딸애를 아들맛잡이로 키워온 그는 선경이가 어느 측면에서나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를 바랬다. 선경은 공부도 이악하게 잘했을뿐아니라 커가면서 인물 또한 뛰어나게 고왔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자존심이 강한 처녀로 자랐던것이다.

그런데 새로 온 김진규라는 애가 선경이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상하게 만들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애는 아버지가 어느 군 산림경영소로 조동되는바람에 도시에 있는 외할머니네 집에서 중학교를 마쳐 마치게 되었다는것이다. 새로 들어온 첫날부터 그애는 몹시 침울해 보였다. 그 누구와도 말을 걸지 않았다. 옆에 앉은 애에게도 몇가지 필요한것을 물어보았을뿐이었다.

중학교졸업을 앞둔 사내애들이란 소란스럽게 그지없다. 비록 걸으로는 어른흥내를 내느라고 하지만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그 어떤 영웅심과 모험심에 들떠있는 그 나이 특유의 성질만은 감출수없는것이다.

그런데 진규는 열흘이 지나고 한달이 가까와오도록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찌르는듯한 눈길로 떠들어대는 아이들을 어른스럽게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었다. 사내애들을 찢찌먹는 말팔랭이 처녀애들조차도 새로 온 소년에게만은 감히 말을 걸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말을 걸면 그 무뚝뚝한 소년이 화라도 벌컥 낼것 같아서였다.

어느날 수학시간이었다. 안경쟁이 명희선생이 설명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면서 그 진규라는 애를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방금 배운 문제풀이방법을 레들어 설명해보라고 하였다.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애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는 금시 얼굴이 빨개지더니 《모르겠습니다.》 하고 단마디로 대답하고는 앉아버렸다.

몇몇 애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선경이도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또 어느날엔가는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응용문제를 칠판으로 조용히 걸어나가 식은죽먹기로 풀어치우는바람에 명희선생은 물론 온 학급애들이 입을 딱 벌렸다.

날이 지나감에 따라 온 학급, 온 학교가 새로 들어온 학생이 뛰어난 수재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사내애들은 곧 그와 친숙해졌으나 처녀애들은 여전히 키가 큰 그 소년을 은연중 어려워했다.

외국어학과경연성적게시판의 1등자리도 선경이는 그 진규라는 애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애는 대단한 정열가였다. 아무 일에서나 이악쟁이인 선경이는 속으로 안달이 나서 더 극성스럽게 공부를 해냈다. 그러나 도무지 진규를 따라앞설수 없었다. 게다가 진규는 선경이따위는 경쟁대상도 안된다는듯 별로 신경을 쓰는것 같지도 않았다.

이것은 선경이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그 말없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소년이 몹시도 미웠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후날 그들사이에 끊을수 없는 인연을 맺어주게 될줄이야...

×

《림선경동무이지요? 지방건설총국 자재과 지도원 현인걸입니다.》

보기좋은 키, 역실역실한 눈에 금테안경을 낀 청년이 방안에 들어서서바람에 선경은 회상에서 깨어났다.

《처음 뵈겠어요.》

선경이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사리를 권했다.

검은색양복을 입고 흰 와이샤츠에 넥타이를 산뜻하게 받쳐맨 청년의 모습은 점잖고 의젓해보였다.

선경이는 첫눈에 그가 사내답게 대범한, 못처녀들의 선망어린 눈길을 모을 총각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웬일인지 속이 후두둑했다.

《선경동무, 절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구면이지요. 현재 진행되고있는 지방건설용통나무때문에 내가 한번 동무를 찾아갔었지요.》

선경은 기억을 더듬어갔다. 그의 넥타이핀에서 새파란 불빛이 부서지는 순간 선경은 드디어 이 멧쟁이청년을 생각해냈다.

열흘전에 통나무지도서때문에 선경이를 찾아왔던 그 인상좋은 청년이었다. 그것은 어느 한 기업소의 건설용통나무지도서였는데 엄청나게 많은량을 요구하면서 지도서를 줌 그렇게 고쳐달라고 애걸하다싶이 부탁하는것이였다.

《건설용통나무지도서는 그이상을 초과할수 없

어요.》

선경은 더 흥정할나위도 없다는듯이 단마디로 거절해버렸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이상 말을 비치지 못하고 계면쩍은 웃음을 띠우며 돌아가버렸다.

선경이가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것은 그날 그가 안경을 끼고있지 않았고 양복이 아니라 잠바를 입고있었기때문이었다.

선경은 점차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무엇때문에 나를 찾아왔단말인가, 혹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하다나니 전 잘...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통나무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니까요.》

선경은 눈을 내리깔며 답답한 어조로 말했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무의 직업이야말로 무겁고 책임적인 사업이지요. 이거 이런 좌석에서 사업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전 늘 일에 몰리워살다나니 녀성들과의 교제술은 이렇게 영 감잡이지요.》

그러나 선경은 자기앞에 마주앉은 이 사람이 《감감》인것이 아니라 녀성들과의 성공적인 교제만을 터득해온 사람이라는것을 룡감으로 느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인결은 정작 처녀앞에 서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갑자르느것 같았다.

선경은 이 따분한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쑥 말을 꺼낸다는것이 《눈이 나쁘신 모양이군요...》 하고 말해버렸다.

《아, 이것말인가요?》

현인결은 바쁜 모퉁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내뻗 표정으로 안경을 벗어들었다.

형광등불빛아래서 번쩍거리는 누런 금테를 보면서 선경은 저 사람의 억실억실한 눈은 안경을 끼지 않은것이 더 보기 좋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인결은 깨끗한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정성스레 닦기 시작했다.

《눈이 나쁜 사람만 안경을 끼는것이 아니지요. 뭐 듣자하니 요즘은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도수안경을 끼는것이 추세라지요. 하하하...》

현인결은 자못 호방스럽게 웃었다.

《아니 전 그저...》

선경은 말을 얼버무렸다.

현인결은 웃음을 거두고 집짓 정색한 목소리로 다음말을 이었다.

《선경동무, 난 동무를 본 첫순간에 벌써 동무를 오래전부터 알고있었고 사귀여왔던것처럼 생각되더군요. 바로 이런것을 두고 사람의 연분이라고 해야 할지... 왜서인지 동무의 그날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다시한번 더 만나보고싶었습니다.

선경동무! 제 심정을 부디 리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인결은 안경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상대편의 응답을 기다리는것 같았다. 사랑을 갈구하는 현인결의 목소리는 남성중음가수와 같은 듣기 좋은 목소리였으나 이상하게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쩐지 거짓이 느껴졌다.

선경은 안경알속에서 슬며치는 현인결의 눈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렇다!

지나치게 세련된 이 사람의 행동에는 은폐된 위선이 있었다. 선경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인결동무! 저같은 녀자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들은 저의 사생활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고계신답니다. 제겐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례했어요.》

선경은 영화대사라도 외우듯 아무런 억양도 없이 또박또박 단숨에 말해버렸다. 현인결의 얼굴은 금시에 굳어지는듯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였고 그의 얼굴에는 또다시 사람좋은 웃음이 떠올랐다.

《실례는 그만 내가 했는가 봅니다. 동무같은 아름다운 처녀에게야 애인이 없는것이 비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하하...》

여유있는 웃음이었다. 그는 어떤 정황에 부닥쳐도 자기 체면을 유지할줄 아는 사나이였다.

《대학시절 평양에서 사귄 애인이겠지요? 아 이거 내가 또 실례했군. 그러니까 전 오늘까지 동무를 두번 만났었는데 두번 다 거절만 당한셈이군요. 어찌겠습니까. 생활인데... 우리야 이미 사랑을 시와 노래로 여길 그런 나이도 아니지요. 앞으로 사업상 용무로 만날 기회도 적지 않겠는데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웃으며 헤어집시다.》

《고마워요.》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선경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현인결도 따라 일어섰다. 문을 여니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멀어져가고 앞에는 얼굴에 노여운 빛을 잔뜩 띠우고 어머니가 서있었다.

...기이한 인연들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마도 생활인가싶다.

며칠후 선경은 현인결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만난곳은 선경의 사무실에서였다.

《선경동무! 사실 동무와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생활은 생활이고 사업은 역시 사업이니까요.》

아량있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서두를 때며 현인결은 옆구리에 낀 서류가방을 열더니 하얀 종이장 하나를 꺼내들었다.

선경은 또다시 출현한 이 사나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야릇한 호기심을 거의 동시에 느끼며 열결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니 이견...》

선경은 되묻는듯한 시선으로 인걸을 바라보았다.

《예, 제가 얼마전에 동무에게 들고왔던 그 건설용통나무지도서입니다. 그때 거절당하고 나는 예라 현지에 내려가 그곳 산림보호원동무와 <사업>하여 해결하자고 생각했었지요. 왕복 200리가 넘는 길을 자동차를 잡아타면서 겨우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대봉산보호원은 융통성이라고는 정말 꼬물만큼도 없는 쫄쫄이더군요. 나이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그 고집이란 정말... 지도서에 밝힌 량외에는 한대도 더 줄수 없다는거지요. 나무 몇대 더 찍는다고 산에 자리가 나는것도 아닌데말입니다. 아마 한뼘 산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없이 살다나니 속이 트이지 못한 사람같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현인걸은 피곳 선경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처녀의 얼굴에는 종잡을수 없는 표정이 비껴있었다.

《산림일꾼인 동무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것이 실례인줄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원칙 하나만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선경동무!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실은 이번에 통나무를 받게 되어있는 그 기업소의 지배인이 하나밖에 없는 제 삼촌입니다. 제가 오늘과 같이 자재일꾼으로 자라기까지는 삼촌의 도움이 컸지요. 인간적으로 부탁하더군요. 건설용통나무계획을 좀더 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조카에게 처음으로 한 부탁인데 차마 모른다고 할수 없더군요. 삼촌 개인의 일도 아니고 공장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 공장일이 잘되고 종업원들이 잘사는게 나나 동무에게도 좋은 일이겠지요.》

현인걸은 침착하고 조리있게 이야기하고있었는데 목소리가 들음직했고 눈빛도 매력있으며 자세 또한 레절바르고 점잖았다. 그 흐트러지지 않은 각듯한 례의와 솔직한 이야기는 오히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선경을 궁지에 몰아갔다.

어쨌든 그의 사업의욕과 정열에 리해가 가기도 했다. 선경은 자기가 현인걸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이 문제를 단마디로 거절해버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래 동무가 요구하는 그렇게 많은 수량을 채벌할만한 림지가 그곳에 있던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봉산에는 다른곳에 비하여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교통도 비교적 편리하지요.》

선경동무! 사나이의 자존심도 꺾버리고 부탁합

니다. 지도서를 좀 고쳐주세요. 동무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현인걸이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이번에도 동무가 또 거절한다면...》

선경은 채 끝맺지 못한 그의 뒤말을 알아차렸다. 뒤이어 그리 유쾌하지 못했던 그밤의 일이 떠올랐다.

이번까지 딱 잘라버리면 좀 지나친 감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인간에게 자신이 그렇듯 매정스러운 녀자였다는 인상은 주고싶지 않다는 처녀의 심리가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고있었던 것이다.

선경은 잠간동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와 함께 래일 대봉산으로 가봅시다. 처장동지와도 토론하겠어요. 우선 현지에 내려가 실태확인을 하고 그곳 보호원동무도 만나본후에 결심하도록 합시다.》

2

현인걸과 선경이를 적체함에 나란히 태운 자동차는 산골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처녀의 까만 머리태와 연분홍빛 머리수건이 자동차의 장식마냥 보기 좋게 휘날렸다. 설새없이 나타나는 굽인돌이들, 이따금씩 마주 달려오는 높고 길다란 구호들, 끝없이 끝없이 잇대여지는 우중충한 산발들, 가을철답게 울긋불긋 단장한 룡선들...

자동차가 벼랑굽이를 돌 때였다. 선경이는 몸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현인걸이쪽으로 쏠려였다. 인걸은 재빨리 선경을 부축해주며 처녀가 무안해하기라도 할가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선경은 얼굴을 붉혔다. 그의 아량과 친절은 왜서인지 선경에게 무엇이라고 딱히 찍어 말할수 없는 위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차는 여전히 벼랑굽이를 돌고있었다. 첩첩히 겹쌓인 벼랑은 방금이라도 무너져내릴듯싶었다.

(아, 진규동무가 나를 구원해준곳도 바로 이런 벼랑산이었지...)

처녀의 생각은 또다시 잊을수 없는 첫사랑으로 줄달음쳐갔다.

×

졸업을 앞둔 어느날 학교에서는 졸업반학생들로써 새로 말하는 《청년림》에 대한 식수사업을 조직하였었다.

가파로운 산밭을 타며 잣나무를 옮기던 선경이네 학급은 나무모가 도착할 때까지 땀도 들일겸 산중턱에 모여앉아 오락회를 벌려놓았다.

처음에는 처녀애들로 시작한 오락회가 남자에들까지 합세하는바람에, 더구나 그런데는 머리를 잘들이밀지 않는 진규까지 끼여드는통에 더욱

더 흥취가 났다. 그의 노래를 들어볼 심산으로 모두가 달려붙어 집중공격을 들이쳤다.

그 순간이었다. 산 옷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웨침이었다.

《돌이 군다! 피하라!》

웃고 떠들던 온 학급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 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돌덩어리가 잡판목을 짓이기고 나무그루터기에 걸쳐여 허공 쳐들리면서 선경이의 정수리를 향해 곧바로 달려들고있었다.

바로 그때 진규가 《비키라!》 하고 소리치며 경사면을 뛰어올랐다. 놀라 굳어져버린 선경이와 아이들을 닥치는대로 밀쳐버리며 날아내려오는 돌을 맞받아 몸을 날렸다.

위험은 어퍼러진 선경의 머리위로 바람같이 지나가버렸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선경은 먼발치에 쓰러진 진규를 발견하였다. 그의 머리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지며 온 얼굴을 적시고있었다.

《진규동무!》

선경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온 학급아이들이 진규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았다.

그들 등에 업은 남자들의 뒤를 따라 선경이는 허겁지겁 산을 내렸다.

다음날 어머니가 정성스레 꾸려준 음식을 들고 선경은 병원으로 갔다.

진규는 머리에 온통 흰 붕대를 감고 점적바늘을 꽂은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의 머리맡에 놓인 파란 뚜껑을 씌운 책 하나가 선경의 눈에 띄었다. 무심중 펼쳐보니 식물채집첩이었다.

문득 진규의 아버지가 산림일군이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갖가지 나무잎들과 꽃들이 채집되어있는 책의 첫장에는 빨간 단풍잎이 끼워있었다. 그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사람의 인생은 락엽처럼 썩을수도 있고 단풍처럼 불탈수도 있다. 나는 썩고싶지 않다. 이렇게 불타고싶다.》

그 활달한 필체들은 웬일인지 선경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자기자신은 알수도 없고 리해조차 할수 없는 어떤 크나큰 세계를 안고사는듯한 그 미지의 소년을 선경은 그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진규가 눈을 떴다. 선경을 알아보고 일어서려다가 아픔을 참아내며 빙그레 웃던 진규!

그럴 때의 진규는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데가 있었다. 선량하게 빛나는 진규의 두눈과 가식이 없는 다정한 미소는 얼마나 선경이를 감동시켰던가!

선경이가 대학입학시험을 치고 평양에서 돌아오니 진규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바람으로 제일먼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떠나갔었다.

떠나기 전날 그는 동무들과 채 심지 못한 나무모들을 산마루까지 다 옮겨심었다고 한다.

선경은 떠나는 진규를 바라주지 못한것이 왜 그리도 아쉽고 허전한지 알수 없었다.

이듬해 설날 뚝방에도 진규가 써보낸 첫 축하장이 대학으로 날아왔다.

《선경동무!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창생 진규로부터.》

몇글자밖에 안되는 짤막한 축하엽서였지만 선경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래서 온밤 정성담아 진규에게 보낼 신년축하장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그들사이에는 서로 편지가 오고가기 시작했다.

진규는 편지마다 자기 소대, 자기 분대 동무들에 대하여 그리고 정든 중학시절 동무들과 선생님들, 앞날의 소박한 희망에 대하여 써보냈다.

선경은 난생처음 가장 평범하고 레사로운 말마디들로 적혀있는 총각의 편지를 갖가지 남모르는 의미와 뜻으로 해석해보며 읽곤하였다.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문구는 없어도 그 수수한 말들에는 군복입은 한 청년의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꿈과 강직하고 억센 성격이 들어있었다.

언제부터였던지 진규는 편지마다에 빨간 단풍잎을 넣어보내기 시작했다.

선경이가 편지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고 물으니 자기는 그저 전호가에 서있는 한그루 단풍나무를 몹시 좋아한다는 말과 빨간 단풍잎처럼 열정으로 불타는 한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썼었다.

선경이도 진규처럼 회답편지마다 단풍잎을 넣어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습관처럼 대학구내에서 제일 빨강고 깨끗한 단풍잎들을 골라 채집하곤하였다. 진규가 보내온 빨간 단풍잎들은 책갈피속에 그리고 처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졌다.

진규가 평양에서 열린 사관장대회에 참가하여 선경이를 찾아온것은 1년후의 일이었다.

그날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스스럼없이 밤길을 걸었다. 걸어가면서 중학교졸업을 앞둔 1년기간 있었던 일, 기억나는 일, 기억나지 않는 일을 죄다 끄집어내며 웃었다.

그러다가 문득 동의자를 만났는데 두사람이 다 거기에 앉아 쉬여가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왜서인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만 마주 볼 뿐이었다. 진규가 성큼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자 선경이도 머뭇거리며 따라섰다. 정작 동의자에 마주앉으니 갑자기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쳐다보는것조차도 점직하게 느껴졌다.

선경은 몰라보게 성장한 진규의 억세고 림름한 모습을 결눈질해보면서 흘러간 나날과 더불어 자기들의 친진한 소년시절도 아득히 흘러가버렸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후부터 그들사이에는 더욱더 정열적인 편지

들이 오고갔다. 비록 거기엔 아직 사랑한다든가 그리움이라든가 하는 표현들이 없었지만 더욱 깊고 많은 의미가 깃들어있었다.

날이 갈수록 선경이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진규보다 더 정직하고 대바르고 훌륭한 남자는 없으리라는 확신이 굳어져갔다.

선경이가 생물학부 최우등졸업증을 쥐고 도립업종국으로 배치되어온후에도 빨간 단풍잎은 여전히 날아왔다.

제대를 앞두고 쓴 진규의 편지에는 대학추천을 받았다는 소식이 적혀있었다. 선경은 진규가 대학으로 가게 된것이 몹시 기뻐다.

그런데 어느날 뜻밖의 편지가 날아왔다.

《선경동무! 나는 제대된후 대학으로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겠소. 이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자 나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오. 애어린 한 소년의 희생이 나의 발걸음을 더욱더 고향으로 재촉하고 있소.

더이상 다른 말을 할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오.

이 단풍잎이 아마 내가 동무에게 보내는 마지막 단풍잎으로 될거요. 동무의 깨끗한 넋과 우정이 깃든 그 잎새들을 나는 일생 심장에 간직하고 살것입니다. 동창생 진규로부터.》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자 리별이었다.

선경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듯한 심정을 안고 서둘러 답장을 썼다. 그것은 진규의 그릇된 결심에 대한 열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타이임과 그의 장래에 대하여 사심없는 관심과 솔직한 기대를 적은 하나의 순결한 고백이었다.

선경은 밤에 낮을 이어 매일 매시각 애타게 회답을 기다렸다.

별안간 《제대 되었음. 잊어주기 바람. 진규》라고 쓴 짤막한 전보 한장이 날아왔다.

그후 단풍잎들은 다시는, 다시는 날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녀의 가슴속에서는 빨간 단풍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그자리에는 아물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3

대봉산은 골이 깊고 산새가 험한곳이었다.

주봉을 이룬 산마루에서부터 사방으로 여러 갈래의 련봉들이 뻗어나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깊고 험한 골짜기들이 심연마냥 입을 벌리고있었다.

선경은 현인걸을 따라 골짜기의 첫 입구에 들어섰다.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크고작은 돌들이 널려져있는 산골길을 걸기란 조련치 않았다. 두시간 동안이나 출창 돌길만 걸고나니 발바닥이 다 열 열해왔다.

《선경동무! 이런 산골길이 처음이겠지요? 만일 동무더러 이런곳에 와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말

하겠습니까?》

《글쎄요...》

선경은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도시생활에 습관된 그는 언제 한번 그런것을 생각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났던바에야 왜 이런 심심산골에 인생을 구겨박겠습니까? 동무같이 아름다운 녀성에게야 더구나 어울리지 않는곳이지요.》

현인걸은 그렇지않느냐는듯 선경을 바라보았다.

선경은 저도 모르게 호- 하고 한숨을 내쉬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리 둘러보아야 손바닥만한 하늘을 제외하고는 숨이 탁탁 막힐정도로 온통 산, 산뿐이었다.

그렇다고 현인걸의 말을 긍정하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산림의 덕을 너무도 많이 입고있는걸요. 사람이란 어디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불이긋아있지 않나가요.》

선경이의 말에 호응이라도 하는듯 숨막히는 적막감을 깨뜨리며 산골물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하긴 그렇습니다. 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행복은 외부환경에 의존되는것이 아니라 매 개인의 성격에 의존된다고 했지요.》

현인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될수록이면 선경이의 기분을 건드리고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젠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숲을 지나 곧바로 올라가면 우리가 나무를 찍어야 할 구간이지요. 참 산에 오르기전에 저 집에 들려 물이나 한모금 마시지 않겠습니까? 보아하니 동무도 몹시 지친것 같군요.》

드문드문 떨어져있는 집들가운데서 류달리 하얀 울바자를 두른 집 한채를 가리키며 현인걸이 하는 말이었다.

《그게 좋겠어요.》

두사람은 닭들이 모이를 쪼으며 뛰어다니는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예닐곱살 돼보이는 웬 처녀애가 마루우에 쪼그리고앉아 종이배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있었다. 이미 만들어놓은 배만 해도 열뒤개는 돼보였다.

《애야, 네가 이 집 주인이야?》

현인걸이 쾌활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비꼬리만한 머리꼬지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빨간 리봉을 단 처녀애는 할짓 돌아보더니 호기심이 어린 새끼만 눈을 깜박거렸다.

아마 이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도시풍의 짧은이가 나타난것이 그애에게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이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외할아버지네 집

이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약초밭에 나가시고 삼촌은 산에 갔어요.》

《그래, 이름이 뭐지?》

《신희야요, 박신희.》

《참 똑똑한 애로구나. 아저씨에게 물 한그릇 주겠니?》

처녀애는 쏘르르 부엌으로 달려들어가더니 커다란 바가지에다 힘에 부치도록 물을 철철 담아 가지고 나왔다.

현인걸이 달려가 그것을 받으며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물을 마시고난 두사람은 마루우에 앉아 다리섬을 하고 처녀애는 하던 놀음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그것이든 한개 함대라도 무을수 있겠구나. 배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무엇하려느냐?》

《태일아침 저기 앞개울에 단꺼번에 띄울려고 그래요. 남철이랑 별이랑 보는 앞에서, 그애들이 깜짝 놀라게 말이에요.》

처녀애는 신이 나서 설명을 했다.

《거 참 대단한 생각이로구나.》

현인걸이 놀라는 시늉을 하며 능청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아저씨가 신희에게 멍멍이를 만들어줄까?》

《종이로 멍멍이도 만드나요?》

처녀애의 봉어입처럼 작고 볼록한 입이 놀라움으로 방싹하게 벌어졌다.

《암! 장갑차도 만들수 있지. 비행기도 만들수 있고. 이제 보렴!》

현인걸은 정말 눈깜박할사이에 종이장을 접어서 그럴듯한 멍멍이를 하나 만들어냈다.

《아, 좋네!》

아이가 그것을 집어들고 꺾충거리자 현인걸이 이번에는 장갑차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또 비행기가 생겨났다. 편이어 줄을 짓는 《륙해공군》을 보고 아이는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는 것이었다.

선경은 현인걸이에게 저런 다정다감하고 순진한 측면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천진란만한 아이에 빠져있는 현인걸의 모습을 보면서 선경은 선을 보러 왔던 날 위선자처럼 느껴지던 그에 대한 첫인상이 자기의 지나친 속단이 아니였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모양이군요.》

처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그려진 따뜻한 미소는 현인걸의 기분을 한결 더 둥구어준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전 위낙 아이들을 고와하는 성미랍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모르는 사람은 생활에서 정서가 없는 인간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왔을 때 보니까 여기 대봉산 산림보호원은 확실히 성격이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이

더군요. 글썄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 새둥지를 텅다가 보호원이 나랑 함께 나타나자 불맞은 송아지들처럼 줄행랑을 놓더라니까요. 평소에 애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굴었는지 말입니다. 그애들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것이 정말 다행이었지요.》

현인걸의 입에서 또다시 그 대봉산 산림보호원에 대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우리 삼촌은 산에서 나쁜 장난을 하는 애들에게만 무섭게 굴어요.》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성을 냈다.

《우리 삼촌이라니?》

현인걸은 어리둥절하여 소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삼촌이 대봉산 산림보호원이예요.》

처녀애는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두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럼 이 집이 바로?)

《오, 그래? 내가 그만 실수를 했구나.》

현인걸이 자기의 실책을 깨닫고 무릎을 치는 시늉을 해보았다. 그리고 처녀애와 곧 《화해》를 했다. 현인걸이 그애와 다시 비행기며 장갑차를 《생산》하는 동안 선경은 집안팎을 둘러보았다. 수수한 농촌집이었으나 주인내외의 알뜰하고 잔진 세간살이가 느껴졌다.

썰썰리와 무슨 약초같은것들이 거의 온 마당을 가득 채우고있었고 처마밑에는 마른 산나물통구리가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문이 열려진 옷방안을 무심히 들여다보던 선경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산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온 벽이 책으로 꽂 들어찬 서가가 놓여있었던것이다.

《신희야! 아지미가 저 책들을 좀 구경해도 일없을가?》

《그 책을 다치면 삼촌이 욕을 하기는 하지만 고운 아지미가 보면 일없을거야요.》

처녀애가 해죽해죽 웃으며 승낙을 했다.

《넌 정말 착한 애로구나.》

처녀애의 발그스레한 볼을 튕겨주며 선경은 장판바닥이 깨끗한 방안으로 들어섰다.

주인의 폭넓은 학구심을 말해주듯 서가에는 다종다양한 책들이 꽂혀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립업과 관련한 책들이 제일 많았다. 그결에 있는 얇은땀이책상우에는 연구논문같은것도 놓여 있었다.

선경은 론문제목부터 읽어보았다.

《재래식 채벌방법이 산림에 미치는 후과와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몇번이나 지우고 쓴 흔적이 력력한 책갈피마다에는 놀라운 정도의 탐구심이 엿보였다.

《우리 삼촌도 대학생이야요. 농림대학!》

자기 삼촌을 조금이라도 더 자랑하고싶었던지

처녀애가 신경이쪽에다 대고 소리치는 말이었다.
정말 기특한 애였다.

《그래? 농림대학 통신공부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 <친구> 영컴한데, 저런 책부자인줄 몰랐군.》

현인결이 약간 비양조로 한마디 덧붙였다.

이번에는 《산림보호원 일지》라고 쓴 보풀이 일고 책표지가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다.

왜서인지 앞뒤가 서로 다른 글씨로 정리되어있는 책이었다. 그러나 몇줄씩밖에 되지 않는 그 찻막찻막한 글들에서는 산림을 가꾸는데 바쳐진 한 인간의 깨끗한 양심과 땀방울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선경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대봉산 산림보호원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더 강렬해지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손에 쥐었던 책을 책상우에 도로 놓으려고 하는 순간 선경은 불에라도 덴것처럼 손을 와뜰 처들었다.

가슴속을 찢듯하게 스쳐지나가는 전월에 몸을 떨며 처녀는 뚫어지게 책상우의 한점을 응시했다.

얼핏보면 스칠수도 있는 자그마한 유리장밀에 깔려있는 단풍잎 하나! 선경은 그우에서 티없이 밝은 미소를 짓고있는 단발머리소녀의 모습을 발견한것이었다. 붉게 타는 단풍잎을 배경으로 오십전짜리만한 동그라미안에 방긋 얼굴을 내밀고있는 자기의 모습, 분명 그것은 잊지 못할 중학시절의 졸업사진에서 오려낸것이 틀림없었다. 가슴속에 굴레벗은 망아지라도 뛰여든것처럼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하며 숨이 가빠졌다.

(누가 단풍잎에 내 사진을 오려붙였던 말인가!

그렇다면 진규동무가! 아닐거야... 그가 어떻게 여기에... 그래도 혹시 ... 이 사진은, 이 단풍잎은... 여기가 진규동무의 집이라면, 이제 만나게 될 산림보호원이 만일 진규동무라면...)

자기가 어떻게 그 집을 떠나왔으며 어떻게 현인결을 따라 숲속길을 들어섰는지 선경은 전혀 기억할수 없었다.

영문을 알수 없이 무시로 떠돌았다가는 마구 뒤엉켜지는 가지가지의 생각에 골똘하게 잠겨 걸기만 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것도 아니고 되돌아가는것도 아니고 마치 안개처럼 그의 머리속에서 설새없이 감돌고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있는것이다.)

그의 온몸에서 이런 생각이 확 불타올랐다.

선경은 그 어떤 강렬한 걱정으로 하여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참느라고 힘주어 입술을 깨물었

다.

질어가는 가을의 선경은 놀랄만치 아름다웠다.

껍질들이 러슬러슬 갈라진 소나무와 참나무의 혼성림이 널려있는 산비탈과 벼랑턱에는 단풍이 한창이고 등성이에는 갖가지 색깔의 들꽃들이 한벌 깔렸다. 홍보석을 꺾어놓은듯 물기를 함뱍 머금은 이를 모를 빨간 열매, 천년 이끼오른 고목들. 진대나무를 휘감고 얼기설기 뻗어나간 다래냉쿨들...

문득 가까운곳에서 기계톱 커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산판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경은 의아한 눈으로 현인결을 바라보았다.

현인결은 약간 당황한듯한 기색이더니 곧 혼연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예, 벌써 나무베기를 시작했나봅니다.

떠날 때 군산림경영소와 해당 기업소에 전화를 했었지요. 도에서 지도서를 가지고 곧 내려가니 채벌조직을 하라고요.》

《우선 현지에 내려가 실태확인부터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거 난 선경지도원동무가 함께 나서주기에 꼭 승인해주리라고 믿고...》

현인결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비위 좋게 응대했다.

선경은 현인결의 그 말에 그만 화가 났다.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어쩐지 자기가 속히우고 리용당하는것만 같았다.

《동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지 서슴없이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선경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외로 돌렸다.

《뭔가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전 사실...》

현인결이도 좀 멋적은 생각이 들었는지 더 말을 잊지 않았다.

두사람은 한참동안이나 아무말없이 숲속길을 뒤흘아올랐다. 올라갈수록 산판 여기저기에서 기계톱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채벌공들의 모습이 나무나무사이로 언뜻 보이기도 했다.

《중지하십시오!》

갑자기 오른쪽 숲속에서 울려나오는 다급한 고함소리에 선경은 펄쩍 정신이 들었다.

물날은 군복차림의 웬 청년이 손살같이 나타나 채벌하는곳으로 치달아오르면서 웨치는 소리였다.

선경은 놀라며 청년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눈익어보이였다. 오래지 않아 산판의 정적을 깨치며 아츠럽게 울리던 기계톱소리가 멎었다.

선경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가 무춤
멈어 섰다.

그 청년이 밤색작업복을 입고 얼퍼름해 서있는
선목공에게 따지듯 묻고있었다.

《이건 도대체 뭐요? 누가 산림보호원의 립회도
없이 채벌을 하라고 했소? 허가도 없이 이렇게
마구 도벌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말이요!》

몹시 성난 목소리였다.

《도벌을 하다니요? 말을 삼가하시오. 우린 군
산림경영소에서 파업을 받고 기업소사람들과 함
께 왔단말이요. 도림업총국에서 지령이 있었다길
래...》

선목공이 변명조로 하는 말이였다.

이때 선경의 뒤에 섰던 현인걸이 그 사람좋은
웃음을 온 얼굴에 담으며 한걸음 앞에 나섰다.

《그 동무들에게는 잘못이 없소. 보호원동무! 전
화는 내가 했으니까 양해해주시오. 여기에 총국
지도원동무가 함께 오지 않았소.》

보호원이라고 불리운 청년이 획 고개를 돌렸
다.

눈에 뜨이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건장자리
가 아직도 또렷한 물날은 군복을 입은 청년- 찌
르는듯한 눈빛, 날카로운 코마루, 고집스레 꼭 다
물린 입, 짧게 깎은 상고머리...

《아! 진규동무!》

선경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탄성이였다.
그는 다름아닌 진규였던것이다. 시선과 시선이
불꽃방전을 일으키듯 공중에서 맞부딪쳤다.

《아니, 선경동무가?!》

땀에 젖은 진규의 얼굴에 한순간 반색하는 빛
이 스치였다. 그러나 그 빛은 금시에 꺼져버렸
다. 놀람과 기쁨, 불만이 뒤섞인 진규의 눈길이
이어 현인걸에게로 돌려졌다.

현인걸이 팽팽해진 분위기를 녹잡하려는듯 외
국제 담배한대를 진규에게 내밀었다.

《아, 마침 두사람이 아는 사인것 같구만요. 보
호원동무! 우선 한대 피우면서 이야기합시다.》

《산에서는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있소.》

진규의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참, 그렇군요.》

현인걸이 저으기 계면쩍은 얼굴로 담배곽을 도
로 쑥서넣었다.

《자재지도원동무, 요전번에 왔을 때 내가 그
지도서에 적힌 량의 통나무를 저쪽 범바위산에서
찍으라고 하지 않았소? 국가가 제정한 건설용나
무의 량을 절대로 초과할수 없다는것도 말해주었
고, 그리고 여기 립지는 앞으로 2년후에 채벌해
야 할 구역이 돼서 안된다는것도 대주고... 그런
데 이게 뭐요.》

《아 보호원동무, 그건 일없소. 여기 나무로 말

하면 지금 찍어도 건설용통나무 규격이 된단말이
요.》

《그만하시오. 뭐 우리 나무가 건재규격이 되면
찍고말고 하는것인줄 아오? 지금 이 나무들은
한창 자라고있는중이요. 순환식채벌 규정대로 두
해후에 찍어야 그만큼 더 나라의 재보로 된단말
이요.》

그의 목청은 삼시에 갈리였다. 진규는 안타까
운듯 군대시절처럼 꼭 채웠던 목깃을 열어제겼
다.

여러사람들앞에서, 더구나 처녀앞에서 무안을
당한 현인걸의 얼굴은 벌개졌다. 그러나 용케도
여유있는 웃음을 지으며 푸점종은 태도로 한발
더 다가들었다.

《여보! 보호원동무! 원칙은 원칙이구 사업에서
야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무를 찍어서 뭐 나 개인의 배를
불리자는거요? 오죽하면 이렇게 총국지도원동무
까지 데리고 왔겠소? 원 사람두... 이번 업무사업
이 잘되면 내 동무에게 그 값을 단단히 내겠소.》

인걸은 매 말마디마다 너그러운 미소를 참부하
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만두오. 그 누구를 데리고와도 규정은 어길
수 없소.》

피곳 진규의 날카로운 눈길이 비수마냥 선경의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무엇인가 따져묻는듯한
원망서린 눈매였다.

선경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기를 질책하는 진규의 눈길이 느껴질수록 그리
고 현인걸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마디들
이 처녀에게 자신에 대한 환멸감을 더해주었다.

이에는 아랑곳없이 현인걸은 비위 좋게 진규의
등을 두드리며 한수 더 땀다.

《너무 그러지 말고 사정을 좀 와주오. 보호원
동무! 그럼 그렇게 하가요! 응?》

《안되오.》

진규는 더이상 범접못하게 하려는듯 손세까지
쓰며 딱 잘라서 말했다.

그때였다. 펄 옷쪽에서 도끼질소리가 다시 울
려왔다. 진규의 시선은 반사적으로 그리로 향해
졌다. 그와 동시에 애어린 목소리들이 합창하듯
울렸다.

《찍지 말아요.》

《보호원아저씨!》

진규가 소리나는쪽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현인
걸도 곧 그뒤를 따랐다. 선경이의 걸음도 어느새
그쪽으로 옮겨갔다.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채벌공
들이 이미 선목공이 지적해준 나무에 도끼질을
하려는것을 학생애들이 막아나선것이였다. 세 아

이가 나무에 도끼날을 대지 못하게 빙 둘러막고 있었다.

그곳에 이른 진규는 아무 말도 없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손에서 도끼를 나꿔챈다.

《이 나무를 찍겠으면 차라리 나를 찍소. 내가 꺼꾸러지기전엔 이 나무에 손가락하나 대지 못할 줄 아시오.》

현인결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이 동무가 -》

숲은 숨을 죽인듯 고요했다. 이따금씩 새들의 나무를 쫓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동무들! 다들 저길 좀 보시오!》

수십쌍의 눈길들이 진규가 가리킨쪽을 바라보았다. 도끼자리가 난 그 들메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불그스레한 흙빛을 띤 자그마한 묘 하나가 있었다. 이름을 새긴 흰 대리석돌만 없다면 도저히 무덤이라고 생각될수 없을 정도로 연보라빛 들국화가 빙둘러 피어나 땅을 가리우고있었다.

말을 잇는 진규의 목소리는 어느덧 젖어있었다.

《저 묘는 3년전 뜻밖에 일어난 산불을 끄고 이 산림을 구원하다가 숨진 한 소년렬사의 묘입니다. 저 소년은 수십여년이나 자란 이 나무들을 위해 열세살의 꽃같은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자기 리익을 위해 이 나무들을 찍는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소년의 평혼앞에 그리고 이애들의 맑은 눈동자앞에 부끄럽지 않소? 선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미국놈폭격에 불타버린 산을 푸른 숲으로 가꾸어 물려주었는데, 그 꽃나이 어린것이 생명을 바쳐 지켜낸 숲인데 이렇게 막 찍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애들에게 벌거벗은 산을 넘겨줄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후날 저애들에게 어떻게 부모라고 뽐뽐하게 불리울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진규는 말을 멈추었다. 격해진 숨결을 가까스로 누르는듯했다.

한 아이가 슬며시 다가와 진규의 손을 꼭 쥐었다. 소년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선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나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누구를 따라 여기에 왔던가! 어찌하여 이처럼 청맹파니같은 행동을 하였단말인가! 진규동무의 말이 옳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기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미래에 대한 략관이 없는 그런 인간은 이미 이 생활의 패배자이다. 아! 나도 바로 그런 패배자의 한사람이었다. 진규동무! 동무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준 고마운 벗이예요.)

선경은 축축하게 젖어드는 눈을 들어 진규를 바라보았다.

《지금 탄광, 광산들과 철도에서도 동발목과 침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의 어렵고 긴장한 조건에서도 국토건설문제를 왜 그토록 심려하고계시는지 그 깊은 뜻을 우리모두 심장에 새기고 받들어나갑시다. 내가 오늘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한걸 용서해주시오.》

채벌하러왔던 사람들속에서 나이지속해보이는 한 아버지가 진규에게 다가왔다.

《진규 이 사람! 면목이 없네. 그저 도의 지시라고만 생각하고 따라올라왔으니 정말 망녕이 들었지.》

《아저씨, 리해해주어 고맙습니다.》

진규의 목소리도 감동에 젖어있었다.

《우리 생각이 짧았소. 보호원동무!》

《애들앞에 정말 부끄럽수다.》

자책에 잠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렸다.

현인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여졌다. 그는 한발 나서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기 입술이 그저 소리없이 너뿔거리고있음을 느끼었다. 구원을 바라는듯한 그의 애원에 찬 눈길이 선경이를 바라보았다.

선경은 마침내 현인결에 대한 혐오감과 역스러움이 참을수 없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저도 보호원동무의 말에 동감이예요. 여기 있는 나무들은 단 한대도 찍을수 없습니다.》

선경은 진규에게 사죄의 밀을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다. 두 시선이 다시 부딪쳤다. 그 순간 진규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리었다. 가슴속의 천만마디 말을 대신하는 뜨거운 눈길이 두사람사이에 오고갔다.

《선경동무! 참 오래간만이요. 이 아래 내려가다 첫 집이 우리 집이요. 내 지금 애들에게 나무모기르는 방법을 대주던 참인데 곧 갈테니 내려가 기다려주오.》

선경은 머리를 끄덕였다.

(진규동무!)

그는 입속말로 진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진규는 약간 비칠거리며 돌아섰다. 그리고는 아까 나왔던 오른쪽 숲속을 향해 걸음을 내짚었다. 그쪽 어디엔가 나무모밭이 있는가보았다.

세명의 애들이 진규의 팔에 매달려 활개치며 뛰어갔다. 종이배를 만들어주던 현인결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선경은 이 숲과 미래에 대한 승엄한 상념에 잠겨들었다.

저애들도 아직은 손에 쥔 어린 나무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나무모들이 숲으로 설레일 때 저애들도 아름다리거목으로 자라 내 조국을 푸르싱싱하게 받들어갈것이다.

현인결이가 어깨를 떨구고 산을 내려가고있었다.

선경은 한동안 못박힌듯 그대로 서있었다.

사람들이 다 내려간 숲에는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숲속의 정적! 그것은 개울물소리, 새들의 노래소리, 벌레들의 울음소리, 락엽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등 무수한 소리가 서로 부딪치고 어울려 이루어진듯싶었다.

처녀는 숲속에 홀로 서서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갑자기 곁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선경은 이 숲에 있는것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산림보호원이 처녀지도원을 저희집에 안내해주라더군.》

아까 진규가 《아저씨》라고 부르던 그 늙은 채벌공이었다.

《아버님은 진규동무네와 잘 아는 사인가보지요.》

《예, 그렇다마다요.》

《그가 어떻게 여기 보호원으로 되었습니까?》

선경은 오래동안 가슴에 품고있던것을 아바이에게 물었다.

《진규 그 사람은 여기서 태를 묻고 자랐지요. 그가 여기 산림보호원이 된데는 사연이 있수다. 원래 진규의 아버지는 우리 립산사업소 기사장으로 있었수다. 그러다가 도에 중임을 맡고 소환되어 십년가까이 많은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가 없는사이 여기서 통나무생산단 내밀면서 순환식채벌규정을 어기고 술한 산들을 벌거숭이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우에 제기해서 여기 군산림경영소에 다시 내려오게 되었수다.》

선경은 문득 중학시절에 얼핏 들었던 진규의 가정사에 대해 회상했다.

《진규의 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여생을 산림보호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십여년세월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성실하게 일했수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진데다 전후에 통나무에 허리를 상한 어혈로 산을 돌보기 힘들어했지요. 그러던 3년전 어느날 우리 대봉산에 뜻하지 않은 산불이 났지요. 아까 진규가 얘기하던 그 은성이라는 애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다 꺾을 땐 그애가 이미 숨진 뒤였수다. 그때 진규의 아버지도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요. 의식을 잃은속에서 계속 헛소리를 치면서도 불타버린 산을 걱정했다고 합디

다. 제대를 앞두고 이 소식을 들은 진규는 추천받은 대학에도 가지 않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산림보호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듣자니 이 산골에 와서 한생을 살 각오로 도소재지에 사는 사랑하는 처녀와도 인연을 끊었다고 합디다. 그들 부자가 심은 나무들이 이제는 우리 대봉산을 다 덮고도 남을거우다. 그뿐인줄 아시우? 산리용반을 무어 해마다 약초를 심어서는 군병원과 군대동무들에게 좋은 약재도 보내주고 군내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대용식품과 산나물을 말리운것만해도 아마 몇톤 잘될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애국자이지요.》

아바이의 이야기는 선경의 가슴속 가장 깊은곳까지 계속 메아리치며 울려왔다.

(그래서였군요. 진규동무! 한 처녀에 대한 사랑보다 이 땅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동무에겐 더 귀중했군요.)

처녀는 다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눈앞의 수림들이 온통 물위에 떠있는것 같았다. 한것은 선경이의 눈에 밝은것이 함초롬히 고여올랐기때문이었다.

(조국의 숲을 그처럼 사랑하는 동무이길래 난 이 산골보다 더 깊은 산우에라도 동무를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겠어요! 알겠어요? 진규동무! 일생 사랑하겠단 말이에요.)

처녀의 불같은 심장이 뜨겁게 뜨겁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선경의 속마음을 어느새 알아차리기라도한듯 알록달록한 딱따구리는 두터운 나무껍질을 기운차게 두드리고 갈색다람쥐가 까만 눈알을 요리조리 굴리며 익살스레 뛰어다니다가는 멈춰서서 꼬리를 머리위에 곧추 세우곤했다. 새들의 노래소리, 나무잎 설레는 소리로 가득한 그 정적, 그 향기, 그 신선함...

선경의 머리우에서 단풍이 붉게 타고있었다.

숲천정을 꿰뚫고 비스듬히 비껴든 석양빛은 단풍잎을 더욱더 빨강고 투명하고 기이하게 빛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발밑에서 감도는 락엽무지들을 밟으며 처녀는 또다시 생각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오늘날 있고 래일은 없다. 한여름철에는 눈이 부시도록 푸른 잎새를 자랑하다가도 가을이 오면 누렇게 지쳐 떨어져버리는 락엽과도 같다고 할가. 하지만 미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가을이 와도 단풍처럼 봄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주며 붉게만 탈것이다. 떨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붉음으로 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타오르라, 성강의 봉화여

김책역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로 가는 길에는 그곳 사람들이 쌍포고개라고 부르는 그리 높지 않은 고개가 있다.

우리가 쌍포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우리 나라 북방의 강철생산기지의 하나인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넓은 부지에 튼지게 들어앉은 건물들, 기세차게 흰 연기를 뿜어올리는 여러개의 굴뚝들, 기운차게 울리는 구내 기관차의 동음소리...

건물의 벽에 붉은 색으로 쓴 대형구호가 유난히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불씨가 거세찬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성강의 벽찬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3월 9일 여기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대고조의 선봉에 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정열과 열정,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성강의 로동계급들.

우리는 그들을 한시바삐 만나고싶은 흥분에 사로잡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강철기둥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강철직장에 들렀다.

만부하를 걸고 용을 쓰며 돌아가는 전기로들의 기세찬 동음, 원료바가지들과 쇠물담비를 물고 오가는 천정기중기들, 쇠장대를 역세게 들어쥐고 이끌거리는 쇠물을 힘차게 젖는 용해공들...

강철직장은 그야말로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전투장이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돌아보신 5호전기로를 찾았다.

5호전기료에서는 한창 쇠물을 끓이고있었다.

참나무처럼 단단해보이는 다부진 몸매의 로장 혁명훈동무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준엄한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면 여기 북방 우리 용해장에까지 찾아주실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 열기가 확확 풍기는 우리 로앞에까지 오시여 우리 용해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었습니다.》

감격에 젖은 혁명훈동무의 목소리였다.

로장동무의 말을 듣는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났다.

언제나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시려는 의지를 안으시고 불원천리 성강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강행군길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전기료에 불을 달고 쇠장대를 역세게 휘두르는 용해공들.

너무도 뜨거운것이 북받쳐오르시는듯 말없이 이윽도록 용해공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언제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혁명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는 위대한 수령님.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고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한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러한 신것처럼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실 결심을 굳히셨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자기들의 작업모습을 지켜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근엄하신 모습에서 용해공들은 심장으로 보고 들었다.

흰눈이 평평 내리는 주체45(1956)년 12월의 그날 솟는길을 헤치시며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던 위대한신 수령님의 모습을.

나는 쇠물을 녹이는 용해공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동무들이라고, 당은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믿는다고 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뚫고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우렁우렁한 음성을.

《꿈결에도 뵈고싶어 기다리고기다렸던 장군님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혁명의 강행군 길에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자욱자욱 수놓아져있다.

대한계절에 북방의 엄혹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강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침내 귀로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갑자기 들려보지 못한 자강도의 한 기업소로 가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 기업소까지는 수백리가 넘는 길이였다. 게다가 그 길은 평탄한 아스팔트길이 아닌 눈덮인 협산준령을 수없이 넘어야 하는 길이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시다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저하는 일군들에게 다시금 재촉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곳 로동계급을 만나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다시 차를 돌리었다.

이렇게 되어 지난 1월 21일에 그 기업소 로동계급은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백리 험한 길을 되돌아오신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이 기업소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 전통있는 기업소라고 치하해주시고 공장안을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러놓았다고 이곳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기술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해서와 일군들이 로동계급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잘 보살펴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기업소의 혁신자들을 만나주시고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은 당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업이라도 무조건 해내는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보람찬 강행군에서 또다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펼쳐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날 기업소에 펼쳐진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화폭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은 혁명의 준엄한 길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진 난관과 시련을 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온 혁명의 령도계급에 대한 절대적이고 숭고한 믿음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실성의 기저에는 로동계급을 가장 아끼시고 믿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다.

전후의 시련의 나날에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냄으로써 내외원썹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 당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이 땅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강선의 로동계급.

그들의 심장속에는 자기들을 찾아오시여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그토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적이고 영웅적인 로동계급으로 언제나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설 때마다 먼저 로동계급에게 맡겨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도록 뜨겁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의 정수를 이루는 1만톤프레스제작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룡성의 로동계급에게 대담하게 맡겨주시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만들어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대형산소분리기생산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그 과제를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맡겨주시고 힘과 용기와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여 그것을 끝내 훌륭히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검덕의 광부들을 수도가까이에 두시려고 평양-금골행 열차까지 새로 내오게 하시고 광부들의

확증된 주체적인 제강법을 광범히 받아들일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삼화철제강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지금 그 과업수행을 위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중입니다.》

삼화철생산방법은 수입원료인 코스를 쓰지 않고 강철을 생산하는 완전히 주체적인 제강방법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한 주체적인 제강법인 삼화철생산방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광범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고문지배인 전영훈동무에게 맡겨주시었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 73(1984)년 5월 17일 우리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4년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잠간 만나주셨던, 이제는 70살이 지나 현지에서 물러난 저를 오늘까지 잊지 않으시고 회고해주시면서 저의 건강상태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고 주체적인 제강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저에게 맡기자고, 제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도록 잘 도와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잠시 만나주신 한 전사를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있도록 다심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한번 믿음을 주신 전사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그 의리깊으신 사랑에 감복되어 전영훈동무는 오늘 비록 70이 넘은 고령이지만 청춘의 활력에 넘쳐 주체적인 제강법을 완성 도입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강철생산에 소요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창조한 조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안고 있는 자재와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실 자력갱생기지를 꾸리는 일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디다.》

최청송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인

봉쇄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면서 강철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성강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난관앞에 주저앉을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로를 죽이고 강철생산을 멈춘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누구를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걸어나가야 한다. 강철생산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리자체로 해결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섰으나 정작 자체의 힘으로 자력갱생기지를 꾸리자고보니 걸리는것이 너무나 많았다.

자재도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러한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방도를 깨우쳐 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이였다.

《일이란 사람들이 하는것이며 혁명은 대중이 하는것이다.》

《기적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인민들이 준 필연이다.》

《제힘으로 사는 사람은 흥하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그렇다. 자기 힘을, 군중의 힘을 믿어야 한다.

내부에비도 군중의 마음속에 있고 기술적인 고리를 푸는 열쇠도 군중속에 있다. 군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힘을 발동시키자.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강철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것들부터 하나하나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군들이 한대상씩 맡아 책임지고 내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우선 생산자대중과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적극 불러 일으켰다.

일군들이 결심하고 나서고 대중이 분발하니 풀지 못할 문제가 없었다. 자기 힘을 믿고 나서는 불가능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 법이다.

그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자력갱생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도 자체로 해결하고 기술적인 문제들도 자체로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2년동안에 29개의 자력갱생기지들을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음으로써 강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강철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부원료들인 형석과 석회석을 자체로 가까운곳에서 찾아내고 그 생산기지를 꾸려놓음으로써 지난 시기에는 멀리 다른

도에서 실어오던 형석과 석회석을 자체로 생산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가열로의 폐열을 리용한 소금생산기지, 파다이야를 원료로 하는 고무제품생산기지, 연마석생산기지, 가성소다와 염산생산기지, 인발판과 압연기를 생산기지 등 많은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았다.

이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자력갱생기지들을 완비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고출력전극원료생산기지, 주강케스생산기지 등을 꾸리고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인 진공산소정련법, 직류전기로 등을 도입할 준비를 갖추고있다.

또한 기업소구내에 6개소에 35키로와트능력의 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여 기업소합숙을 전기화하고 덕인지구에도 발전소를 건설하여 종업원들이 사는 제강동지구를 전기화할 계획을 세우고 그 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우리는 이번에 자력갱생기지들을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하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갈 때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 책동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최청송동무의 힘찬 결의이다.

그렇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는 제힘을 믿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력갱생의 봉화이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한키로와트의 전기, 한그람의 강재도 공짜로 주지 않는다.

오직 자력갱생할 때만이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을 건설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강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이며 힘찬 호소이다.

라오르라, 봉화여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고압관직장과 1조강직장, 2조강직장 등을 돌아보고 기업소정문앞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 섰다.

해방후부터 10차례나 기업소를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앞길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길이 전하며 서있는 사적비.

사적비의 비문을 자자구구 읽어내려가느라니

가슴이 뜨거워났다.

한그람의 강재가 그토록 귀중했던 해방후 로동자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여 원철로를 폭파해 버리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성강의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고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 그것은 령도자는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로동계급은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드는 일심단결의 봉화, 수령결사옹위의 봉화이다.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타고 달리자!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성강로동계급의 호소이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이것이 새로운 천리마대교조의 선두에 선 성강의 로동계급, 조국과 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물음이다.

이 물음앞에 나도 천리마를 탔다고 떳떳하게 긍지높이 대답할수 있도록 성강의 봉화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살자.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제아무리 우심하다 해도 우리는 성강의 봉화로 그것을 불태워 버리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따라 최후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타게 된다.

천리마를 타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을 걷자.

사람들이여,

우리에게는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잡아 강유력한 오늘을 건설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천리마조선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이자.

자력갱생의 마치고 낮과 붓으로 남들이 부러움게 우리의것을 팡팡 만들어내자.

오늘의 하루를 백날, 천날로 살자.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따라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자.

21세기를 앞두고 떠오른 성강의 봉화, 그 불길 이 밝혀주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승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한것인가.

타오르라, 봉화여!

성강의 봉화여!

본사기자 **최용호**

추억하는 땅

최성진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혁명시인 조기천이 쓴 시 《조선은 싸운다》를 되새기곤 한다. 시인은 침략자들이 몰아온 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든 우리 조국강토에 대해 쓰면서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이라고 했다.

후세의 인간들이 지나간 역사 책을 통해 읽거나 체험자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 하지만 당대 역사의 한복판에 서있던 그 주인공들의 구체적인 심리와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랴.

나는 이 전쟁을 어머니의 등에서 지나보냈다. 전쟁이 일어나던 때 나는 아직 강보에 싸여있는 자그마한 피덩이였다.

전쟁에 대한 표상이 생기기 시작한것은 전후시기였다. 그때 나의 눈에는 소이탄에 불타다 남은 뒤산의 나무등결이며 어디서나 장난감으로 주어 모을수 있었던 탄알꼭지며 미국놈들의 비행기에서 떨어진 휘발유통의 잔해며 하는것들이 띄우기 시작했다. 한두해 더 자라서 우리 글을 배웠을 때에 전쟁에 대하여 쓴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방금 일어섰던 벽돌집은 아스팔트길 위에 무너져내리고 하늘의 해마저 불타던 조선이라고 쓴 글들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면 파괴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전쟁이란 정말 그만큼 무자비하고 처절한것이다. 하물며 세상에 태어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환 공화국이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던 조국해방전쟁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조국은 인구수와 영토를 보면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지난 전쟁의 가렬처절성은 그 밀도가 인류사에 기록된 그 어느 전쟁과도 대비할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력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결사적으로 꺾기한 인민들은 언제든지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전쟁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도를 펼치고 보면 승리자들의 자랑스러운 추억이 깃들지 않은 땅이란 없다. 불길이 란무하고 전사들의 피가 흐르던 조국의 산과 강, 도시와 마을들... 거기에 깃들어있는 영웅적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훈, 조국사수를 위해 흘린 피와 땀 그

얼마인가.

나는 군자리를 찾았다.

군자리는 군수생산으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땅이다.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군용사들이 고지들에서 원썬들에게 죽음의 불벼락을 안기고있을 때 군수공업 로동계급은 여기서 전선에 보낼 박격포와 기관단총들, 총탄들을 생산했다. 그들의 손에서 나온 박격포와 기관단총들이 전선에 우뢰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 박격포와 기관단총들, 한알한알의 총탄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나는 먼저 군자리혁명사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아갔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군수공업력사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오래전에 그이의 동상을 여기에 모시였다. 한손에는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을 억세게 드시고 나라의 군수공업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였다.

나는 언젠가 평양에 있는 한 병기공장자리를 돌아본 기억이 났다. 그곳은 해방직후 나라의 첫 병기공장이 들어앉았던곳이였다.

일찌기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으시고 개선하시여 해야 할 일도 많으시건만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자위의 총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현명한 령도가 있어 해방전에 화승총 한자루, 번번한것이 없어 왜놈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던 우리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현대적무기들을 생산하는 자위적국방공업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창건된지 불과 이태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낸 총을 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한 결사항전에 나설수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체의 군수공업터전을 마련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민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의 산물인 기관단총을 틀어쥐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러 바라보니 뜨거워지는 마음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병기공장을 바로 여기 군자리의 지하에 옮기고 전시생산을 보장하도록 해 주시였다.

그리하여 전쟁의 나날 적들의 비행대가 날아들어 줄폭탄을 퍼부어대는 그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여기 지하공장에서는 전선에 보낼 기관단총이며 박격포들이 쏟아져나오게 되었다.

나는 뜨거운 생각에 잠겨 120미리박격포 가공 작업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나날 두차례나 찾으시여 노동자들의 투쟁모습을 보아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곳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석수를 맞으시며 지하의 작업장을 찾으시여 동발은 제대로 서있는가, 락반의 위험은 없는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시며 습한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심려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전선 형편이 말할수 없이 긴장하던 때였다. 전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우리의 후방도 폭격으로 어디나 재더미로 되고있었다. 그 준엄한 시기에 지하의 습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말한 우리 로동계급이었던가.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 한 사람 한사람이 그토록 귀중하시여 심려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으니 노동자들의 일손에서 어찌 번개가 일지 않았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의 기름물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하여 한문의 박격포라도 더 만들어내야 전선에서 우리의 귀중한 전사들이 그만큼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노동자들은 기대옆에서 침식을 하고 원썬들의 폭격에 정전이 되면 손으로 피대를 돌려가면서 부속품들을 가공해냈다.

그날의 로력투쟁의 자취가 지금도 작업장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어려있는것만 같았다.

그 나날 노동자들이 심장에 새겼던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우리 조국의 존토를 수호하자!》라는 구호앞에서 나는 한동안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은 현장진료소에도 깃들여 있었다.

전시생산이 긴장하게 진행되고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갱도속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이 넘려되시여 수많은 의리기구들과 의약품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위생조사단까지 파견하시여 노동자들이 리용하는 음료수의 수질을 알아 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의료설비들이 현장진료소에 그대로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에 노동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전시생산에서는 새로운 양양이 일어났다고 한다.

전시생산의 기적적인 성과들은 공구직장과 탄

알직장, 82미리박격포직장과 기관단총직장을 비롯하여 어디에서나 일어났다.

82미리박격포직장의 로동자들은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박격포들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선의 싸우는 용사들에게 더 많은 박격포를 보내주기 위해 《합리화운동》을 발기하였다.

그들은 이 운동의 불길속에서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만 전투를 벌려 새로운 생산적고조를 일으켰다.

기적은 기관단총직장에서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이 직장을 찾으시여 노동자들의 투쟁기세가 좋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영화로 찍어두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후대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을 못가지고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공장 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이 공장을 돌아본 일부 동요분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모습과 여기서 생산되어나오는 무기들을 보고서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952년 12월 어느날에는 우리 나라에 대사관 성원으로 와있던 외국사람들이 이 공장을 참관하였다고 한다. 그때 탄알직장과 여기 기관단총직장을 돌아본 그들은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줄 알았던 조선에 이렇듯 거대한 지하공장이 있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조선 인민은 반드시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쳤다고 한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던 1953년 어느날 또다시 이 기관단총직장을 찾으시여 생산정형을 보고받으시면서 동무들이 만든 기관단총을 보기만 하여도 적들이 손을 든다고 통쾌한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좋은 총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무한히 고무된 로동자들은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생산전투에 나섰다.

나는 기관단총직장에 들리어서도 가슴뜨거운 사연을 들을수 있었다.

그곳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20명의 젊은 결사대원들이 75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하기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린곳이다.

주체39년 10월, 우리 조국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전 전선에 걸쳐 일시적인

후퇴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해 10월 11일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에 따라 공장에서도 후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때 공장에는 채 조립하지 못한 750정의 기관단총이 남아있었다.

전선에서는 단 한자루의 총이 귀중한 때에 75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하지 못한채 그냥 후퇴해간다는것은 로동계급의 량심이 허락치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장당위원회에서는 공장소개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750정의 기관단총을 마저 조립하기 위한 20명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얼마후 공장에는 모두 후퇴해가고 20명의 결사대원들만 남았다.

적들의 포소리는 벌써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적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긴장한 시각이었다. 하늘에서는 원썬들의 비행기가 날아와 쉬임없이 폭격했다. 갱도밖은 온통 불타고있었다.

결사대원들은 어깨에 탄창이 된 기관단총들을 메고 작업대우에는 수류탄을 올려놓고 한정한정의 기관단총들을 조립해나갔다.

당장이라도 적들이 달려들면 싸워야 했다.

저기에다가 식량까지 떨어졌다. 난관은 그뿐이 아니었다. 폭격에 전기줄마저 끊어졌다.

그들은 통강냉이 몇알씩으로 끼니를 굶다가면서 손으로 기계를 돌리며 부속품을 깎았고 줄칼로 쏘어 완성해나갔다. 열처리도 산소불로 했다.

그렇게 하여 단 6일동안에 75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하여 전선으로 실어보냈다.

조립장안에는 그날에 결사대원들이 사용했던 작업대며 공구들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그것들을 보느라니 입술들이 말라터지고 옷들은 다 해져가지고 조립전투를 힘겹게 벌려나간 그날의 결사대원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생각이 깊어졌다. 그날의 결사대원들이 나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오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모든것이 어려운 오늘, 모자라는것도 많고 부족되는것도 많고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질식시켜보려고 공격해오는 오늘이다. 하지만 그날의 어려움에야 어떻게 비기겠는가.

삶과 죽음이 판가리되던 그 시기에 맨손으로 기계를 돌려 부속을 깎아내고 원썬들의 총포소리를 들으면서 기관단총을 조립해낸 결사대원들처럼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나는 뜨거운 생각에 잠겨 갱도를 나섰다.

무명고지

리찬호

흘러간 세월속에
위훈 수없이 새겨왔어도
지도우엔 여전히
이름없는 무명고지

폭격에 깎이고 낮아졌어도
탄피가 덧쌓여 높아진 고지
세상에 밝혀지지 말라고
안개가 늘 자욱했던가

날새마저 외로워 깃을 옮기던
인적없는 여기
고요한 정적속에 안고있던 폭풍을
감격의 환호성으로 터치였구나

아,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여기
승용차가 오르지 못하는
고지정점까지 걸으셨나니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그이
여기에 반드시 오르셔야 했던가

최고사령부의 위대한 작전이
여기서 토의되어야만 했던가

그이 걸으신 자옥마다에서
사랑의 샘줄기가 솟구쳐올랐어라
세월의 이끼속에 묻힌 파편들이
위훈의 흔적으로 빛을 뿌렸어라

그이 만나주신 평범한 병사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랑떨치고
이름없던 초소의 작은 병실이
온 나라의 자랑으로 알려졌구나

솟구치라, 고지여
너의 존엄 떨치라
어제는 이름없던 무명고지
오늘은 온 세상에 자랑높은 고지

위대한 령장께서 새기신
불멸의 자옥 길이 전하며
무한대의 높이로 솟구쳐오르라
영광의 고지로 그 이름 빛나라!

물소리

전인광

수십리 밤길을 내쳐 달려온 습격조원들이 참대 숲이 짙 들어찬 골짜기에 내려섰을 때 그 누구인가 탄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히야, 좋지요? 아바이, 저 물소리… 들려요?》

수행해야 할 임무시간을 따져보며 앞장서 걷던 차문철분대장은 그 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분대막내인 근영의 목소리였다.

아닐세라 숲속 어디선가 바위밀을 씻으며 흐르는 상쾌한 시내물소리가 유난스럽다.

《신동히 입대전에 우리 학교 악단이 연주하던 <산으로 바다로 가자> 2악장의 선율같거든요. 맑은물 철철 바위우에 흘러들고…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저 쿵쿵 바위확을 울리는 소리, 싸하고 쏟아져서는 주런주런 흘러내리는 저 물소리… 이걸 그대도 자연이 연주하는 선율인데… 오선지만 있으면 제격…》

(또 시작됐군.)

저도 모르게 멈춰섰던 문철은 정숙을 지키지 않는 전사에게 주의를 주려다 아직은 적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단념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흥분된 근영은 미처 걱정을 누르지 못하는데 응대하는 목소리는 없다.

아바이라 부르는걸 보면 순봉전사가 분명한데…

그러자 근영의 목소리가 불만조로 변했다.

《아바이 참, 그렇게 감정이 뜨니까 <한박자 반>이라는거야요. 하긴 이 자연에 존재하는 크고작은 모든 음향이 알고보면 불과 일곱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선율의 흐름이란걸 농사꾼이었던 아바이가 알수도 없구요.》

우정 비위를 굽어보자는 심보가 느껴진다. 아닐세라 그 말에는 참을수 없었던지 한참후에 웅글은 목소리가 뒤를 울렸다.

《음향이니 선율이니 그런건 자네나 알 소리구, 허지만 저 물소리가 노래소리 비슷하다는 말은 그럴듯하군.》

(한박자 반…)

차문철은 입귀에 웃음을 담으며 울퉁불퉁한 돌부리를 피해 밀로 내려섰다.

《왜 물소리만이겠어요. 보라요. 저 복두칠성을…》

상대편이 응해나서자 근영의 목소리는 제격 모를 죽여 부드러워졌다.

《마치 일곱개의 별이 밤의 서정을 하늘에 선물로 새긴것 같지 않아요? 약간만 튀겨도 현줄처럼 그윽한 선율을 울려줄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복통같은 똥보 있잖아요. 중대취사원…그 친구 저 복두칠성이 틀림없는 국자모양이라나요. 그래서 그건 인간의 감정세계에 대한 모욕이라구 싸주었지요.》

문철이 저도 모르게 흘깃 쳐다보니 엷은 구름발이 깔렸는지 몇개의 잔별이 건성드뭇한 밤하늘에 복두칠성이 또렷이 박혀 광채를 뿌리고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생활, 모든것이 음악적 선율로 충만되어있다는걸 감수하지 못하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미국놈을 이기겠다니 참, 그런데선 아바이도 같어요. 오늘밤 우리만 좀 보라요. 우리역시 일곱인데 이제 우리 습격조가 울리게 될 멸적의 총성, 이것도 말하자면 남녘해방의 길에 울리는 승리의 선율이 된다 이겁니다.》

문철은 혀를 차며 피식 웃었다.

근영의 그 왕청같은 물소리이야기가 오늘밤 습격전투이야기로 돌아올줄은 미처 생각 못했던것이다.

문철의 눈앞에는 근영의 실새없는 사설에 뜨적이 한마디로 대답하던 그 목소리처럼 모든 동작과 행동이 느리고 굼뜬 김순봉전사의 얼굴이 불시에 마주왔다.

장탄직전에 나란히 댄아놓은 한알쌈의 보총란처럼 탐탁하기 그지없는 분대병사들중 유독 마흔구석에 었혀있어 별스레 신경을 쓰게 되는 전사였다.

그에게 《한박자 반》이라는 별칭을 붙인것은 근영전사였다. 입대전에 어느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씨클책임자로 있었다는 근영은 불임성이 좋고 쾌활하여 중대전사들의 사랑을 받는 전사였다.

깜빡거리는 두눈에서 언제나 잘게 부서지는듯 장난기어린 웃음이 어려도는 근영은 모든 사물에서 보통사람들은 발견 못하는 독특한 일면을 찾아내여 여기에 자기 식의 선율적의미를 불이키 좋아했다.

순봉전사가 분대에 배치된것은 한달전 《ㄱ》음을 해방한 중대가 다음 전투를 준비하며 시가변두리의 숲속에서 잠시 휴식하고있던 때였다.

크지 않은 중키에 등이 구불사하고 후렁후렁한 군복이 좀체로 몸에 붙지 않아보이는 퍼그나 나이먹은 아바이병사가 꼭 틀어쥐고있던 보병총을

서투르게 왼손에 옮겨잡으며 문철에게 다가왔다.

《중사동지! 전사 김순봉 3분대 대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전사의 손은 보고가 시작되면서 올라가는것이 끝날 때에야 귀전에 가붙었다.

마디가 불거지고 참나무껍질처럼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들은 모아볼지를 못하고 제각기 벌려진 채로였다.

문철의 미간에 대뜸 주름이 잡혔다.

정규적면모에 있어서나 규정에 정통하고 술선 수범하는데서나 현대적으로 따를 하사관이 없다고 소문이 나있는 차문철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마을돌이 나선 농군의 행동거지처럼 군인의 면모라곤 영 찾아볼수 없는 전사의 인상이 마음에 찰수가 없었다.

《훈련은 받았겠지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던 문철이 정색해서 묻자 그 어조에서 풍기는 질은 불만기를 느낀듯 아바이전사는 더수기를 득득 굶었다.

《예, 한주일 뒹죽하겠는지, 총두 몇방 놓아보구, 거시기 대렬훈련이란것두...》

말끝을 맺지 못하는것이 반긴 받았는데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속대사가 풍겼다. 어리무던한 큰 얼굴에 비해 눈이 좀 작는데 그 눈에서 뿜겨나오는 순후한 빛이 그의 마음씨를 엿보게 했다.

무엇이든 물으면 말더미에서 고르듯 한참씩 입만 움직이다 한마디씩 뜨직이 대답하여 듣는 사람이 물은것을 도리어 후회하게 했다.

호기심을 가지고 아바이전사를 주시하던 분대원들은 침을 꿀꺽 삼켰고 문철은 쓴입을 다셨다.
(아를 먹게 됐군.)

튀기면 하나같이 쇠소리가 쟁쟁한 우리 분대에 하필이면 짐이 될게 분명한 이런 나이많은 전사를 보내주다니? 속에서 굴뚝같은것이 불끈 치밀어올랐다.

순봉이 분대전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난 뒤였다.

《아바이, 나 좀 봅시다.》

한옆에 서서 그를 찬찬히 여겨보던 근영이 어떤 결론을 지은듯 머리를 끄덕이며 친절히 소나무뒤로 이끌었다.

《아바이! 아바인 군복은 입었지만 아직 소를 몰고 사라진 발이랑을 휘돌아나가는 농사군 그대로군요.》

전사의 두눈이 영문을 몰라 덩돌해졌다.

《이자보니 아바인 경례를 해두 그래 상관의 물음에 대답을 해두 그래 모든 동작이 남보다 <한박자 반>은 굵뜨단말예요. 우리 분대장동진 그런 걸 영 질색해요.》

귀속말로 소곤거린다는것이 분대원들모두가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웃었다.

문철도 어이없이 따라웃었으나 땃힌데 없는 농민전사를 특징짓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탐탁찮게 본 순봉전사의 첫인상은 며칠 후 있는 적 포진지습격전투때 일로 해서 더 잡쳐지고말았다.

원썬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불태우던 분대전사들은 이날 번개같이 각기 분담된 포들의 아구리에 수류탄을 밀어넣고 밀려드는 적들을 쓸어 넘히며 집결지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둠속에서 허둥지둥 달려온 순봉이 차 문철의 팔을 덥석 잡았다.

《분대장동무!》

《무슨 일입니까?》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갑자르던 순봉은 미처 말이 나오지 않아 손으로 자기 허리춤을 더듬어 수류탄을 꺼냈다.

《...이, 이게 터지질 않수다.》

문철은 놀란 눈을 크게 떴다.

《뭐요? 그럼 포들이 그냥 있습니까?》

순봉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머리를 끄덕였다.

리유를 알아볼 겨를도 없었다.

《날 따르시오.》

문철은 팔을 뻗 저으며 돌파서서 다시 포진지 쪽으로 달려갔다.

순봉과 두 전사가 그뒤를 따랐다.

적들의 총탄이 물방으로 날아왔다.

철수하던 대원들은 접어드는 원썬들을 막아내며 분대장을 엄호했다.

치열한 격전을 벌리며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두문의 포열에 이른 문철은 수류탄의 안전고리를 뽑고 격침이 된 다음 포신안에 연거퍼 밀어넣었다.

그리고 굴뚝이 그자리를 뿔쳐나왔다.

그런데 집결장소에 도착하니 설상가상으로 장본인인 순봉이 나타나지 않았다.

집요하게 추격하는 적들의 총성은 점점 가까와졌다.

《에이 참!》

문철은 화가 동해 허공을 후려쳤다.

(애초 전투경험도 없는 아바이를 데리고온게 잘못이지.)

그가 나타난것은 기다리다 못해 분대가 2집결지점으로 떠나려는 때였다.

헉헉 단김을 내뿜으며 잡관목을 헤치고 올라온 순봉의 손에는 총탄에 귀퉁이가 터진 군모 하나가 들려있었다.

《분대장동무! 이걸 잃고 왔수다.》

피곳 군모에 눈이 간 문철은 그제야 자기가 모자를 잃어버리고 온것도 모르고있었다는것을 알았으나 어이가 없었다.

《이 정황에 모자가 뭐요, 모자가?…》

그이상 추궁할 경황도 없었다.

순봉이 늦어진탓에 그들은 결사적인 전투를 해가며 간신히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나왔다.

몇십리를 내쳐 달린 분대가 강기슭에서 겨우 한숨 쉬게 됐을 때 문철은 복받치는 분기를 누르며 사연을 물었다.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된겁니까? 안전고리는 뽑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놈이 종시 터지질…》

《손에 전채 거꾸로 밀어넣은게 아닙니까?》

순봉은 생각을 더듬는듯 고개를 기웃하다가 그만 입을 하 벌렸다.

《참, 이 정신…내 그걸 미쳐 생각 못했군요.》

순봉은 구경이 작은 포신안에서는 수류탄지철이 꺼져지지 않는다는것을 생각 못하고 안전고리를 뽑자 손에 쥔 그대로 포신에 집어넣었던것이 다.

《참.》

문철은 입에 소태를 문것 같았다.

(각자에게는 자기의 능력으로 조국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적재적소가 있는 법이다.

나이도 그렇고 여러모로 보아 공병창고나 후방부의 그러름직한 직무가 적임이지.)

아무래도 그의 조동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문철은 단단히 속다짐했다.

그러나 어제저녁에 있는 일로 해서 문철은 자기가 너무 속단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그만 찝쭈룩해졌다.

새 작전을 앞두고 폭우속을 강행군하여온 편대는 저녁무렵에야 목적지에 이르렀다.

곧 휴식명령이 내려졌다.

문철이 중대장이 불러서 갔다 돌아와보니 대원들은 총을 그리안은채 곯아떨어져있었다.

잠든 분대전사들을 미더운 눈길로 둘러보던 문철은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순봉전사를 보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구부정한 잔등이 구뿔구뿔 움직였다.

래일의 행군을 위해 휴식해야겠으나 혼자 자지 않고 궁싹거리고있는 아바이가 저으기 불만스러워진 문철은 그리로 다가갔다.

《아바인 쉬지 않고 뭘합니까?》

영거주춤 일어난 순봉은 분대장의 굳어진 얼굴을 보자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손에 들고있는것을 내려다보더니 열적은 웃음을 지었다.

《…저 신끈을 몇오리 만들어볼가 해서…》

문철은 의아해서 순봉의 선이 붉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신끈이요?》

《엇그제 전투때 보니 적을 추격하던 다른 소대전사 하나가 신끈이 끊어지는통에 그만 주저앉고맙디다. 신발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걸 첨 느꼈수다. 그래서… 아직 먼길을 가야겠기에…》

그의 옆에는 피나무껍질로 든든하게 꼰 신끈이 한줄이나 놓여있었다.

문철은 그만 가슴이 뭉클해서 마치 처음보기나 하듯 순봉의 너부죽한 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아바이두 참, 왜 이 좋은 일을 혼자 합니까?》

분대장인 자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것을 간간히 찾아보고 묵묵히 수고를 바쳐가는 전사의 마음이 가슴뜨겁게 느껴진 문철은 미안한 감정을 이렇게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순봉은 그저 입가에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졌다.

문철은 순봉의 곁에 함께 앉으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여 내밀었다.

《참, 아바인 고향이 황해도라고 했지요?》

《예, 황해도 재령나무리별이지요…》

《살기 좋은 고장이군요.》

《그렇지요. 하지만 해방전에야 그 땅에서 죽지 못해 살았지요.》

문철이 내미는 담배를 받아 불을 붙여문 순봉은 컴컴한 숲속 한구석을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분대장동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방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두 치가 떨립니다.》 하고는 잠시 빼금빼금 담배를 빨았다.

가슴을 치받치는 어떤 쓰린 추억을 더듬는듯 담배를 쥔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게 해방되기 7년전 일이우다.》

한뼘기 제 땅을 갖구싶어 장수산기슭을 뛰지구 손바닥만한 논을 일켰는데 물이 있어야지요. 그 날도 산기슭에 올라가 웅드레우물이라두 파보느라 역사질인데 밑에서 갑자기 아들의 비명소리가 터지질 않겠소. 허둥지둥 달려내려가보니 발머리에 애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물때문에 신고하는 이 애비를 보다 못해 그 녀석이 지주놈의 정원못으로 흘러드는 개울물을 끌었던거웨다.

그게 지주놈의 눈에 띄웠수다. 그 악마같은놈이 단통 눈에 달이 떠서 달려들었지요. 임자없는 땅이 있고 물이 있느냐며 그에 아홉살 철부지를 때려죽였수다. 한줄금 물때문에 생때같은 아들 녀석을 잃은게 너무 기가 막혀 가슴에 박힌 그 못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빠지질 않더군요. 눈도 못감고 죽은 애를 생각하면 환장할 지경이여서

한밤중에 도끼를 들고 지주놈집으로 달려간것도 몇번이었수다. 로친이 다른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어찌는가고 막무가내 붙잡지 않았더라면...》

순봉의 목소리는 비분에 떨리고 두눈은 타는듯이 글거렸다.

《해방된 그 이듬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물이 없어 고생하는 우리 농군들의 목마른 사정을 다 헤아리시여 큰 저수지를 건설하도록 해주셨수다. 그래서 온 군이 떨쳐나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생명수가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저수지가 생겨났지요.

그 개통식이 있던 날 수로를 따라 분여받은 우리 집 그 논으루, 작은놈이 피를 토하며 죽은 그 논으루 물이 철철 흘러드는걸 두손으로 움켜보고 또 움켜보며 <장군님, 고맙습니다.> 눈물속에 외우던 일이 눈에 선하우다.》

순봉의 더부룩한 검은 눈썹이 실룩거렸다. 문철은 가슴이 찌르르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 내 입대할 때 로친네가 펄쩍 뛴데다. 아니 아들 둘을 전선에 내보냈으면 똬지 령감까지 꼭 나가야 하느냐, 보잡이는 누가 하구 전선원호는 누가 하는가구 들이댈디다.

헌데 왜 그런지 내가 나가질 않으면 꼭 그 지주놈 세상이 다시 올것만 같아 도시 마음이 놓여야지요.》

순봉은 먼구해서 문철을 돌아보았다.

《사실 나와봤자 짐박에 더 되는데 없는걸, 분대장동무가 나때문에 욕 많이 보우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잘못이 많았습니다.》

문철은 순봉의 두손을 덥석 잡으며 부르짖었다. 아바이에 대해 자기가 너무 단순하게 속단했고 아직 많은것을 모르고있다는 자책이 가슴을 찔던 것이다.

자정이 가까와 문철은 불시에 련대장의 긴급호출을 받았다.

그것은 계성산계선에서 완강한 방어로 이전한 적들이 지금 부랴부랴 예비대를 끌어내는 한편 시간을 얻기 위하여 아군의 공격이 시작되는 경우 계성산 옷쪽골안에 자리잡고있는 금천저수지를 폭파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었다.

적들이 저수지를 폭파한다면 홍수처럼 범람한 큰물은 련대의 전투행동에 커다란 난관을 지어놓을 것이었다.

더구나 저수지물길이 뻗어간 계성벌판에는 인민들의 여러 부락들과 논벼가 한창 푸르러가는 수백정보의 농토가 자리잡고있었다.

문철의 분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격시간전에 적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저수지를 지켜내야 했

다.

임무를 준 련대장이 습격조로 데리고 갈 분대원들에 대해 물을 때 문철은 순봉전사의 그 《한박자 반》이 떠올랐다.

전례를 보아 아무래도 분대행동에 부담이 될것 같아 그만은 고려해달라고 제기하려던 그는 다음 순간 서둘러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저녁때 일이 문득 돌이켜졌기때문이었다. ...

《그래, 처음부터 완성된 병사란 없는 법이거든.》

문철은 마치 그 누가 자기 생각을 부정이라도 하는듯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에 힘을 넣었다.

끊임없이 주절거리며 따라오던 선률적인 시내물소리는 어느덧 멀어졌다.

검푸른 밤하늘에 또렷이 박힌 북두칠성이 더욱 선명한 광채를 뿌린다.

어느덧 목적지가 가까와졌다.

그들은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

처음엔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어가는것 같았다. 그들이 저수지근방에 당도했을 때는 야광시계의 바늘이 이미 새벽 4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예견했던대로 놈들의 경계는 삼엄했다.

큰 철문이 달린 네개의 취수구는 습격조원들이 었던 산턱에 치우쳐있었는데 취수구입구에 적들의 중기관총진지가 있고 란간으로 련결한 취수구 건너편끝에 모래가마니를 높이 둘러쌓은 돌집이 있었다.

그 돌집앞에 탐조등이 설치되어 어둠속을 비질하듯 훑고있었다.

축광 센 탐조등빛이 뱀허같은 불광을 휘두르며 똑우와 수면을 활을 때마다 건너편 대안을 감돌아 흘러간 도로와 취수구우의 다리우를 오락가락하는 적 보초병들의 물결이 환히 드러났다 사라지곤했다.

정찰을 나갔던 부분대장이 돌아왔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취수구 건너편의 돌집에 폭파장치를 해놓은게 분명하다고 했다.

우물거릴새가 없었다.

곧 임무가 분담되었다.

문철은 두 전사와 함께 똑으로 접근하여 탐조등을 까고 돌집과 그를 둘러싼 진지안의 적들을 소멸한 다음 폭파장치를 제거하기로 했다.

취수구옆에 있는 중기관총진지는 부분대장이 다른 한 전사를 데리고 맡았다.

문철은 마지막으로 순봉과 근영을 불렀다. 그리고 컴컴한 룬광만이 드러나보이는 긴 제방의 끝과 잇달린 맞은편 대안을 가리켰다.

《동무들은 저 건너편 언제끝을 차지하고 경계 임무를 수행해야겠소. 도로방향에 적들이 나타나 는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철수신호가 있을 때까지

지 놈들을 견제하시오.》

《알았습니다.》

두 전사는 가슴을 펴며 낮으나 힘찬 어조로 대답했다.

문철은 마감으로 순봉의 손을 잡으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격려의 그 뜻을 이해한 순봉은 가슴을 쪽 펴며 마주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근영을 따라 실롱거리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코를 바라보며 문철은 어쩐지 그쪽에서 다른 정황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내심에 고패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전투는 적 탐조등을 까는 문철의 수류탄폭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진지에 쌓아올린 모래가마니가 터진 팔자루처럼 확 헤쳐져올라가고 불광을 휘두르던 놈들의 탐조등이 산산조각나 흩어졌다.

《앞으랏!》

타래치는 먼지와 연기, 돌집안에서 아우성치며 적들이 쏟아나왔다.

기관단총이 불을 뿜고 연거퍼 수류탄이 날아갔다.

귀청을 켜는 비명과 울부짖음소리...

그속을 뚫고 문철은 철문을 건어차며 돌집안으로 뛰어들었다.

매캐한 화약내에 숨이 킁 막혔다.

그런데 죽어넘어진 놈들의 시체만 발길에 채일 뿐 아무리 뒤져보아도 폭파장치가 보이지 않았다.

문철은 전신의 힘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저수지를 크게 믿고있는 놈들이 폭파준비를 그렇게 소홀히 할수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군의 있을수 있는 습격을 예견하여 돌집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다른곳에?! ... 교활한 놈들.

어디서 어느 순간에 놈들이 폭파스위치를 누를지 모른다는 긴박감이 가슴을 압박하듯 탕개를 죄어들었다.

혹시... 문철은 문득 짙이는 생각에 창황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였다. 문철의 판단을 확증이라도 하듯 불시에 건너편 대안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렸다.

검은 띠처럼 웅웅그리고 앓은 대안의 숲속에서 긴 탄도를 그으며 예광탄의 불줄기가 휘고 확, 저수지물에 번져내린 무엇이 너울너울 탄다.

아, 이놈들이...

문철은 아찔했다.

놈들이 폭파선을 저 대안쪽에 끌었다면... 그 다음일은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동무들! 빨리.》

문철은 성급히 웨치며 제방쪽을 내달았다. 그러나 몇발자국 달려가던 그 찰나에 그들은 다시 박힌듯 굳어지고말았다.

파광- 저수지 맞은편기슭의 컴컴한 숲속에서 칼날같은 긴 불띠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제방쪽으로 쪽 뻗어나왔던것이다.

문철은 가슴이 순간에 똑 멎는것 같았다. 그것은 한순간에 수천메터를 점화하는 도폭선의 불띠였다.

다음순간, 문철의 눈앞에서 파르릉- 저수지쪽 전체가 어마어마한 흙기둥을 일구며 곧두서올랐다.

검붉은 화염이 온 하늘을 뒤덮고 땅이 움쉴움쉴 울렸다. 대기가 부르르 진동했다.

사태처럼 흙비를 쏟으며 제방이 무너져앉자 이어쪽에 막혀 움실거리던 저수지물이 바다처럼 밀려나왔다.

우르릉- 소리를 지르며 떨어지는 물장벽의 사태, 서슬푸른 시허연 물갈기, 부서져 흩어지는 똑 밑의 나무들이며 벌판과 다리들, 마을들, 저지당한 현대의 공격서열...

그러나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다.

폭발의 섬광은 문철의 머리속에 먼저 일어났던것이다. 도폭선의 불띠는 웬일인지 중간에서 칼로 자른듯 끊어졌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건너편 대안에서 터지는 자지러진 총소리가 모든 소음을 누르며 귀전을 파고든다.

거기서 지금 어떤 괴어진 혈투가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문철은 직감했다.

문철은 이를 부득 같았다.

《순봉아바이! 근영이!》

이제 습격전투의 결정적절쇠는 가장 차요적인 임무를 분담했던 그들 두 병사에게 맡겨졌다.

아직 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농민의 체취가 짙게 습배인,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돌발적정황에 세워놓고보면 너무도 믿음이 안가는 그 《한박자 반》에게 말이다.

...순봉이와 근영은 제방밑의 물마른 자갈밭을 지나 건너편 대안에 이르자 이슬이 내린 쪽으로 올랐다.

영경귀며 우렁파위들이 걸음마다 발에 걸채었다. 제방우에 올라서자 희번쩍이며 출렁이는 검푸른 물결이 끝이 안보이게 어둠속에 넘실거렸다.

비안개같은것이 몽롱히 떠있는 저수지 한복판은 검은 비로도를 깔아놓은듯 진한 어둠속에 묻혀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다.

습습한 물비린내를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순봉은 긴숨을 들이그었다.

취할듯싶은 물냄새에 숨이 다 막히는것 같다. 긴 멀기를 이루어 밀려와 철썹, 철썹 기슭을 치

는 물결이 이름할수 없는 벽찬 감정을 안겨준다.
(그놈 저수지 한번 풀면 논배미마다 철철 넘치겠구나...)

순봉은 갈대와 부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물렁물렁한 저수지기슭을 따라 허리를 구부리고 앞서 걷는 근영을 톡 쳤다.

《님자, 그 말 한마디는 잘했어...》

《뭘 말예요.》

근영은 긴장해서 돌아보았다.

《물소리가 노래소리같다는...》

《차, 아바이두, 정신있어요.》

근영은 두눈을 크게 뜨며 허를 찼다.

제방쪽의 마지막끝은 빼곡이 들어찬 아카시아 숲과 이어져있었다.

두 전사가 잠시 사위를 살피고 도로와 잇닿은 아카시아숲속으로 얼마쯤 들어섰을 때였다. 어디선가 무엇이 디그르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바이!》앞서걸던 근영이 불시에 자세를 낮추더니 한손을 들어 뒤로 뻗었다.

순봉은 엉거주춤 섰다.

달그락거리는 쇠소리, 중얼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순봉은 전기에라도 닿은듯 깜짝 놀라 허리를 꺼부정하게 낮추며 귀를 강구었다. 킁킁한 숲속에서 어음이 센 남도사투리들이 들려왔다.

《다 뻤는기여?》

《뻤음둥》후- 길게 내쉬는 숨소리에 이어 카- 입이 찌지게 몰아쉬는 하품소리가 났다.

《그놈의 중대장 오뉴월 염천에 썩어 문드러질 늪새끼, 잠 한잔 안재우고 내모는 꼴이란 눈에 시여.》

《그기다 공산군습격이 무서워 하는노릇 아닝기여, 이젠 뻤당기로, 불만 달면 저놈 톡 한복판이 하늘로 확 할기다.》

순봉의 가슴은 후두두 뛰었다.

너무도 창황중에 부닥친 정황이었다.

제방쪽에 폭약을 장약한 적들은 폭파선을 누구도 모르게 바로 이 무성한 숲속으로 끌어온것이였다.

(이 간악한놈들이...)

가슴속 피가 부그르르 끓어올랐다.

방망이질하듯 뛰는 심장이 금시 흉벽을 차고 밖으로 튀어 나올듯싶었다.

저벽저벽, 놈들의 발걸음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시에 굽히고 찢리면서 그들은 발뻘발뻘 숲속으로 들어섰다.

어둠속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서리가 내밀린 커다란 너럭바위밑에 땅에 묻다 남은 바줄같이 굵은 선뭉음이 시꺼멓게 보였다.

《아바이, 도폭선뭉음이군요.》

근영이 눈을 번뜩이며 속삭였다.

《도폭선?》

《불이 달리면 순간에 폭발하는 폭파선이에요.》

《그럼 이게...》

다섯 선을 하나로 묶은것을 틀어쥔 순봉의 두손이 부르르 떨렸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근영이, 본대의 임무수행이 우리 손에 달렸네.》

《아바이, 선을 따라가봅시다.》

《안돼, 시간이 없어. 이놈을 끊어버려야 해.》

순봉의 손은 결연히 꿈무늬에 찬 공병가위로 갔다.

이때 취수구쪽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자지러진 총소리가 터졌다.

《시작되었어요. 아바이! 빨리...》

그러나 근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공산군이다!》하는 간떨어지게 찌지는 소리가 코앞에서 일어났다.

숲속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우르르 그들쪽으로 밀려나왔다.

순간 근영이 순봉을 막아서며 바위우에 뛰쳐올라섰다.

《아바이, 부탁해요!》

놈들 한복판으로 뛰어들며 근영은 기관단총을 휘둘러댔다.

《으악, 여기도 있다.》

혼잡한 놈들의 비명이 새벽공기를 찼다.

비명소리, 고향소리, 양철판을 두드리는것 같은 총소리...

순봉은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도폭선 묶음에 공병가위를 들이댔다.

그러나 아픔이 커서 한 가위에 먹지 않는다. 땀이 뿌질 솟았다. 안되겠다.

선뭉음을 드러내고 한선씩 자르기 시작했다. 한토막 또 한토막...

《불을 달아라, 이 자식들아, 불! 불!》

미쳐뛰는것 같은 단말마의 악청이 들려온다. 비발치듯 날아드는 적들의 흉탄이 휘파람소리를 내며 귀전을 스친다.

아카시아나무들이 펑펑 중둥이 잘려 순봉의 머리에 떨어져버렸다.

이제 한토막 남았다.

그때였다. 불쑥 바위옆의 숲속에서 대여섯의 적병들이 나타나더니 도폭선을 꿰고있는 순봉을 발견하자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덮쳐들었다.

땅, 땅- 순봉의 보총이 불을 토하자 두세놈이 쓰러지는듯했으나 허리어방이 뜨끔하는바람에 그도 흠칠 몸을 솟구었다. 숨이 꺾 막혀왔다.

아, 내가 왜 이러는가. 몸을 비트는듯한 아픔이 전신에 퍼져오며 창백하게 사위여가는 강철빛 새벽하늘이 눈앞에서 휘 돈다.

그러나 입을 악물고 달려드는 원쑤놈의 팔통을 총탁으로 힘껏 후려쳤다. 그리고는 뒤로부터 끌어안은 마지막놈의 목줄띠를 꺾쇠같은 두손으로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그 순간에 둘은 한덩이로 엉켜 경사지로 굴러떨어졌다. …

혼미해진 의식속에서도 전신의 힘을 다 모아 목줄을 쥔 놈의 숨통을 눌러버린 순봉은 간신히 눈을 떴다.

무수한 불씨가 튀며 자욱히 흐려오는 눈앞에 끊어지다 남은 한토막 도폭선이 손을 뻗치면 잡힐듯 지척에 가물거린다.

열발자국… 그 열발자국이 이처럼 멀어보이기는 처음이다.

그는 아카시아그루를 당기며 《어떻게든 불이 달리기전에… 달리기전에…》 하고 중얼거리며 가기 시작했다.

주름이 얹힌 미간을 타고내린 줄땀이 눈을 뜰 수 없게 한다.

바위쪽에서는 여전히 자지러진 총성이 들려온다. 근영이! 조금만 견디라구!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가. 요만한 부상에 이꼴이 되다니. 근영이 말이 옳아, 내가 병사구실을 하자면 아직 멀었거든.

순봉은 기진하여 그만 머리를 떨구었다.

문득 발밑에서 무엇인가 어루만지듯 출렁거리는 정다운 음향이 귀전을 울려온다. 철썹, 처절썹…

물소리… 아득해지는 의식속에 잊지 못할 물소리가 가슴속을 파고든다.

먼지이는 발머리를 적시던 피가 섞인 땀건물이 눈앞을 스쳐간다.

아, 원한의 그 세월을 씻어버리며 해방된 이듬해 봄, 분여받은 논배미로 철철 흘러들던 그 고마운 물소리가 잊을수 없는 추억의 나날들을 불러온다.

모를 내세 모를 심어
풍년모를 어서 내세
기름진 옥토벌에 푸른물 넘실대네
…

씨레질 끝낸 유리판같이 일매진 논판에 첫 모춤 잡아들고 들어설제 출렁거리며 종아리를 간지럽히는 물소리가 혈맥을 타고 온몸을 전줄리 그만 지그시 눈을 감고선채 더 발을 옮기지 못하던 일이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그 땅, 그 고마운 제도를 지키자고 나선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련대의 공격이 좌절된다. 이 저수지밑의 마을들과 수많은 농가와 농토들이 물바다에 잠긴다. 안된다, 이놈들!

순봉은 힘들게 머리를 들었다.

민음에 찬 분대장의 눈빛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 순봉의 눈은 숯불처럼 타올랐다.

《분대장동무! 넘려마우다.》

입술로 홀러드는 찻찻한것을 삼키며 순봉은 한치 또 한치 경사지를 뚫아오르기 시작했다. 끝끝내 바위밑에 이르렀다. 손을 뻗쳐 간신히 도폭선을 틀어쥔 순봉은 전신의 마지막기력을 모아 남은 한선을 힘껏 잘라냈다. 그리고는 끊어진 선땀을 끌고 다시 밑으로 굴러내렸다.

도폭선이 점화된것은 그 순간이었다.

…

부러진 총가목이며 여기저기 널려있는 적의 시체들우에 떠도는 매캐한 화약내를 불어버리며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저수지기슥에 모여선 전사들의 초연에 끄슬린 옷자락이며 머리칼이 기발처럼 날라졌다.

순봉은 전우들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눈물이 그러한 근영의 가름한 얼굴이 안개속에서처럼 안겨왔다.

《순봉아바이!》

분대원들이 도폭선의 폭발에 치명상을 입은 순봉을 한꺼번에 에워쌌다.

힘들게 눈을 뜬 순봉은 문철을 알아보자 간신히 입을 열었다.

《분대장동무! 저수지는…》

《무사합니다. 아바이! …》

문철은 뜨거운것이 목을 짹 메여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순봉은 애써 미소를 짓는다는게 그만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상처의 고통이 참을수 없이 엄습해왔던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무슨 소리인가를 듣고있는듯 허공중 한점을 주시하며 웃고있었다.

아! 문철은 그가 저수지기슥을 치는 물소리를 듣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피로 지켜준 전사의 심장의 박동에 뜨거운 격정으로 감응하는듯 뽀얀 젖빛안개속에 이랑이랑 밀려와 철썹, 처절썹 기슭을 치는 호수가의 물소리, 대지를 뒤덮는 물결의 그 설레임소리…

그 파도소리를 들으며 순봉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안돼요! 아바이!》

근영이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순봉을 흔들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문 문철은 비분을 억제 못해 땅을 쳤다.

가슴은 쓰리다못해 막 터져버릴듯했다.

그 무엇을 사랑한다는것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쳐 헌신한다는 말일진대 진정한 병사는 조국의 귀중함을 그 어떤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피로 감득하며 자기의 심혼을 다 바치는 말없는 성실성으로 그 사랑

을 표현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니에게 바치는 자식의 헌신같은 말없는 사랑으로 이 땅의 대지를 지킬줄 아는 병사!

이런 병사의 심장속에 간직된 고결한 영웅성은 결코 외모나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것이다.

빠져린 후회가 가슴을 에이며 지나갔다. 문철은 자기가 앞으로 주위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전사들을 결코 무심히 보지 않으리라라는것을 느꼈다.

쿠구궁, 불시에 새벽빛이 짙어가는 계성산너머 하늘에서 지심을 뒤흔들며 요란한 포성이 터져 올랐다. 그쪽 하늘은 온통 타는 불을 담은것처럼 이글거린다.련대의 공격이 시작된것이다.

승리한 련대는 또다시 남진의 길에 올랐다.

행군대오의 앞에서 걷던 차문철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실룡거리는 걸음새로 본대의 맨뒤에서 걸군하

던 《한박자 반》의 모습이 여전히 따라오는것 같은 환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없다.

차문철은 그대신 그윽한 선물이 공명되어 흐르는듯싶은 그 어떤 우미한 음향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호수가의 기슭을 치던 그 정겨운 파도 소리였다. 순봉이 온 심혼으로 감득하며 것처럼 듣고싶어하던 마음의 노래였다.

문철의 눈굽에 뜨거운것이 펴 고였다.

그가 지켜낸 대지의 숨결인 그 물소리와 더불어 전사 김순봉은 지금도 대오와 함께 가고있다 고 문철은 굳이 믿었다.

그렇다.

조국에 자기의 온 넋을 다 바친 병사의 생애 어찌 끝이 있으랴!

고향이란

(총련) 김윤호

그리워

그 언제나 그리워

오고싶은곳

평양

아, 그 몇번째

이 푸른 하늘아래 들어서는데

이역의 찬바람에 희어진 머리카락을

평양의 맑은 바람에 맡기며

해빛은 그 언제나 파사로울고

나를 반겨

평양의 거리거리에

꽃들이 피어 웃는듯

올 때마다

마음도 한껏 부풀어오르는 나의 조국이며

안아보자

팔벌려 안아보자

개선문의 대리석기둥아

올려다오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여

술하게 술하게 찾아오는

우리 해외공민들

그들도 나와 같은 이런 기쁨일가

이국살이 고달프면 고달퍼 생각나고

기쁠 때면 기뻐서 두눈에 어려오는

마음의 고향 평양

내 어릴 때 떠나온 고향

락동강에 흘러드는 지류의 물결소리

가슴에서 떠난적 없고

할아버지의 산소가 거기에 있어

가고싶어도 가고싶어도

예순을 넘기고도 가보지 못하는 그 땅

고향은 나를 불러도

고향을 타고갔은 원수들이 미워

나는 조국을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며

어제도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오는 아, 평양

오는것은 오는것은

올 때마다 수령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오라

다시 만나자

우리 장군님 불러주시기에

내 몸도 마음도 다 평양에 맡겼나니

몸은 이역에 있어도

넋은 여기에 있노라

고향속에 내가 있고

조국속에 고향이 있기에

아, 평양

평양은 나의 고향!

영원한 나의 고향!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감동깊게 노래한 심오한 시적형상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에 대하여-

안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노래가 혁명투쟁과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문학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1980년대의 첫해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퇴색을 모르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노래로, 시대의 명곡으로 울려퍼지는 가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이 가요의 진할줄 모르는 생명력은 가사의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과 강렬한 견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 이 가요를 들어주시고 가사가 우리 당의 투쟁력사를 담았는데 많은것을 사색하게 한다고 거듭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김두일 작)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정서와 사색 속에서 끝없이 불려일으키는 련상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이다.

해방후 빈터에서 자기의 발걸음을 시작한 우리의 주체조국이 오늘의 높이로 올라설수 있게 된 그 역사적로정에 바쳐진 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에 대한 눈물겨운 추억, 가지가지의 사색을 불려일으키는것으로 하여 가사는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못잊어하시는 명가사로 되고있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감동깊이 그리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여기에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의 거대한 감화력과 견인력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의 감정을 불려일으키면서 가사는 주체조국건설의 역사는 조국애, 인민애로 수놓아진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의 역사로 이루어진것임을 심오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펼쳐보임으로써 끝없는 사색의 심연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있다.

락원의 거리가 수없이 뻗어가고 행복의 불빛 눈부신 인민의 요람이 끝없이 일떠선 조국의 모습을 숙연히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주체조국건설의 역사가 우뚝이 되새겨온다.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

는가.

가사는 우선 주체조국건설이 조국애로 수놓아진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 조국애의 성스러운 력사가 있어 시작되었음을 형상적으로 강조하면서 건국의 나날에 대한 추억으로 사색의 흐름을 터쳐준다.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이여
꽃물결 흘러가는 조국의 거리여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해방의 기쁨은 온 나라에 차고넘쳤으나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 그때,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락후와 빈궁이 무겁게 내리드리우고 말그대로 빈터만이 남아있던 이 땅에서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 건설의 명확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주체조국건설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였다.

그 초행길에는 그리운 조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고향보다 먼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던 만경대의 갈림길이 있고 온 나라에 푸른 숲을 펼쳐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오르시였던 문수봉의 오솔길도 있으며 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셨던 보통강개수공사장의 감탕길도 있으며 항일혈전의 포연이 그슬린 군복차림으로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걸고걸으신 공장의 구내길과 산간마을의 논둑길도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뜨셨던 《건국의 첫삽》으로 하여 해방후 그 빈터우에서 주체조국의 반석같은 터전이 마련될수 있었고 그 터전우에서 오늘의 사회주의강국이 위용을 떨치며 일떠설수 있었던것이다.

가사는 숭고한 조국애를 지니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조국건설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가슴뜨겁게 노래하면서 《건국의 첫삽》에 대한 철학적사색을 통하여 수령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는 거대한 사상적내용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가사는 또한 주체조국건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애, 인민애의 한생과 더불어 이 땅에 력사의

년륜을 새겨왔음을 정서깊이 노래하면서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웠던 나날에 대한 추억으로 사색의 노를 저어가게 한다.

포화에 불타버린 폐허우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였네
수령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천리마의 억센 나래 펼쳐주셨네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든것이 불타버린 전후의 제더미우에서 우리 인민이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맨손으로 기어이 복구건설에서 승리할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깊이 소중히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생의 좌우명으로 여기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고틉을 같이하신 우리 수령님. 그이께서는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주체조국건설의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주체조국건설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인민애의 한생이 있어 우리 인민이 폐허우에서도 복구건설의 마치소리를 힘있게 울릴수 있었고 천리마의 억센 나래를 활짝 펴고 기적과 혁신의 길로 줄달음쳐 오늘과 같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을 이 땅에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던것이다.

가사는 장구하면서도 영광에 찬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는 바로 우리 수령님의 인간애, 인민애의 력사와 더불어 흘러온것임을 노래하면서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조국은 **김일성** 조선이라고 긍지높이 부르게 된다는것을 깊은 철학적 사색속에서 형상적으로 확신시키고있다.

가사는 또한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사색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있다.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이것은 단순히 주체조국건설의 간고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며 력사에 대한 인식도 아니다.

이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주체조국건설에 바쳐진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에 대한 경모의 감정이며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 맹세와 의지의 자각이다.

우리는 제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이 땅에 주체조국 높이 세웠네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아 오직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과 더불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일떠세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해나가려는 인민의 불타는 일념,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그이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려는 맹세와 의지로 지향된다.

그것은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와 품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오늘의 우리 수령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갈 때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에 새겨진 수령님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며 주체조국건설의 력사적전진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가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충효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지, 드물지 않는 신념을 뜨겁게 노래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는 계속된다는, 이 땅에 영원히 계속되는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와 더불어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심오한 사상으로 사람들의 철학적사색을 이끌어가고있다.

이처럼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노래함으로써 수령님의 거룩한 한생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키는것으로 하여 가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세월의 이끼속에도 묻히우지 않는 시대의 명가사로 되는것이다.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사상정서적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은 특색있는 세련된 시적형상이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안받침하고있는것과도 크게 관련된다.

주체조국건설의 력사라는 폭넓고 방대한 내용을 가사는 십여줄의 시행에 충분히 담으면서도 사색의 진폭이 크게, 정서적여운이 짙게 시적형상을 창조하였다.

가사는 생경한 정치적술어의 라렬로써가 아니라 생활적인 표상을 주는 시어들로 시적형상을 창조하여 사상적내용을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히 담을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이면서도 생활적인 표상을 안겨주는 《빈터우에서》, 《맨손으로》는 주체조국건설의 시련에 찬 력사를 방불히 그려보게 하는것으로 하여 철학적여운이 강하게 가슴

을 파고든다.

수령님의 조국애, 인민애의 한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라는 시구절은 구체적인 생활적바탕, 생활적계기에 대한 형상적조명을 통해 생동한 예술적표상속에서 작품의 사상을 정서적으로 파악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가사는 역사적순차성에 맞게 매절의 형상적내용을 뚜렷이 구분지으면서도 전체 시형상을 통하여 주체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라는 하나의 생동한 화폭을 펼쳐놓으면서 많은것을 련상시키고있으며 사색의 질은 여운을 주고있다.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풍부한 예술적형상이 결합된 가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의 창

작성과는 시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효의 마음을 지니고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기 위한 진지한 창작적사색을 거듭한다면 장군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민이 사랑하는 훌륭한 명가사들을 많이 내놓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명가사, 전진하는 시대를 선도하고 투쟁하는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명가사창작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음으로써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전투적고무를 안겨주어야 한다.

나의 잔등에

김명길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 내옆을 지나간 복도길에서
문득 걸음 멈추고 뒤돌아보는 마음이여라
당일군 나의 잔등에
그들의 생각의 눈빛 얹혀진것 같아서

스치고 지닐수 없는 일을 두고
쉽게 내려가지 앓을 추궁을 한 사람이면
생각끝에 찾아와 터놓은 고충을
선뜻 풀어주지 못한 사람이면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져...

그런 때이면 이내 량심에 묻군하노라
나의 잔등에 얹혀진 그들의 눈빛이
어려운 때 자신들의 마음의 짐을
나에게 선뜻 다 맡길
그런 눈빛인가를

그러면 길지 않은 나의 생이 추억되거니
철없던 시절 어머니 손목잡고 길을 가다
다리 아프다 칭얼대면
말없이 들쳐업던 어머니
그 어머니 따뜻한 등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속에
내 오늘에로 이르렀던가

내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난탓이던가
지금도 생각하면 주름깊은 얼굴보다
덜석 얹히우던 널직한 잔등이
더 먼저 추억되는 리당비서아저씨

눈오고 비오는 날 그 등에 얹혀
십리길 넘던 학교로 오간적 얼마였던가

신입병사시절 불더위 쏟아지는 행군길
배낭맨 정치지도원동지 잔등에
나의 배낭 덧올려놓고
어릴적 그날을 생각하며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삼켜가면서 걸던
못잊을 추억이여

어느덧 세월은 흘러흘러
오늘은 내 못잊을 그 사람들 위치에 섰거니
나의 앞에서 웃음으로 피던 눈빛이
불신의 빛으로 바뀌어진다면
어이 자신을 이롭게하랴
어머니 우리 당의 일군이라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똑같은
군중의 믿음의 시선을 받으며
내 받는 마음 그 무슨 무거움 있으랴
믿음속에 얹혀지는 동지들의 마음의 짐
그것이 없다면
당일군 나의 삶은 허무하려니

총총히 멀어져가는 사람들 뒤모습에
속다짐의 눈빛 없노라
내 한생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바라시는
그런 당일군이 되리라는것을
동지들의 믿음속에 살며
그들이 주는 믿음의 짐 떠메고가리라는것을...

움직이는 땅

홍철진

눈내리는 《한가위》

한계절만이라도
쓰린 옛상처를 덮어주고파
함박눈, 함박눈은
소리없이 내리는가
하이얀 봉분이 된 신천의 묘앞에
나는 지금 말없이 서있다

바라보면
아이들의 털장갑에 다져진
소담스런 눈무지만 갈구나
좁으려면
솔가지로 눈섭까지 척 매단
눈사람이 될것만도 갈구나

그 누가 저안에
102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아직도 불달린채 있다고 하라
400명 어머니가
두눈을 홉튼채 있다고 하라

귀기울이면
젖달라고 부르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려만질듯
지금도 손을 내밀고 아이들을 찾는
어머니들의 부릅뜬 두눈도 보여만질듯

찬눈은 소리없이 봉분을 덮어도
이 가슴엔 타번지는 증오의 불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불이여서
신천의 너를 찾아 우리 왔는가
눈내리는 오늘도
돌아간이들 찾는 한가위이란말인가

한달, 두달, 열두달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분노를 못지운 이 땅의 가슴들엔
저 뽕꽃봉마냥 피의 언덕이
언제나 우뚝 솟아있기에

묘, 묘는 한가위에만 찾는것이
이 땅의 풍습으로 전해왔건만
봄, 여름, 가을
증오의 달력을 걸고 사는 이 땅에선
눈내리는 이날도 《한가위》이 되었구나

꽃들고 찾는 추석 하루이건만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오, 신천의 《한가위》만은 삼백배순다섯날
그래도 모자라는 이 땅의 풍습이다
그래서 찾고찾는 이 땅의 모습이다

나이많은 소녀

신천박물관의 강사
저 어머니란말인가
신천을 물어뜯던 승냥이의 이발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그날의 소녀가

이제는 무릎우에
그 나이의 손녀를 앉히고도 남을
주름많은 모습으로 어머니는 섰건만
어찌하여 나의 눈엔
엄마를 찾으며 발버둥치던
그날의 8살소녀로 안겨오는가

엄마찾는 소리도
분명 그때의 피타는 목소리
신천의 하늘아래 머물러있는
그날을 고발하는 소녀의 웨침

상처많은 이 땅에도 세월은 흘러
이제는 옛모습을 다 가셨건만
내앞에 서있는 나어린 복수자
그 어머니 나이만은 다치지 못했구나

원한품고 누워있는 신천사람들이
분노를 베고 누운 이 땅의 령혼들이

다 못산 나이들을 덧쌓아주며
그날의 소녀로만 붙들고있기에

오, 신천의 어머니 나이많은 소녀여
더 다르게는 부를수가 없구나
하늘가에 닿은 신천의 원한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이 땅의 아들들이거니

그래서 저 밤나무결의
화약창고 대문은 열려졌건만
아직도 갇혀있는 어머니의 나이
더 못자라는 그대의 나이
나는 지금 내 나이로 손꼽아본다

움직이는 땅

움켜쥔채 커지는 이 땅의 주먹들이
화석처럼 굳어져 뭉쳐지는 신천에
이 작은 주먹도 덧쌓아놓고
나는 복수의 대문을 나서고있다

걸음걸음 신천은 멀어지건만
이 가슴에 실리어 함께 가는 땅
나뿐이라
총을 멘 저 병사의 부혁끈에서도
신천이 조여지고있지 않는가

원쑤의 숨통을 거머쥔 총대우에
신천의 묘비며 화약창고가
그대로 조성, 조문이 되어
병사와 함께 가고있는것은 아닌가

어이 알리
김책에서 왔다는 저 제철공
그 무죄가슴에도 실려가는지
온 나라가 지켜보는 해탄로 굴뚝우에
흰연기 지퍼가는
불이 되어 신천이 가고있는것인지

움직일수 없는것이 땅이라지만
분노의 화산되어 태동하는 신천만은
한자리에 머물러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따라서는가

하여 더 굳세지는 철의 가슴
강행군길이 멀고 험해도
신천의 손을 잡고 일어설 우리
신천의 숨결을
언제나 머리말에 놓고 살 우리

쓰러져 일어서지 못한다며는
다시 목을 조여맬 노예의 사슬
아, 또하나의 신천이
이제 다시 설자리
이 땅 어디에 있단말인가

그래서 아니라
신천을 통채로 안고가는 가슴에
무심한 풀 한포기
길가의 작은 조약돌마저
빼놓지를 못하고 다 품고가는것은

탄부, 만아들답게 살리

강남섭

헐치 않았어라
푹고온 이 막장길
한구간 또 한구간...
어떻게 동발을 세워오고
어떻게 탄전을 지켜온 나날이었더나

한창 암벽을 밀어야 할 때
바람이 멎으면
함마를 휘둘러서라도 내밀었고
달리던 전차가 멎어서면
어깨를 들이밀어서라도
기어이 저탄장에 가닿지 않았던가

전기가 부족하고
기름이 부족하고...
그렇게 시련이 겹쌓인 나날들을
우리 그 어떤 기적의 힘으로
푹으며 헤치며 달려올수 있었는지

오, 물어 무엇하리
탄을 기다린다고
온 나라의 눈길이 막장에 쏠릴 때
탄부들 그 무엇을 각오했던가

탄, 탄... 설사 그 탄을 캐다
탄속에 묻힌다 해도
그것을 영예로 알고 탄을 캔
오직 장군님 기쁨에
열정의 삶을 이어놓고 산 탄부의 마음

그 마음은
아버이수령님께 못다바친
그 충성과 효성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 바칠

결사의 맹세!

그 맹세 불길로 타오르고
신념도 량심도 불길이 되어
쏟아져내리었어라
마치 갱구를 메꾸어버릴듯이
《검은금》, 《검은금》 이

진정 그렇게 쏟아져내린것은
인민의 기쁨, 사회주의승리!
그래서 공화국창건 선둑
승리의 그날을 그려보는
탄부의 가슴 이렇듯 부푸는것이더나

오, 막장길 탄부의 막장길
정녕 헐치 않았어라
한줌의 석탄에도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어
탄, 탄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지 않을 우리거니

그래서 한사코 캐어야만 되는 탄!
우리의 사회주의도 붉은기도
그 탄우에 있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도
이 막장에 이어져있음을

그렇구나
어려운 강행군일수록
늬보다 조국에 사랑을 더 주고
늬보다 사회주의빛발을 더 많이 주며 살줄 아는
우리 탄부들이기에
그처럼 나라의 만아들로 불리우고있구나
그처럼 한생 나라의 만아들로 뗏뗏이 살자고
날마다 충성의 석탄산 더 높이 쌓아가고있구나!

항만의 별

한익훈

처음 와보는 남포항은 아니었다. 하건만 1대 구내에 들어서자 몇해전에 왔을 때와 똑같은 장쾌한 감흥이 이 가슴에 넘친다.

초여름의 따스한 오후해빛을 품어안고 다정히 설레이는 푸른 바다에 닻을 내린 만톤이상급의 집채같은 화물선들, 큰 집합을 공기돌처럼 가볍게 물어올리고있는 왁새형의 육중한 항만기중기들, 넓은 구획에 이마를 맞대고 규모있게 들어앉은 천정높은 창고들... 보는것마다가 하나같이 바다를 다스리는 항만사람들의 통이 큰 기개를 자랑하는듯 엄청나게 크고 요란해서 자신의 마음도 한정없이 커지는듯싶은 감개를 금할수 없었다.

큼직큼직한 다른 시설물들에 비하면 모름지기 장난감같은 길가의 1대 지휘부로 다가가는데 방금 문밖을 나선 사감이 앞은체를 하며 반색을 지었다. 1대 분초급당 부비서 조관영동무였다.

내가 로력영웅 현종옥대장이 올해의 수출화물 통과목표를 앞당겨 넘쳐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전투원들의 앞장에 서서 위훈을 떨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노라고 하자 저쪽은 제압담 소리내어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아니, 전투원들의 앞장에 서있는 대장을 만나려다면서... 꼭두새벽부터 전투장에 붙어사는 그가 사무실에 있을게 뭘니까.》

나는 이마를 찼다.

몇해전에 발표한 길지 않은 글에서 《현종옥대장을 사무실에서 만나려고 생각하는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쓰기까지 한 자신이 이런 실책을 범하다니...

《요지음 대장이 며칠째 현장에 붙어삽니다. <평천>호의 집을 <집삼>호에 빨리 옮겨살어 대외로 출항시켜야 할 긴급과업이 떨어졌으니깐요. 보름전에는 끝낼수 없는 방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장이 대담하게 두 화물선을 겹선시켜 이적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절반기일을 단축할수 있게 되었지요. 아마 래일 오전까지면 <집삼>호를 출항시키게 될겁니다.

자, 그럼 또 만납시다. 초급당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그와 헤어져 1대 전투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느라니 부지중 현종옥대장을 별스럽게 만났던 몇해전의 일이 즐겁게 떠올랐다.

물론 그날도 현종옥대장을 현장에서 만났었다.

누런 안전모 밑에서 어글어글한 두눈이 번쩍거리는 철색얼굴의 기가 흰칠한 현종옥대장은 얼핏 뜯어보면 저으기 성깔진 인상을 주었으나 상중

해보니 꽤 다정다감하고 정열적인 사람이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줄곧 전투현장 여기저기를 더듬었다. 때로는 목에 걸었던 호각을 바삐 입에 물고는 긴 손을 뻗혀 내저었다.

《천천히! ... 그래그래... 좋아!》

나는 어떤지 한참 경기에 열이 난 선수를 붙잡아두고있는듯한 미안한 생각조차 들었다.

당위원회에서 대충 그가 떨친 사업성과에 대해서 알고 온 나였으나 그에게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수 없었다. 술한 위훈자들을 만날적마다 느끼는바이지만 그도 여불없이 제 자랑에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한동안이나 제 얘기는 꼬볼도 없이 1대전투원들의 감동적인 가지가지의 위훈에 대해서 신나서 얘기하던 그가 갑자기 두눈을 번뜩이며 짐배 사다리로 성급하게 달려올라가며 부르짖었다.

《아니, 그렇게 왈칵 내려면 어떻게 해.》

나는 취재수첩을 든채 그가 짐배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하건만 그는 짐칸에 화물을 내리우는 일에 달라붙기도 하고 항만기중기 꼭대기에도 오르고 잠을 날라오는 지게차에 올라타고 방향을 대주기도 하면서 다시 올념을 안했다. 아니, 올념이 없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서있는 그였다.

그렇게 좋지 두세시간이 지나 작업이 끝났을 때 수건으로 얼굴에 번질거리는 땀을 닦던 대장이 문득 나를 띄어보고 두눈이 커다래졌다.

《아차, 내 정신 보지. 그만 작가선생을 감감 잊었었군요. 안됐습니다. 덜통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는 어줍게 웃으며 마디가 굵직굵직한 손으로 머리더수기를 굵직이였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느냐고 어지간히 기분을 잡쳤던 나는 되려 가슴이 찡해졌다. 얘기를 나누던 사람을 아예 잊어먹을 정도로 일욕심이 많은 그였으니 말이다.

참으로 별나게도 현종옥대장을 만났던 몇해전의 일에 깊이 잠겨졌는데 누군가 앞에서 반기였다. 목에 호각을 건 철색얼굴의 키가 큰 현종옥대장이었다.

《나는 여기로 오면서 지금껏 몇해전에 대장동무를 취재하다가 놓쳐버린 그 별난 일을 추억했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롱말을 건네자 그는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이 사람이 덜통해서 빗어진 그 일을 제발 잊어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아니, 대장동무의 일욕심에 나는 크게 감동됐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이 더더욱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종옥대장은 전투현장을 둘러보며 손을 내저었다.

《동무들, 한대 피우고 합시다. 여기 작가선생도 왔는데.》

이미 면식을 익혔거나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나는 대장동무와 구면이라는것으로 해서 스스럼없이 친지들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는 큰 실수를 했다.

《정말 여기서들 굉장한 속도로 일하더군요.》

《굉장한 속도라니요?!》

나에게 담배를 권하고 불을 붙여주던 대장이 의아한 눈길을 들었다.

《이 자 조관영부비서를 만나 듣자니 뭐 보름동안에 할 일을 일주일로 앞당긴다더군요. 래일 오전이면 말끔히 끝내다던지...》

나의 말은 중동무이 되었다.

약속이나 한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악의없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기때문이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분명 내 말이 유쾌한 웃음을 산것인데 그 까닭을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가슴을 흔들며 웃던 현종옥대장이 내 팔굽을

짚었다.

《리해하십시오. 작가선생이 벌써 끝내버린... 그래서 이젠 남아버린 우리의 결의목표를 대단한 것으로 여겨주어서 그만 웃음이 나왔던겁니다. 막상 달라붙어보니 일주일일이 아니라 닷새면 되겠더군요. 금방 <집삼>호가 저기 떠나갑니다.》

웬일인지 나도 자신의 실수가 즐거워져서 소리내어 웃었다.

참 별일이였다. 확실히 창피를 당했는데 즐겁기만 했다. 하긴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겨가는 성스러운 오늘의 강행군의 순간순간을 눈부신 혁신적성파로 충만시키고있는 항만사람들의 기세찬 일숨씨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여 당하는 이런 창피야 당하면 당할수록 즐거운것이다.

수평선 멀리로 《집삼》호가 날개 긴 흰 갈매기들의 야단스런 바래움속에 한쪽의 붉은 기발이 비낀듯 진하게 불타는 서녘하늘을 마주 향해 줄기차게 내달리고있었다.

정녕 우리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가는 현종옥영웅, 일욕심이 많은 이런 지휘일군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전투장의 한복판에 서서 항만의 별로 밝게 빛나기에 수출 화물을 만재한 짐배들이 시간을 앞당겨 조국의 기슭을 떠나가고있는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여기 남포항 1대의 현종옥대장네를 찾아오면 또다시 가슴뜨거워지는 눈부신 위훈으로 하여 자신이 《즐거운 창피》를 당하리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런 생각에 잡히게 되니 어쩐지 마음이 못내 즐거워만진다.

그는 오늘도 나팔을 불고있다

박향산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나는 지금 여기서 듣고있다
원췌격멸에로 부르는
힘찬 나팔소리를

김일성장군님의 전투명령
그 나팔소리가 전하는듯
뚜르륵 뚜르륵
불줄기를 뿜는 기관총소리
짜르릉 짱
끝안을 메우는 작탄소리

저 나팔수일수도 있으리
유격구에 기여들던
일제놈들 뒤에 달고
이산저산 내달으며
불고 또 불던 그날의 나팔수

정녕 저 나팔수여라

허리치는 생눈길
그 엄혹한 고난의 행군길에서
사령부의 안녕 지켜
한몫 육탄으로 쓰러진 나어린 투사

허나 그는 그 나팔을 다시 들고
오늘도 혁명의 대오속에 서있어라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투쟁을 멈추지 말라고
오늘도 힘차게 나팔을 불고있어라

천만사람을
혁명의 대오속에 세워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췌를 치자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자고
우리들을 최후승리의 강행군에로 부르고있어라
아 그는 오늘도
추켜든 나팔을 힘차게 불고있어라

창조와 우리 생활

리라순

길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다.

온실의 것처럼 끈계만 자라온 나에게 있어서 궁벽한 산골인 자강도에로의 여행은 먼길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껏 따뜻한 평양의 기온에만 익숙된 내가 수도를 멀리 떠난적이 있었다면 《배움의 천리길》 답사와 왕재산답사밖에 없다.

남편의 고향이며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시부모님들이 계시는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나의 표상에는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기와 집과 그앞으로 흐르는 맑은 시내와 징검다리, 뒤편의 달디단 머루다래와 향기로운 산나물들 그리고 바가지를 띄운 물동이와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박우물...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본 그러루한 것들이었다.

결혼한지 한달밖에 안된 남편은 어린애같이 공상을 즐기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수천리, 자동차를 타고 수백리길을 지나 드디어 남편의 고향에 도착하였다.

《저기가 우리 마을이요.》

마구 들추고 끝없이 멀기만 한 자동차여행에 지쳐버린채 졸고있던 나는 그만 눈이 등그래져서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올렸다.

불빛!

어둠속에서 명멸하는 불빛들! ...

그것은 분명 밤하늘의 별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불빛의 흐름이었다.

나는 남편과 여행가방을 맞들고 정답게 반짝거리는 마을로 향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니 불밝은 평양의 밤거리를 거닐 때처럼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쾌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끼었다.

불빛이란 인간들에게 얼마나 정다운것인가!

아득한 고대로부터 인간은 불과 함께 살아왔다.

불의 발견은 인류에게 진화의 길을 열어놓은 사변으로 되었으며 불은 인간의 생존과 인류문명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것으로 되어왔다.

열을 주고 광명을 주는 불!

캄캄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실을 가리켜주는 등대가 되어

주었고 인간을 창조와 문명으로 떠밀어준 불!

불이 이토록 귀중하기에 인간은 자기에게 처음으로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신화도 창조했고 그를 정의의 화신으로 칭송해오는것이다.

나는 그 정다운 불빛을 따라 시집에 들어 섰다.

시부모님들은 한달음에 달려나와 새 며느리를 품에 안았고 시누이들은 밝은 얼굴로 새 올케를 에워싼채 방안으로 이끌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오랜 자동차여행과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선 새색시의 긴장감으로 피로해진 나는 그만 다음날아침 날이 밝고 새들이 지저귀는 늦은 아침에야 깨어나고말았다.

황황히 이부자리를 개여놓고 일어나니 집안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 갔을까? ...

둘러보니 나의 머리맡에는 산골사람들의 마음인양 함박에 무드기 담아놓은 삶은 고구마가 놓여있을뿐이었다.

아직도 따스한 고구마는 평양의 새 며느리를 위해주는 시어머니의 소박한 마음과 함께 이른새벽에 방을 비워놓고 나간 집사람들의 미안함도 엿보이는듯했다.

나는 새색시의 곤한 잠을 깨울세라 머리맡에 고구마함박을 놓아주고 조용히 어디론가 나간 산골사람들의 후더운 마음을 느끼며 문밖을 나섰다.

아! ... 눈부시도록 밝은 아침이여!

붉은 해가 산마루에 떠오르는 산촌의 아침은 약동하는 생의 활력이 차넘쳤다.

병풍처럼 빙 둘러선 높은 산봉우리들,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싱그러운 나무잎냄새, 단잠을 깬 새들이 무리지어 나는 소리...

나는 아이세계로 되돌아온듯 해빛이 찬란히 비치는 산촌을 둘러보았다.

산기슭에 새로 아담하게 지은 3층벽돌집들과 기와집들, 저 멀리 산굽이를 돌아내리는 강줄기와 자그마한 언제밑에서 돌아가는 소형발전소의 부드러운 타빈소리...

나는 기쁨과 환희로 힘껏 소리치고싶었다. 이

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내가 와있다는것이 한없이 즐거웠다.

한참만에야 나는 땀에 젖어가지고 삽이며 곡괭이를 메고 들어오는 시부모님들과 시동생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웃고 떠들며 걸어오는 마을사람들을 만났다. 옷동을 벗어던진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이른아침부터 마음껏 땀흘린 로동의 환희와 생활의 랑만이 가득차있었다.

나는 한참만에야 이들이 지금 돌리고있는 소형발전소아래에 또하나의 새로운 소형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기초를 파는 식전작업을 하고 들어온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도 많으신데...》

나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손에서 삽을 받아들였다.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새머느리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나의 등을 떠벌였다.

《어서 들어가자. 안됐구나. 오자마자 혼자 집을 지키게 해서...》

이젠 장군님의 뜻을 빗내이자고 나선 우리 고장사람들과 한식구가 됐으니 머느리도 리해하리라고 믿고 그냥 나갔었다.》

나는 가슴이 몽클하여 시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았다.그 순간 나는 흠칫 놀라며 두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 그것은 험한 일로 하여 트고 거칠어진 손이었다. 나는 얼른 다른 사람들의 손을 스쳐보았다. 그들의 손도 매한가지였다.

일생 교단에 선 교육자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크고 투박해진 시아버지의 두손 그리고 처녀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할 장알박힌 시누이의 두손...그처럼 부드럽고 후더운 인정미를 지닌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칠지고 역세인 이들의 손이었다.

이 손들이 바로 궁벽한 산골풍경을 오늘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온 손들이였고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손들이었다.

나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산촌의 아름다움과 별무리를 옮겨놓은것 같던 어제밤의 그 정다운 불빛을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그 모든것은 소박하고 후더운 인정을 지닌 이들, 별로 빼여지게 잘난것도 없고 요란한 기계나 누구의 방조도 없이 이들자신의 손으로 꾸리고 가꾸어놓은것이였다.

창조는 기쁨이지만 그만큼 땀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야 이루어지는것이다.

《위대하신 장군님께서선 엄동설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기 자강도땅을 찾아오시여 우리가 건설

해놓은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며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락원의 행군을 한다고 하시였다. 이제 우리가 땀을 더 흘리고 일을 많이 해서 발전소도 건설하고 생활도 더 윤택하게 꾸려나간다면 우리 앞날이 그만큼 환해지고 우리 장군님께서도 더 기뻐하실게 아니냐!》

나의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다.

생의 기쁨과 환희로 약동하는 여기 자강도땅!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 수천리길을 오시여 자기들의 앞길을 따듯이 열어주신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기에 오늘의 어려운 시련도 웃으며 헤쳐가고있는것이다.

중소형발전소를 세우고 새집을 짓고 전기로 방을 덥히고 밥을 짓는 그 훌륭한 생활은 저절로 차례진것이 아니였다.

이들은 강물이 얼어터지는 강추위속에서 강바닥을 파냈고 이 외진 산골에까지 골재며 세멘트를 실어오기 위해 어려운 수송전투도 벌렸으며 집을 짓기 위해 벽돌도 구워내고 자체로 기와도 찍었던것이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생활을 창조해왔다.

성실한 로동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기며 고난도 역경도 웃으며 헤쳐가는 진실한 인간들.

진함을 모르는 그 열정과 창조의 거대한 힘은 언제나 우리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그 길로만 힘차게 걸으면 저 푸른 하늘과 풍요한 대지는 영원히 자기들의것이라는것을 확고히 믿고있는 신념으로부터 오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들이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집행에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관철자로 되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강계정신을 창조한것이다.

나는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낀다.

그들은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강바닥 자갈을 추며 콩크리트를 다지고 나무를 심고 할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싶다.

생활의 기쁨은 저절로 차례지는 그 어떤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땀과 성실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고귀한 창조의 열매라고.

바로 더 좋은 생활을 위해,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창조의 구슬땀을 흘리는 여기에 진정 애국이 있는것이라고.

공화국창건 50돛기념 문학축전작품창작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50
돛을 맞으며 문학축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최후승
리를 위하여 강행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
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
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
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합니다.》**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50돛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기 위해 한결갈
이 분발하고있는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 등지
에 재능있는 작가들과 신진작가들을 파견하여 참
신한 종자를 골라잡고 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리도
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수많은 작품들이 사상에술성이
원숙하게 창작되어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우산장창작실에서 진행되는 창작전투에서도 특색
있는 작품들이 마감단계에서 창작되고있다.

소설분과에서는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
상한 단편소설창작에 모를 박고 창작전투를 힘있

게 내민 결과 이미 사상에술성이 높은 여러편의
작품들이 공화국창건 50돛기념 축전작품으로 제
출되였다.

시분과에서는 공화국창건 50돛을 사회주의승리
자의 대축전으로 맞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호소성이 높
은 여러 형식의 시작품들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
에서 창작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
여 현실속에서 참신한 종자를 골라진 시인들은
사색과 열정을 경주하여 이미 다양한 종류의 시
작품들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아동문학분과에서는 이미 공화국창건 50돛 문
학축전작품으로 아동단편소설 35편, 동요, 동시
150여편과 수십편의 동화들이 출품되였다.

축전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아동문학분과에서는 분과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우산장창작실에서 창작전투를 벌려 작품의 형상
적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이와 같이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공화국
창건 50돛을 기념하여 문학축전을 활발히 벌려나
감으로써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세상
에 내놓아 뜻깊은 국경절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
축전으로 장식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